

산림산업 고용환경 실태조사 및 심층평가 연구

2018. 11.

- 주관 연구 기관 : 한국재정학회
- 연구 책임자 : 이해춘(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 공동연구원 : 전승훈(대구대학교, 교수)
김기덕(코리아텍)

목 차

I. 연구목적 및 배경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주요 내용	2
II. 산림산업 일자리 현황	4
1. 산림일자리의 분류와 자료 추출	4
2. 산림산업 일자리 분석	7
III. 산림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17
1. 조사개요	17
2. 사업체 조사결과	22
3. 근로자 조사 결과	57
4. 기업체-근로자 비교 분석	101
5. 소결	106
IV. 산림산업 일자리 심층조사	113
1. 심층조사 개요	113
2. 사업체 조사결과	114
3. 근로자 조사결과	122
V. 연구결과와 정책제언	133

1. 연구결과의 요약	133
2. 주요 정책 제언	136
참고문헌	140
부록1. 설문지_사업체용	141
부록2. 설문지_근로자용	149

표 목차

<표 II-1> 각 년도 S분류 기준 사업자 및 사업장 수	4
<표 III-1> 모집단의 분포	17
<표 III-2> 표본의 분포	18
<표 III-3> 완료 표본	19
<표 III-4> 사업체 조사표	20
<표 III-5> 근로자 조사표	21
<표 III-6> 연도별 매출액	26
<표 III-7> 산업별 매출액	26
<표 III-8> 사업체 특성별 매출액	27
<표 III-9> 국내 경제 전망	28
<표 III-10> 산림산업 전망	30
<표 III-11> 사업체 매출 전망	31
<표 III-12> 직종별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자 수	34
<표 III-13> 직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비중	35
<표 III-14> 산업별 규모별 종사자수(종사자지위별, 2016년 기준)	36
<표 III-15> 근속년수 별 인력 비중	38
<표 III-16> 임시 일용직 고용 이유	39
<표 III-17> 신규채용 및 퇴직인원	40
<표 III-18> 직종별 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계획	41
<표 III-19> 채용시 주요 고려 사항: 연령별	42
<표 III-20> 채용 시 주요 고려 사항: 특성별	43
<표 III-21> 인력채용을 계획한 이유	44
<표 III-22> 주요 채용 경로	45
<표 III-23> 인력채용 및 활용의 어려운 점	46
<표 III-24> 평균임금	47
<표 III-25> 규모별 전 산업 평균임금(2017년)	48
<표 III-26> 산업별 평균임금(2017년)	49
<표 III-27> 4대보험 가입여부	50
<표 III-28> 사업장 복지 혜택	51
<표 III-29> 취업규칙신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	51
<표 III-30> 교육훈련 필요성 및 교육실시 여부	52
<표 III-31> 교육훈련 실시의 어려움	53

<표 III-32>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54
<표 III-33>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산업별	54
<표 III-34>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56
<표 III-35>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산업별	56
<표 III-36> 국내 경제, 산림산업, 회사 매출 전망	61
<표 III-37> 일자리 전망	63
<표 III-38> 현 직장에서의 근속 개월 수	64
<표 III-39> 현 업종에서의 총 경력	64
<표 III-40> 응답자의 직종	65
<표 III-41> 응답자의 고용형태	66
<표 III-42> 응답자의 취업경로	68
<표 III-43>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69
<표 III-44> 응답자의 소정 근로시간	70
<표 III-45>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일 및 근로 시간	70
<표 III-46> 주당 희망 근로시간	71
<표 III-47> 초과 근로수당 지급 여부	72
<표 III-48> 초과 근로수당 지급 방식	72
<표 III-49> 초과 근로수당 산정 방식	73
<표 III-50> 임금 지급 주기	74
<표 III-51> 임금 지급 방식 및 연평균 임금	75
<표 III-52> 성과급제도 사용 여부	76
<표 III-53> 적용되는 성과급의 종류	77
<표 III-54> 희망 임금 수준	78
<표 III-55> 4대보험 가입자 비중	79
<표 III-56> 직장에서의 복지 혜택 수혜 비중	79
<표 III-57> 노동조합 설립여부 및 가입자 비중	80
<표 III-58>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81
<표 III-59> 교육훈련 필요성	81
<표 III-60>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82
<표 III-61>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	82
<표 III-62> 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 훈련기간	83
<표 III-63>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84
<표 III-64> 회사에서 교육 훈련 경험 여부	85
<표 III-65>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 방식	86
<표 III-66>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	87
<표 III-67>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87

<표 III-68>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전체 표본	88
<표 III-69>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남성	89
<표 III-70>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여성	89
<표 III-71>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산림사업법인	90
<표 III-72>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목재생산업	90
<표 III-73>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1
<표 III-74>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영림단	91
<표 III-75>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산림복지전문업	91
<표 III-76> 현 직장에 대한 불만사항	92
<표 III-77> 이직 희망 여부	93
<표 III-78> 이직 희망 사유	93
<표 III-79> 이직 희망 업종	94
<표 III-80> 고용계약 기간	94
<표 III-81> 고용계약 반복 또는 갱신 여부	95
<표 III-82> 정규직 전환 희망 여부	96
<표 III-83> 비정규직 근무경험과 정규직 전환	96
<표 III-84>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97
<표 III-85>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업종별	98
<표 III-86> 산림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99
<표 III-87>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업종별	100
<표 III-88> 국내 경제, 산림산업, 회사 매출 전망에 대한 인식 비교	101
<표 III-89> 구인 및 취업 경로 비교	102
<표 III-90>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103
<표 III-91>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103
<표 III-92>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산업별	103
<표 III-93>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104
<표 III-94>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산업별	105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3
<그림 III-1> 산업분류	22
<그림 III-2> 사업장 소재지	23
<그림 III-3> 사업체 조직 형태	23
<그림 III-4> 사업체 경영형태	24
<그림 III-5> 사업체 형태	24
<그림 III-6> 기업 규모	25
<그림 III-7> 응답자 성별	57
<그림 III-8> 응답자 업종 분포	58
<그림 III-9> 응답자 최종 학력	58
<그림 III-10> 가구주 여부	59
<그림 III-11> 월평균 소득	59

I. 연구목적 및 배경

1.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대폭 확대하고 이 결과에 따라 예산과 연동할 예정에 있음(일자리위원회 2017.8.8.)
 - 사업부처에서는 고용영향평가센터(한국노동연구원)의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해당 사업의 사전적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정의 보조지표로 사용
 -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해 ‘기초평가 지표’를 설정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 심층 평가(한국고용정보원, 모니터링센터)를 실시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조정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이행점검 및 일자리 평가를 강화
 -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에서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일자리 양을 늘리고, 차별 해소를 통해 일자리 질을 개선’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대 중점 과제(100개 세부 추진과제)를 구성하여 연차별 이행목표와 이행계획을 설정
 - 이행계획 분야 및 중점 과제 : 일자리 인프라 구축(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개발), 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책 수립 예정
 - 100개 세부 추진과제별 주관부처를 지정하고, 주관부처는 이행상황을 일자리 기획단에 제출하고 현장점검단의 점검 결과를 일자리위원회에 상정 및 집중 관리

-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 일

자리사업을 주도하고 있음

- ‘사람중심의 산림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조성을 목표로 공공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산업 일자리, 직접 일자리, 사회적 경제 및 창업, 전문 일자리 사업 등을 전개

□ 일반적으로 산림산업 일자리는 일부 전문직 직군을 제외하면 중.저숙련 노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사람중심 산림순환경제를 통한 일자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산업 일자리를 청년중심의 기술집약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개선할 필요성 제기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 1) 실태조사(심층면접)을 통해 주요 산림일자리 사업의 고용환경(일자리 양과 질) 등을 분석한 후, 산림 일자리의 고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2) 주요 일자리사업의 집행과정 합리화, 사업확대 및 조정,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산림 일자리의 증가, 전문성 제고, 청년층 유입 증대 등을 위한 대안을 모색

3. 연구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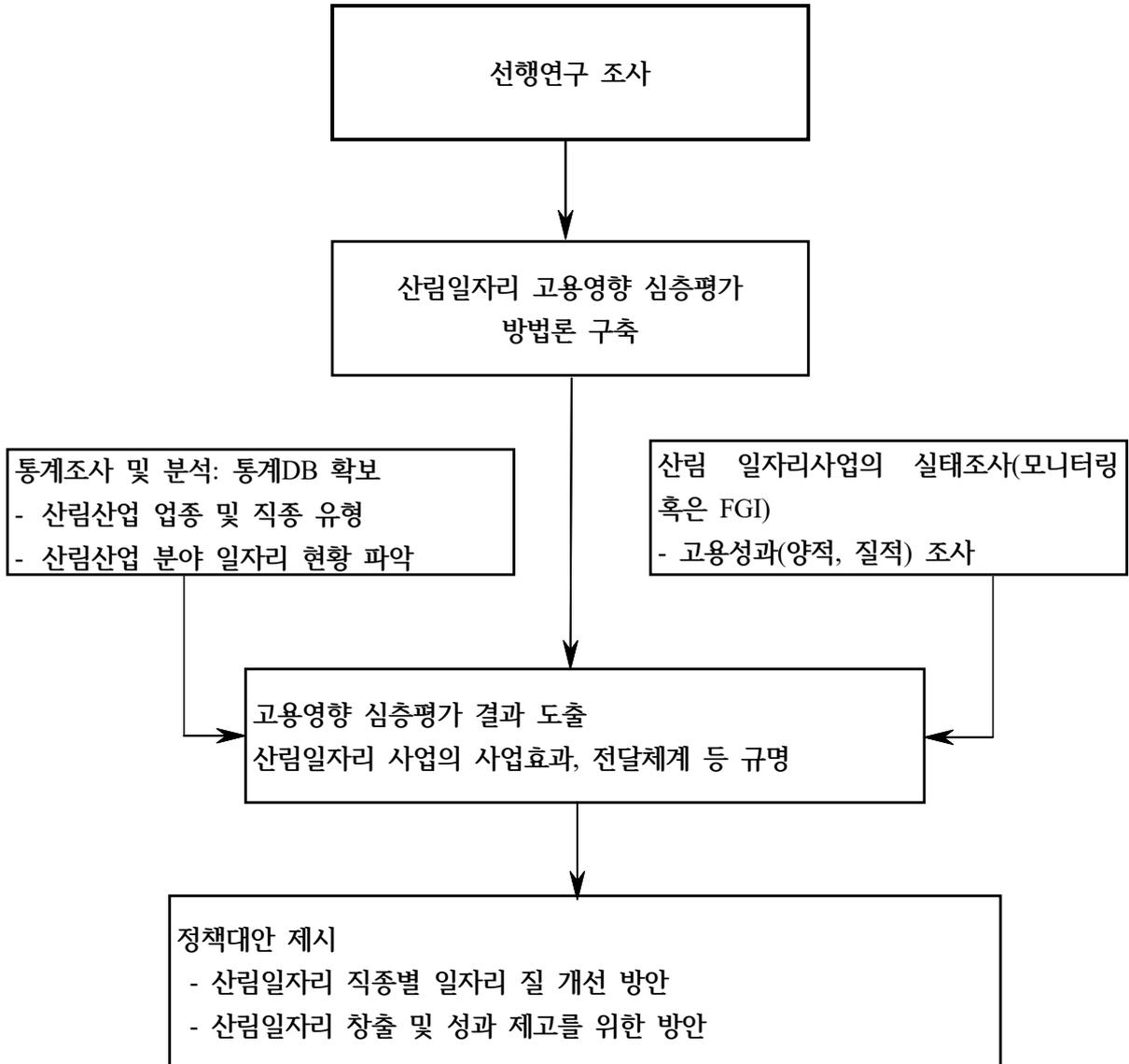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산림산업의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실태조사를 통해 일자리창출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음

-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주요내용
- 2장에서는 고용보험DB를 통한 산림일자리 현황 분석
- 3장에서는 사업체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일자리 실태조사
- 4장에서는 일자리 심층 인터뷰를 통한 심층조사

○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연구 흐름은 다음과 같음

<그림 I-1> 연구의 흐름도



II. 산림산업 일자리 현황

1. 산림일자리의 분류와 자료 추출

가. 산림일자리의 자료 추출

□ 산림일자리 분류를 위해 고용보험DB(사업장 자료)와 산림청이 제공한 관련업체 사업자 등록번호 수집 자료를 활용

○ 고용보험DB를 활용하여, 분류기준(K분류, S분류) 상 산림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정보를 식별하고,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피보험자 정보를 추출

- 사업장 자료 : 2013~2017년 기간 각 년도 12월 기준 자료

- 피보험자 이력 정보 : 2013. 1. 1. ~ 2018. 6. 9. 기간 고용보험 유지 이력이 존재하는 모든 피보험자 이력

○ 산림청에 등록된 10,277개 업체, 법인 및 단체 정보 중 각 년도 고용보험DB 사업장 정보와 매칭하여 매칭된 사업장을 S분류상 산림산업으로 식별

- 결측과 중복을 제거한 6,493개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보험DB 사업장 정보와 매칭한 결과 아래와 같이 S분류상 산림산업 사업장을 식별

<표 II-1> 각 년도 S분류 기준 사업자 및 사업장 수

년도	매칭된 사업자 수	매칭된 사업장 수
2013년	3,159	4,577
2014년	3,429	4,447
2015년	3,689	4,730
2016년	3,889	4,748
2017년	4,020	4,961

* 사업장 수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개수로 한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 운영 가능

나. 산림산업 일자리의 분류

- 산림일자리의 식별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
 - 고용보험DB 상 해당 사업장이 영위하는 산업분류를 기준으로 K분류체계 구성
 - 산림청 제공 정보상 해당 사업자의 업종을 기준으로 S분류체계 구성
-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산림산업 분류(이하, K분류)
 - K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세분류(5 digits)에서 산림분야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을 추출하여 재분류함. K분류는 5개의 대분류와 14개의 소분류로 구성

<표 II-2> K분류표

대분류	K분류		KSIC	
		소분류		
임산업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2	육림업	02012	육림업
	3	벌목업	02020	벌목업
	4	임산물 채취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목재산업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161)	16101	일반 제재업
			1610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7	나무제품 제조업(162, 163)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21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6291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2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300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8	펄프제조업(1711)	17110	펄프 제조업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1712, 1721, 1722, 1790)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5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211			골판지 제조업	
17212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K분류		KSIC		
대분류	소분류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0	가구제품 제조업(3202)	32021
		32029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석재산업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12	석제품 제조업(2391)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조경산업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41226	조경 건설업
			7430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종자산업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 산림청분류 기준 산림산업분류(이하, S분류)

- S분류는 산림관계법률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법인·단체 등을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8개 대분류, 18 소분류로 구성한 것
- 대부분 1개의 대분류와 1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지만, 산림전문업은 5개의 소분류, 산림사업법인은 7개의 소분류로 구성됨

<표 II-3> S분류표

대분류		소분류	
1	원목생산업	1	원목생산업
2	목재수입유통업	2	목재수입유통업
3	제재업	3	제재업
4	산림복지전문업	4	숲해설업
		5	유아숲교육업
		6	숲길체험지도업
		7	종합산림복지업
5	산림사업법인	8	산림치유업
		9	나무병원
		10	산림토목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3	도시림 등 조성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5	숲길 조성·관리		
6	사회적기업	16	사회적기업
7	국유림영림단	17	국유림영림단
8	단기일자리	18	단기일자리

2. 산림산업 일자리 분석

가. K, S분류에 의한 산림산업 업체와 종사자 수

(1) S-K분류 교차분포 행렬

- 2017년 기준 S분류에 의한 산림산업과 K분류에 의한 산림산업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의 교차 분포를 구성하여 분류의 중복 정도를 파악
 - 2017년 기준 S분류 상 산림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4,961개 및 상시근로자 95,670명과, K분류 상 산림산업에 해당하는 37,647개 및 상시근로자 208,601명에 대한 교차 분포 구성
 - S분류와 K분류 모두 산림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2,188개, 상시근로자는 20,463명으로 나타남

<표 II-4> S분류-K분류에 따른 사업장 수, 상시근로자 수 현황(2017년)

사업장 수(개)		K분류 기준 산림산업	K분류 기준 산림산업 아님
	S분류 기준 산림산업	2,188	2,773
	S분류 기준 산림산업 아님	35,459	
상시근로자 수(명)		K분류 기준 산림산업	K분류 기준 산림산업 아님
	S분류 기준 산림산업	20,463	75,207
	S분류 기준 산림산업 아님	188,138	

나. K분류에 의한 산림산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

(1) 사업장 수와 상시근로자 수

- K분류에 따른 산림산업 사업장은 2013년 26,288개에서 2017년 37,647개로 증가
 -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13,548개),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5,396개), 임업 관련 서비스업(5,232개), 가구제품 제조업(4,689개)의 순임.
 - 특히,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은 2013년 6,039개에서 2017년 13,548개로 2배 이상 증가함.

<표 II-5> K분류에 의한 사업장 수 추이

(단위 : 개)

K분류 대분류	K분류 소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산업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86	89	87	79	74
	2 육림업	401	540	647	591	699
	3 벌목업	990	1,011	759	603	588
	4 임산물 채취업	9	21	10	15	16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4,552	4,636	5,133	5,110	5,232
목재산업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285	1,328	1,292	1,293	1,188
	7 나무제품 제조업	3,530	3,874	3,981	4,053	4,245
	8 펄프제조업	26	27	28	30	28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3,402	3,471	3,615	3,702	5,396
	10 가구제품 제조업	4,296	4,370	4,642	4,761	4,689
석재산업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118	113	108	106	328
	12 석제품 제조업	1,291	1,317	1,360	1,385	1,350
조경산업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6,039	10,457	12,255	10,836	13,548
종자산업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263	270	291	294	266
합계		26,288	31,524	34,208	32,858	37,647

□ K분류 기준 산림산업 상시근로자는 2013년 162,983명에서 2017년 208,601명으로 증가

- 2017년 기준으로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53,834명),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46,702명), 임업 관련 서비스업(35,195명)에 많은 상시근로자 분포.
-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은 사업장 수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적어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고 할 수 있음.

<표 II-6> K분류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K분류 대분류	K분류 소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임산업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353	320	405	322	314
	2 육림업	2,694	3,620	4,148	3,740	4,332
	3 벌목업	4,247	5,464	4,429	3,288	2,971
	4 임산물 채취업	46	120	55	85	66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33,249	30,049	31,321	35,074	35,195
목재산업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7,545	7,851	7,905	7,792	7,328
	7 나무제품 제조업	21,460	23,948	25,294	26,351	26,624
	8 펄프제조업	1,234	1,292	1,263	1,231	1,217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37,300	38,180	38,014	38,552	53,834
	10 가구제품 제조업	18,785	18,810	20,401	20,880	20,794
석재산업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847	897	901	758	3,151
	12 석제품 제조업	4,468	4,697	5,254	5,077	5,008
조경산업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 비스업	29,984	47,946	54,227	41,948	46,702
종자산업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771	885	1,080	971	1,065
합계		162,983	184,079	194,697	186,069	208,601

(2) K분류 사업장과 상시근로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기준)

□ 사업장은 경기(12,287개), 경북(3,491개), 경남(3,309개) 등의 순

□ 상시근로자는 경기(66,448명), 경북(21,387명), 서울(16,69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은 사업장의 수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가 높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이 많은 편

<표 II-7>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2017년)

(단위 : 개)

K분류 소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	1	1	0	2	0	0	2	11
2	육림업	1	8	1	2	1	1	2	0	26
3	벌목업	0	0	0	1	1	2	0	3	55
4	임산물 채취업	0	0	0	0	0	0	0	0	2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177	124	15	32	18	7	234	4	745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8	67	15	189	15	14	28	5	281
7	나무제품 제조업	133	204	105	356	78	68	87	11	1,799
8	펄프제조업	0	0	2	0	1	1	2	2	8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417	220	219	225	61	75	49	30	2,682
10	가구제품 제조업	243	183	128	263	100	109	33	6	2,754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3	2	2	2	3	0	4	0	32
12	석제품 제조업	10	25	12	20	11	17	18	4	480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1,090	476	358	564	283	262	233	169	3,322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29	9	7	4	8	8	0	3	90
합계		2,111	1,319	865	1,658	582	564	690	239	12,287

K분류 소분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6	4	31	2	3	2	5	4	74
2	육림업	62	44	33	76	83	220	121	18	699
3	벌목업	126	67	170	41	51	45	26	0	588
4	임산물 채취업	8	1	1	1	1	1	1	0	16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462	390	227	158	770	844	714	311	5,232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78	58	46	87	68	111	102	16	1,188
7	나무제품 제조업	86	163	165	145	123	284	404	34	4,245
8	펄프제조업	1	3	2	1	0	1	3	1	28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59	265	241	148	66	313	312	14	5,396
10	가구제품 제조업	106	102	92	95	73	158	182	62	4,689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쇄석 생산업	43	33	33	22	44	61	38	6	328
12	석제품 제조업	48	69	119	192	66	110	116	33	1,350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771	340	879	764	1,176	1,326	1,271	264	13,548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14	10	13	18	18	15	14	6	266
합계		1,870	1,549	2,052	1,750	2,542	3,491	3,309	769	37,647

<표 II-8> 상시근로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단위 : 명)

K분류 소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	28	3	0	5	0	0	19	26
2	육림업	2	20	13	7	3	2	54	0	139
3	벌목업	0	0	0	1	9	12	0	26	316
4	임산물 채취업	0	0	0	0	0	0	0	0	21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3,581	278	58	80	63	99	1,809	31	3,953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12	362	50	2,287	58	52	274	18	1,507
7	나무제품 제조업	3,430	1,263	463	2,969	324	216	534	42	9,604
8	펄프제조업	0	0	18	0	199	64	532	161	29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3,913	1,400	2,560	1,799	439	1,621	1,140	516	22,700
10	가구제품 제조업	1,414	619	329	2,166	319	271	91	9	12,361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쉼석 생산업	92	22	6	39	4	0	60	0	397
12	석제품 제조업	100	75	35	104	39	83	65	10	1,905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3,898	2,670	1,277	2,273	789	1,382	670	717	13,104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248	19	7	16	19	19	0	16	386
합계		16,690	6,756	4,819	11,741	2,270	3,821	5,229	1,565	66,448

K분류 소분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	임업용 종묘 생산업	9	11	127	7	21	31	18	9	314
2	육림업	281	245	179	279	657	1,713	615	123	4,332
3	벌목업	766	320	623	178	300	258	162	0	2,971
4	임산물 채취업	35	3	0	0	5	1	1	0	66
5	임업 관련 서비스업	3,347	2,006	1,259	925	5,814	6,874	3,784	1,234	35,195
6	제재 및 목재 가공업	330	201	187	510	351	638	466	25	7,328
7	나무제품 제조업	277	814	876	1,032	730	1,538	2,436	76	26,624
8	펄프제조업	10	5	36	94	0	4	47	18	1,217
9	종이, 종이제품 제조업	476	3,335	3,317	2,333	696	3,646	3,769	174	53,834
10	가구제품 제조업	255	852	229	214	190	654	704	117	20,794
11	건설용 석재 채굴 및 쉼석 생산업	338	306	286	294	318	641	296	52	3,151
12	석제품 제조업	136	238	381	703	210	310	473	141	5,008
13	조경건설 및 유지 서비스업	2,601	1,027	2,399	1,808	2,796	5,021	3,348	922	46,702
14	종자 및 묘목 도매업	36	50	53	52	33	58	28	25	1,065
합계		8,897	9,413	9,952	8,429	12,121	21,387	16,147	2,916	208,601

다. S분류에 의한 산림산업 사업장과 종사자 수

(1) S분류 산림산업 사업장 수와 상시근로자 수

□ S분류에 따른 산림산업 사업장은 2013년 4,577개에서 2017년 4,961개로 증가

-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목재수입유통업(866개), 제재업(791개),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791개), 나무병원(756개)의 순임.
- 나무병원은 2013년 589개에서 2017년 756개로 빠른 증가세.

<표 II-9> S분류에 의한 사업장 수 추이

(단위 : 개)

S분류 대분류		S분류 소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1	원목생산업	1	원목생산업	447	450	457	418	412
2	목재수입유통업	2	목재수입유통업	726	796	847	895	866
3	제재업	3	제재업	716	724	754	797	791
4	산림복지전문업	4	숲해설업	26	36	34	42	83
		5	유아숲교육업	13	16	18	24	41
		6	숲길체험지도업	2	2	3	3	6
		7	종합산림복지업	3	4	4	5	5
		8	산림치유업	1	1	2	2	5
5	산림사업법인	9	나무병원	589	605	637	704	756
		10	산림토목	389	373	352	350	350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11	11	11	15	15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 조사	23	20	31	26	24
		13	도시림등 조성	303	271	332	329	344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754	640	765	721	791
		15	숲길 조성·관리	10	11	7	13	16
6	사회적기업	16	사회적기업	4	6	14	31	43
7	국유림영림단	17	국유림영림단	291	252	227	162	176
8	단기일자리	18	단기일자리	270	230	236	213	237
		합계		4,577	4,447	4,730	4,748	4,961

□ S분류 산림산업 상시근로자는 2013년 83,793명에서 2017년 95,670명으로 증가

- 2017년 기준으로, 목재수입유통업(41,213명), 나무병원(18,971명) 업종에 많은 상시근로자 분포.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업종의 사업장 수는 목재수입유통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업종이지만, 상시근로자 수는 2017년 기준 5,692명으로 작아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사업장이 많은 편.

<표 II-10> S분류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 추이

(단위 : 명)

S분류 대분류		S분류 소분류		2013	2014	2015	2016	2017
1	원목생산업	1	원목생산업	4,616*	4,515	4,496	3,999	3,500
2	목재수입유통업	2	목재수입유통업	32,270	34,909	37,553	40,630	41,213
3	제재업	3	제재업	9,912	8,739	8,495	9,497	9,448
4	산림복지전문업	4	숲해설업	753	672	1,217	968	945
		5	유아숲교육업	45	100	102	89	145
		6	숲길체험지도업	22	23	37	38	46
		7	종합산림복지업	4	6	5	7	5
		8	산림치유업	0	1	2	2	10
5	산림사업법인	9	나무병원	15,213	16,366	17,587	18,211	18,971
		10	산림토목	3,019	2,949	2,847	2,868	2,906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153	155	148	159	178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443	512	635	543	550
		13	도시림등 조성	3,773	4,495	4,690	4,665	4,791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5,852	5,308	6,162	5,596	5,692
		15	숲길 조성·관리	2,063	2,934	2,590	2,892	3,151
6	사회적기업	16	사회적기업	56	84	161	95	173
7	국유림영림단	17	국유림영림단	2,988	2,378	2,552	1,657	1,780
8	단기일자리*	18	단기일자리	2,612	2,652	2,535	2,209	2,166
합계				83,793	86,796	91,812	94,125	95,670

* 한 사업자가 여러 개의 S분류를 가지는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의 중복을 막기 위해 사업자 당 1/(사업장 수)로 가중치를 곱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반올림 하였음.

(2) S분류 산림산업 사업장과 상시근로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기준)

□ 사업장은 경기(708개), 강원(678개), 경북(496개) 등의 순

□ 상시근로자는 서울 지역에 32,937명으로 집중

○ 특히, 서울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목재수입유통업의 상시근로자가 16,099명.

<표 II-11> 사업장의 지역별 분포(2017년)

(단위 : 개)

S분류 소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1	원목생산업	14	3	4	9	3	9	2	0	60	101
2	목재수입유통업	154	68	2	220	5	6	10	2	156	8
3	제재업	98	37	7	2	10	6	10	0	143	153
4	숲해설업	10	4	4	6	3	4	2	0	5	9
5	유아숲교육업	7	1	2	2	2	2	1	0	7	6
6	숲길체험지도업	1	0	0	0	0	1	0	0	0	0
7	종합산림복지업	1	0	0	0	0	1	0	0	2	0
8	산림치유업	1	0	0	0	0	1	0	0	1	1
9	나무병원	84	19	12	26	7	86	22	21	229	21
10	산림토목	47	5	1	1	2	0	27	0	18	39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0	1	0	1	1	0	0	0	2	0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2	0	0	0	0	0	0	0	6	2
13	도시림등 조성	3	11	0	0	1	0	6	1	9	15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	12	2	2	2	0	23	1	37	135
15	숲길 조성·관리	3	3	1	1	1	0	0	0	6	0
16	사회적기업	4	2	2	0	1	1	1	0	6	4
17	국유림영림단	0	2	0	0	0	0	2	0	3	99
18	단기일자리	8	0	0	0	0	2	0	0	19	84
합계		437	168	34	269	35	117	104	25	708	678

S분류 소분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	원목생산업	47	34	33	28	42	15	9	412
2	목재수입유통업	27	29	60	37	23	55	5	866
3	제재업	72	42	0	1	94	118	0	791
4	숲해설업	3	6	7	5	6	8	1	83
5	유아숲교육업	3	1	2	2	3	2	0	41
6	숲길체험지도업	0	0	2	0	0	2	0	6
7	종합산림복지업	1	0	0	0	0	0	0	5
8	산림치유업	1	0	0	0	0	0	0	5
9	나무병원	17	44	30	77	27	32	4	756
10	산림토목	29	20	41	38	45	40	0	350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0	0	2	7	0	2	0	15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3	4	1	4	1	0	1	24
13	도시림등 조성	34	30	57	131	33	8	5	344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69	70	37	134	139	110	20	791
15	숲길 조성·관리	0	0	0	0	0	1	0	16
16	사회적기업	3	3	4	7	1	3	1	43
17	국유림영림단	12	2	6	8	38	3	2	176
18	단기일자리	18	10	17	15	45	16	3	237
합계		339	294	298	495	496	414	50	4,961

<표 II-12> 상시근로자의 지역별 분포(2017년)

(단위 : 명)

S분류 소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	원목생산업	318	48	94	558	14	77	20	0	368
2	목재수입유통업	16,099	1,313	50	3,500	14	189	1,867	12	9,394
3	제재업	3,113	473	51	49	87	94	678	0	1,257
4	숲해설업	30	15	8	39	6	36	3	0	30
5	유아숲교육업	24	5	5	3	5	6	3	0	29
6	숲길체험지도업	2	0	0	0	0	27	0	0	0
7	종합산림복지업	1	0	0	0	0	0	0	0	3
8	산림치유업	0	0	0	0	0	3	0	0	2
9	나무병원	7,749	112	126	239	46	1,912	134	379	6,048
10	산림토목	236	25	1	545	8	0	124	0	129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0	2	0	1	3	0	0	0	7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2	0	0	0	0	0	16	0	86
13	도시림등 조성	2,510	75	0	0	7	0	54	4	126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4	71	8	10	12	0	159	4	336
15	숲길 조성·관리	2,515	7	4	546	3	0	0	0	37
16	사회적기업	7	11	2	0	4	3	1	0	83
17	국유림영림단	0	11	0	0	0	0	12	0	15
18	단기일자리	278	0	0	0	0	95	0	0	541
합계		32,937	2,166	346	5,489	207	2,439	3,069	399	18,491

S분류 소분류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1	원목생산업	807	227	217	191	132	258	130	45	3,500
2	목재수입유통업	158	730	1,672	2,353	1,131	544	2,153	37	41,213
3	제재업	742	860	259	0	3	853	932	0	9,448
4	숲해설업	623	8	69	13	15	32	18	1	945
5	유아숲교육업	24	5	9	4	12	10	3	0	145
6	숲길체험지도업	0	0	0	12	0	1	4	0	46
7	종합산림복지업	0	1	0	0	0	0	0	0	5
8	산림치유업	3	1	0	0	1	0	0	0	10
9	나무병원	621	70	256	852	251	70	98	10	18,971
10	산림토목	285	140	133	568	260	257	196	0	2,906
11	자연휴양림 등 조성	4	0	0	18	130	4	10	0	178
12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17	18	22	234	42	59	0	4	550
13	도시림등 조성	96	214	210	298	793	298	78	31	4,791
14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968	447	472	210	912	1,139	803	139	5,692
15	숲길 조성·관리	1	0	0	0	0	3	37	0	3,151
16	사회적기업	7	15	4	11	20	1	6	1	173
17	국유림영림단	1,177	89	24	40	59	343	7	3	1,780
18	단기일자리	476	35	37	126	110	297	97	74	2,166
합계		6,008	2,857	3,383	4,929	3,868	4,167	4,570	345	95,670

Ⅲ. 산림산업 일자리 실태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 2018년 기준 산림산업 일자리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사업체 11,214개, 종사자 103,244명임

<표 Ⅲ-1> 모집단의 분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37	840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997	7,390	
		산림토목	535	5,375	
		자연휴양림 등 조성	29	552	
		도시림 등 조성	473	3,298	
		숲길 조성 및 관리	34	7,932	
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519	4,561	
		제재업	1,256	17,350	
목재·펄프·종이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627	3,836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514	3,136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625	3,979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674	6,244	
	종이제품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1,662	15,378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509	3,411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534	7,356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1,872	9,931	
	영림단	영림단	영림단	114	947
	산림복지전문업	산림복지전문업	숲길체험업	8	78
숲해설업			108	1,377	
산림치유업			10	17	
유아숲지도업			71	248	
산림종합복지업			6	8	
계			11,214	103,244	

나. 표본설계

□ 표본크기의 결정 및 배분

- 일반적으로 목표 정도는 흔히‘목표허용오차’나‘변동계수’를 고려하여 사전에 결정함
- 국가 통계 생산 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전체에 대한 목표허용오차는 10%이내를 공표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 층별로 계산된 추정값에 대해서는 목표허용 오차를 25% 이내까지도 허용하고 있음
- 목표 정도는 조사비용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허용된 예산한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조사에서는 목표허용오차를 5%로 설정한 뒤 모집단의 구성을 참고하여 비례배분 하였음

<표 III-2> 표본의 분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	2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8	30	
		산림토목	22	30	
		자연휴양림 등 조성	5	19	
		도시림 등 조성	21	29	
		숲길 조성 및 관리	5	31	
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22	30	
		제재업	29	31	
목재·펄프·종이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4	29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22	29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4	29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25	30	
	종이제품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31	3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2	29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2	30	
	목재가구 제조업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	31
	영림단	영림단	영림단	9	23

산림복지전문 업	산림복지전문업	숲길체험업	5	5
		숲해설업	8	25
		산림치유업	5	5
		유아숲지도업	6	13
		산림종합복지업	5	5
계			377	536

- 이 때, 일반적으로 사업체 조사의 경우 매출액과 종사자 수를 이용한 절사층화 추출법을 많이 이용함. 그러나 본 조사의 경우 사전에 매출액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어, 지역과 종사자 수로 층화하여 비례배분법에 의해 표본을 배분하여 조사를 진행

<표 III-3> 완료 표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산림사업법인	산림사업법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	1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8	90	
		산림토목	22	35	
		자연휴양림 등 조성	5	9	
		도시림 등 조성	21	53	
		숲길 조성 및 관리	5	9	
목재생산업	목재생산업	원목생산업	22	39	
		제재업	29	56	
목재·펠프· 종이 제조업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24	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22	31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24	39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25	27	
	종이제품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31	45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22	34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2	41	
	목재가구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2	32	
	영림단	영림단	영림단	9	-
	산림복지전문 업	산림복지전문업	숲길체험업	5	-
숲해설업			8	-	
산림치유업			5	-	
유아숲지도업			6	-	
산림종합복지업			5	-	
계			374	583	

다. 조사방법과 조사기간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조사표를 이용한 팩스, 이메일, 전화조사 등 멀티조사

□ 조사기간

- 2018년 8월 27일(월)부터 2018년 9월 14일(금)

라. 조사표의 구성

<표 III-4> 사업체 조사표

구 분	조사 항목
일반현황	사업체 정보
	산업분류
	사업내용
	소재지
	조직형태
	경영형태
	기업규모
	매출액
	경제전망
근로자 현황	고용형태별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고용 사유
	신규채용 및 퇴직 인원
	근속년수별 근로자 현황
	직종별 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 계획
	채용 시 고려하는 항목
	인력채용을 계획한 이유
	주로 활용하는 채용 경로
인력채용 및 활용에 어려운 점	
임금 및 근로복지	직종별 평균 월급여
	복지혜택 여부
	취업규칙 신고 및 노동조합·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교육훈련	교육 훈련의 필요성
	자체 교육 및 외부 위탁교육 실시 여부
	외부 위탁교육기관의 종류
	교육 실시시 어려움
정부지원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종류별 필요성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

<표 Ⅲ-5> 근로자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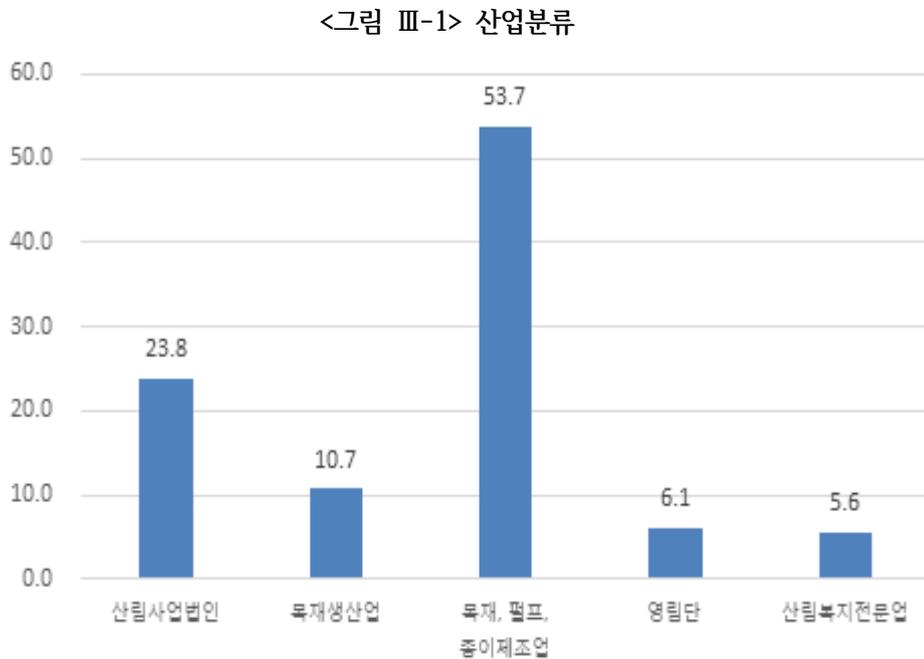
구 분	조사 항목
고용형태	현 직장 근속 년수
	직종 구분
	고용 형태
	취업 경로
근로시간 및 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당 소정 근로시간
	1주일 동안 실제 일한 내용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1주일 희망 근로 시간
	임금지급 형태
	임금지급 방식 및 현재 임금수준
	성과급 제도 사용 여부
	적용되는 성과급제 종류
근로복지	희망 임금수준
	사회보험 가입 여부
	복지혜택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교육 및 훈련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교육 훈련의 필요성
	교육 훈련이 필요한 이유
	필요한 훈련 분야
	필요한 훈련 기간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교육 훈련 경험 여부
	참여한 교육의 방식
	참여한 교육 훈련의 만족도
	교육훈련의 업무 수행 기여도
고용 만족도	고용 만족도
	전반적 고용 만족도
	직장 불만사항
	이직 희망 여부
	이직을 희망하는 이유
	이직을 희망하는 업종
일자리 전망	국내 경제, 산림 산업, 사업체 매출 전망 및 전망치
	국내 경제, 산림 산업, 사업체 일자리 전망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
	고용계약 기간 갱신 여부
	정규직 전환 희망 여부
	비정규직 근무 경험의 정규직 취업 기여도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종류별 필요성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
일반현황	성별
	최종학력 및 졸업여부, 전공
	혼인상태 및 가구주여부, 자녀 수, 동거 가족 수
	월 평균 총 소득, 경제활동 가구원 수

2. 사업체 조사결과

가. 기업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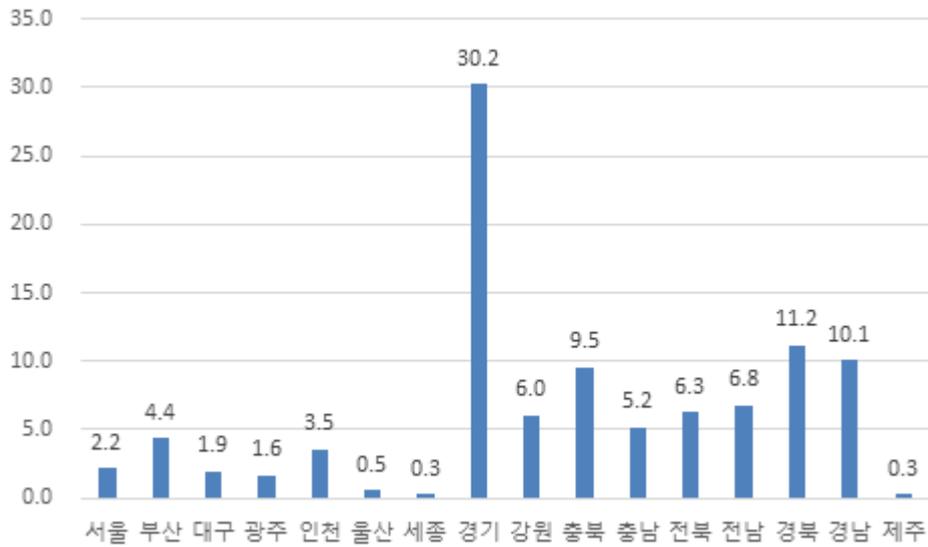
(1) 산업분류

- 조사에 응한 산림산업 374개 업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목재·펄프·종이 제조업으로 전체의 53.7%(201개)에 해당함.
 - 그 외 산림사업법인이 23.8%(89개), 목재생산업이 10.7%(40개), 영림단이 6.1%(23개), 산림복지전문업이 5.6%(21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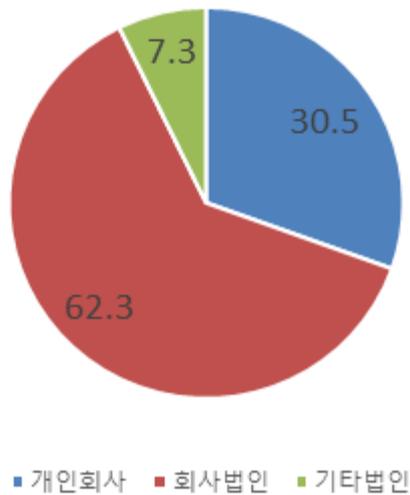
- 사업장 소재지는 374개 사업체 중 367개 기업이 응답하였으며, 전체 사업체의 30.2%(111개)가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북(11.2%, 41개), 경남(10.1%, 37개), 충북(9.5%, 35개) 등에 소재한 기업이 많았음

<그림 Ⅲ-2> 사업장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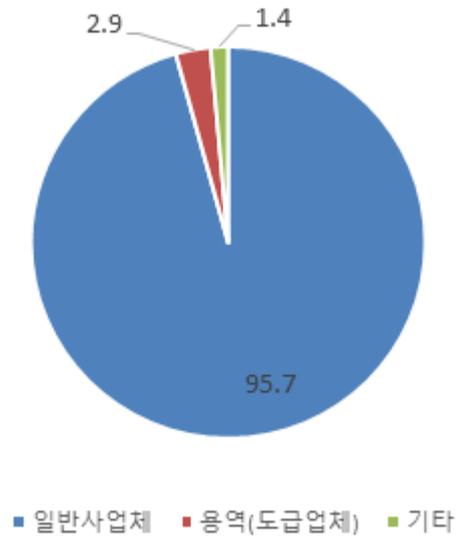
□ 사업체의 조직형태는 회사법인이 전체의 62.3%, 개인회사가 30.5%, 기타법인이 7.3%임

<그림 Ⅲ-3> 사업체 조직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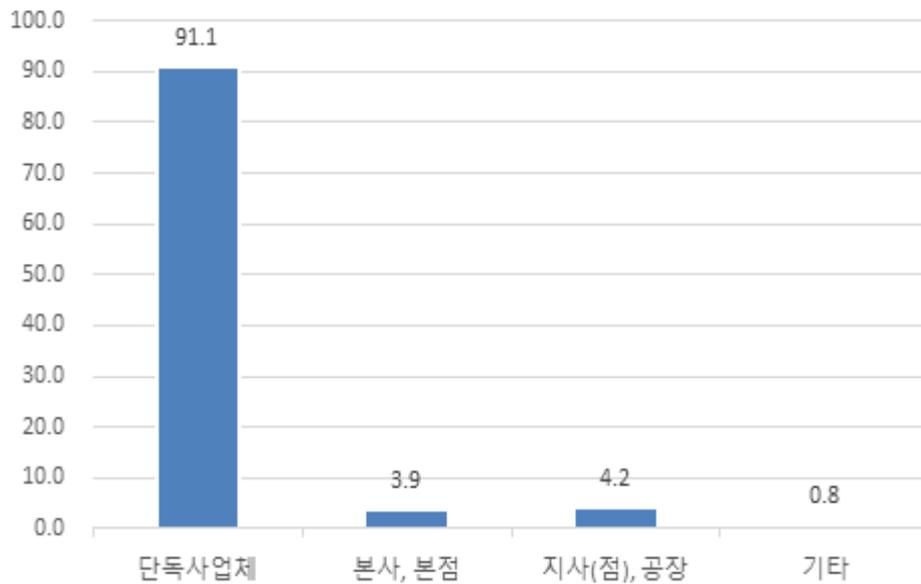
□ 사업체의 경영형태를 살펴보면 일반사업체가 대부분인 95.7%를 차지하며, 용역(도급업체는 2.9%, 기타 경영형태는 1.4%임

<그림 Ⅲ-4> 사업체 경영형태



□ 사업체 형태는 사업장이 하나인 단독사업체가 91.1%이고, 본사 혹은 본점인 경우가 3.9%, 지사 혹은 공장인 경우가 4.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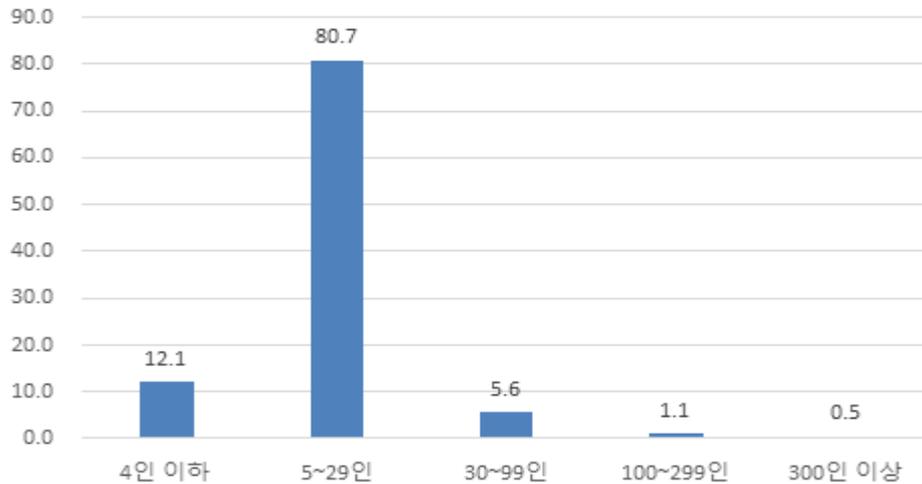
<그림 Ⅲ-5> 사업체 형태



□ 기업규모를 보면 5~29인 기업이 80.7%, 4인 이하 기업이 12.1%로 조사 기업 중 92.8%가 30인 미만 기업으로 조사됨

○ 조사기업 중 100인 이상 기업은 1.6%에 불과함

<그림 Ⅲ-6> 기업 규모



□ 2017년 기준 매출액을 보고한 354개 기업의 매출액 평균은 81.4억 원이고, 중위값은 13.0억 원 규모임

○ 평균에 대한 논의

- 조사 표본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연평균 매출액은 2015년 101.1억 원에서 2016년 81.5억 원, 2017년 81.4억 원으로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한 기업들의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일 수 있음

- 한편 2016년과 2017년 명목GDP 증가는 5.0%와 5.4%이고, 기업경영조사에 조사된 2016년 전 산업 매출액 증가율은 2.64%,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0.47%임

- 연평균 매출액의 증가율은 기업경영조사에 조사된 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 한편 산림산업 사업체의 경우 평균보다는 중위값이 산림산업의 실태를 더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매출액의 최솟값과 최댓값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액이 큰 몇몇 기업이 전체 평균을 끌어 올리고 있기 때문임

- 중위값 기준 산림사업 사업체의 매출규모는 월 1억 원을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나타나, 사업체가 상당히 영세한 것으로 파악됨

<표 III-6> 연도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	관측수	평균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전체 표본	2015	237	10,105	1,200	5	530,000
	2016	338	8,149	1,400	6	556,000
	2017	354	8,141	1,300	5	580,000

- 매출액을 업종별로 비교해 보면, 목재펠프종이 제조업 사업체의 2017년 매출액이 평균 117.5억 원, 중위값 20.0억 원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음.
 - 목재펠프종이 제조업은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커서 해당 업종에 속한 사업체 간 매출규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산림사업법인과 목재생산업의 2017년 매출액 평균은 각각 47.3억 원과 48.6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나, 중위값은 각각 6.0억 원과 20.0억 원으로 차이가 있었음
 -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몇몇 기업이 평균을 끌어 올렸기 때문임
 -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평균이 각각 7.7억 원과 5.0억 원, 그리고 중위값이 각각 1.3억 원과 5.2억 원으로 아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7> 산업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평균			중위값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산림사업법인	6,197	4,687	4,725	400	600	600
목재생산업	4,845	4,675	4,859	2,000	2,000	2,0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5,407	11,432	11,751	2,400	2,000	2,000
영림단	438	503	495	450	518	519
산림복지전문업	1,803	1,657	774	411	361	133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체 특성별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음
 - 평균과 중위값을 기준으로 볼 때 강원, 전남, 경북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 조직형태에서는 개인회사와 기타법인, 경영형태에서는 용역(도급업체)과 기타의 매출액이 작았으며, 사업체 형태에서는 단독사업체의 매출규모가 작았음
- 매출규모는 기업 규모에 비례하고 있음
 - 조사대상 기업 중 80.7%를 차지하는 5~29인 기업의 매출액은 2017년 기준 평균 27.2억 원, 중위값 14.0억 원 수준에 불과함

<표 Ⅲ-8> 사업체 특성별 매출액

(단위: 백만원)

		평균			중위값		
		2015	2016	2017	2015	2016	2017
사업장 소재지	서울	104,733	40,007	53,267	13,000	1200	2500
	부산	1,562	1,648	1,680	950	1,000	1,000
	대구	1,400	1,176	1,645	1,400	1,000	1,500
	광주	3,475	13,640	11,515	2,100	2,800	2,250
	인천	2,180	2,197	2,223	1,860	2,000	2,000
	울산	2,500	2,000	1,500	2,500	2,000	1,500
	세종	-	2,000	2,000	-	2,000	2,000
	경기	19,312	12,928	12,514	2,800	2,500	2,250
	강원	330	400	384	300	433	450
	충북	25,293	21,700	21,875	1,050	1,025	1,100
	충남	1,677	1,551	2,211	1,100	1,100	1,200
	전북	1,788	2,974	2,692	800	2,800	1,000
	전남	432	794	743	350	430	459
	경북	4,388	3,552	3,623	700	800	900
	경남	1,933	2,125	2,381	1,600	1,650	1,800
제주	3,200	3,200	3,300	3,200	3,200	3,300	
조직형태	개인회사	1,370	1,751	1,782	850	950	925
	회사법인	14,334	11,672	11,887	1,600	1,600	1,700
	기타법인	2,231	2,484	1,775	700	2,300	700
경영형태	일반사업체	10,836	8,493	8,596	1,275	1,400	1,500
	용역(도급업체)	300	1,838	1,252	226	322	290
	기타	4,374	3,978	2,230	4,374	3,978	272
사업체 형태	단독사업체	4,640	3,929	3,928	1,150	1,200	1,100
	본사, 본점	113,652	91,779	87,944	3,000	4,000	6,000
	지사(점), 공장	35,413	26,679	28,789	500	3,500	5,500
	기타	4,526	4,111	4,275	4,526	4,111	4,275
기업규모	4인 이하	538	605	611	238	355	355
	5~29인	2,430	2,661	2,720	1,200	1,400	1,400
	30~99인	49,832	47,699	47,699	9,800	9,900	12,000
	100~299인	171,250	185,950	192,575	67,000	67,050	67,050
	300인 이상	153,100	153,100	153,150	153,100	153,100	153,150

나. 경영환경 및 경영 상태 전망

□ 국내 경제전망, 산림산업 전망, 그리고 사업체의 매출전망 등 경영환경 및 향후 경영 상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의 비중이 높고, 긍정적인 전망의 비중은 낮게 나타남

(1) 국내 경제 전망

□ 국내경제전망에 대해서는 2.9%가 매우 부정적으로, 50.3%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매우 긍정적 및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은 8.1%에 불과함

○ 국내경제전망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균값은 2.6에 불과함

- 보통에 3점이 부여되는 것을 고려할 때 평균적으로 국내 경제전망을 보통 이하로 보고 있음을 의미함

○ 모든 산업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목재생산업(매우 부정적 2.5%, 부정적 60.0%)과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3.0%, 56.7%) 사업체의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남

<표 Ⅲ-9> 국내 경제 전망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체		2.9	50.3	38.0	7.8	0.3	0.8	2.6
산업 분류	산림사업법인	3.4	42.7	44.9	9.0	0.0	0.0	2.6
	목재생산업	2.5	60.0	30.0	7.5	0.0	0.0	2.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3.0	56.7	33.3	6.5	0.0	0.5	2.5
	영림단	0.0	34.8	47.8	8.7	4.3	4.3	3.1
	산림복지전문업	4.8	19.1	57.1	14.3	0.0	4.8	3.1
사업장 소재지	서울	0.0	62.5	37.5	0.0	0.0	0.0	2.4
	부산	6.3	50.0	37.5	6.3	0.0	0.0	2.4
	대구	14.3	57.1	28.6	0.0	0.0	0.0	2.1
	광주	0.0	50.0	50.0	0.0	0.0	0.0	2.5
	인천	0.0	61.5	38.5	0.0	0.0	0.0	2.4
	울산	100.0	0.0	0.0	0.0	0.0	0.0	1.0
	세종	0.0	0.0	0.0	100.0	0.0	0.0	4.0
	경기	3.6	57.7	33.3	4.5	0.0	0.9	2.5
	강원	0.0	50.0	31.8	18.2	0.0	0.0	2.7
	충북	0.0	54.3	40.0	5.7	0.0	0.0	2.5
충남	5.3	47.4	42.1	5.3	0.0	0.0	2.5	

	전북	0.0	30.4	52.2	17.4	0.0	0.0	2.9
	전남	0.0	44.0	36.0	16.0	4.0	0.0	2.8
	경북	2.4	46.3	41.5	7.3	0.0	2.4	2.7
	경남	2.7	48.6	37.8	10.8	0.0	0.0	2.6
	제주	0.0	0.0	100.0	0.0	0.0	0.0	3.0
조직 형태	개인회사	5.3	53.1	30.1	8.8	0.9	1.8	2.6
	회사법인	1.7	51.1	40.3	6.9	0.0	0.0	2.5
	기타법인	3.7	33.3	51.9	11.1	0.0	0.0	2.7
경영 형태	일반사업체	2.4	51.3	36.7	8.7	0.3	0.6	2.6
	용역(도급업체)	0.0	20.0	70.0	0.0	0.0	10.0	3.4
	기타	20.0	0.0	80.0	0.0	0.0	0.0	2.6
사업체 형태	단독사업체	3.1	50.0	38.0	8.0	0.3	0.6	2.6
	본사, 본점	0.0	57.1	28.6	14.3	0.0	0.0	2.6
	지사(점), 공장	6.7	46.7	46.7	0.0	0.0	0.0	2.4
	기타	0.0	0.0	66.7	33.3	0.0	0.0	3.3
기업 규모	4인 이하	6.7	57.8	13.3	20.0	0.0	2.2	2.6
	5~29인	2.7	49.5	40.5	6.3	0.3	0.7	2.6
	30~99인	0.0	38.1	57.1	4.8	0.0	0.0	2.7
	100~299인	0.0	75.0	25.0	0.0	0.0	0.0	2.3
	300인 이상	0.0	50.0	50.0	0.0	0.0	0.0	2.5

(2) 산림산업 전망

□ 산림산업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매우 부정적으로, 37.4%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전체의 약 41.9%가 부정적으로 전망하였음

- 긍정적으로 전망한 사업체는 매우 긍정적 0.8%, 긍정적 17.4% 등 18.2%에 불과함
- 산림산업전망에 대한 5점 척도 평균은 2.8에 불과함
 - 국내경제전망의 평균점수 2.6에 비해서는 높지만, 보통이하 수준임
- 다만, 산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41.9%)는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53.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산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18.2%로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인 8.1%보다 높게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목재생산업(매우 부정적 5.0%, 부정적 45.0%)과 목재펄프종이제조업(4.0%, 46.8%) 사업체의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남
 - 5점척도 기준으로 보면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3.2점과 3.4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목재생산업과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의 사업체가 평가점수는 각각 2.6점에 불과하였으며, 산림사업법인도 2.9점을 부여하여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산림산업 전망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5점 척도 평균
전체		3.5	37.4	40.6	17.4	0.8	0.3	2.8
산업 분류	산림사업법인	1.1	29.2	51.7	18.0	0.0	0.0	2.9
	목재생산업	5.0	45.0	37.5	12.5	0.0	0.0	2.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4.0	46.8	33.3	15.4	0.0	0.5	2.6
	영림단	4.3	8.7	56.5	21.7	8.7	0.0	3.2
	산림복지전문업	4.8	0.0	52.4	38.1	4.8	0.0	3.4
사업장 소재지	서울	12.5	62.5	12.5	12.5	0.0	0.0	2.3
	부산	6.3	31.3	37.5	25.0	0.0	0.0	2.8
	대구	0.0	28.6	28.6	42.9	0.0	0.0	3.1
	광주	0.0	33.3	50.0	16.7	0.0	0.0	2.8
	인천	0.0	38.5	38.5	23.1	0.0	0.0	2.8
	울산	100.0	0.0	0.0	0.0	0.0	0.0	1.0
	세종	0.0	0.0	0.0	100.0	0.0	0.0	4.0
	경기	3.6	52.3	33.3	10.8	0.0	0.0	2.5
	강원	9.1	22.7	40.9	27.3	0.0	0.0	2.9
	충북	0.0	37.1	45.7	14.3	2.9	0.0	2.8
	충남	5.3	31.6	42.1	21.1	0.0	0.0	2.8
	전북	0.0	21.7	60.9	17.4	0.0	0.0	3.0
	전남	0.0	40.0	36.0	16.0	8.0	0.0	2.9
	경북	2.4	26.8	51.2	19.5	0.0	0.0	2.9
	경남	2.7	32.4	43.2	21.6	0.0	0.0	2.8
제주	0.0	0.0	100.0	0.0	0.0	0.0	3.0	
조직 형태	개인회사	7.1	40.7	35.4	14.2	1.8	0.9	2.7
	회사법인	1.7	39.0	41.6	17.3	0.4	0.0	2.8
	기타법인	3.7	14.8	51.9	29.6	0.0	0.0	3.1
경영 형태	일반사업체	3.3	40.0	40.0	15.8	0.6	0.3	2.7
	용역(도급업체)	10.0	20.0	30.0	40.0	0.0	0.0	3.0
	기타	0.0	0.0	40.0	60.0	0.0	0.0	3.6
사업체 형태	단독사업체	4.0	37.4	40.2	17.5	0.6	0.3	2.8
	본사, 본점	0.0	42.9	57.1	0.0	0.0	0.0	2.6
	지사(점), 공장	0.0	46.7	33.3	20.0	0.0	0.0	2.7
	기타	0.0	33.3	33.3	33.3	0.0	0.0	3.0
기업 규모	4인 이하	6.7	44.4	26.7	22.2	0.0	0.0	2.6
	5~29인	3.3	37.2	42.5	15.6	1.0	0.3	2.8
	30~99인	0.0	23.8	38.1	38.1	0.0	0.0	3.1
	100~299인	0.0	25.0	75.0	0.0	0.0	0.0	2.8
	300인 이상	0.0	50.0	50.0	0.0	0.0	0.0	2.5

(3) 사업체 매출 전망

- 사업체 매출전망에 대해서는 5.3%가 매우 부정적, 30.5%가 부정적으로 전망하여 전체 사업체 중 35.8%가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0.3%는 매우 긍정적, 23.0%는 긍정으로 응답해 전체 사업체 중 23.3%는 사업체 매출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사업체 매출에 대한 전망의 5점 척도 평균은 2.9로 조사되어, 산림산업의 사업체들은 매출전망에 대해 보통 혹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모든 산업에서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목재생산업(매우 부정적 2.5%, 부정적 40.0%)과 목재펠프종이제조업(8.0%, 30.8%) 사업체의 부정적인 전망이 높게 나타남
 - 사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35.8%)는 산림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41.9%) 및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53.2%)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사업체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23.3%)는 산림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18.2%) 및 국내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8.1%)보다 높게 나타남
- 5점 척도의 평균값은 국내경기가 2.6점, 산림산업전망이 2.8점, 그리고 사업체 매출 전망이 2.9점임

<표 III-11> 사업체 매출 전망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체		5.3	30.5	40.1	23.0	0.3	0.8	2.9
산업 분류	산림사업법인	1.1	27.0	53.9	18.0	0.0	0.0	2.9
	목재생산업	2.5	40.0	45.0	12.5	0.0	0.0	2.7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8.0	30.8	33.3	27.4	0.0	0.5	2.8
	영림단	4.3	26.1	47.8	17.4	0.0	4.3	3.1
	산림복지전문업	4.8	28.6	28.6	28.6	4.8	4.8	3.3
사업장 소재지	서울	12.5	62.5	12.5	12.5	0.0	0.0	2.3
	부산	0.0	37.5	37.5	25.0	0.0	0.0	2.9
	대구	0.0	42.9	28.6	28.6	0.0	0.0	2.9
	광주	0.0	50.0	33.3	16.7	0.0	0.0	2.7
	인천	0.0	30.8	38.5	30.8	0.0	0.0	3.0

	울산	100.0	0.0	0.0	0.0	0.0	0.0	1.0
	세종	0.0	0.0	0.0	100.0	0.0	0.0	4.0
	경기	6.3	34.2	41.4	17.1	0.0	0.9	2.8
	강원	13.6	31.8	31.8	22.7	0.0	0.0	2.6
	충북	5.7	34.3	28.6	31.4	0.0	0.0	2.9
	충남	5.3	31.6	42.1	21.1	0.0	0.0	2.8
	전북	4.3	13.0	60.9	21.7	0.0	0.0	3.0
	전남	0.0	36.0	44.0	20.0	0.0	0.0	2.8
	경북	2.4	22.0	43.9	26.8	2.4	2.4	3.2
	경남	5.4	21.6	40.5	32.4	0.0	0.0	3.0
	제주	0.0	0.0	100.0	0.0	0.0	0.0	3.0
조직 형태	개인회사	11.5	34.5	33.6	18.6	0.0	1.8	2.7
	회사법인	2.6	27.7	44.6	25.1	0.0	0.0	2.9
	기타법인	3.7	37.0	29.6	25.9	3.7	0.0	2.9
경영 형태	일반사업체	5.4	31.0	40.0	23.0	0.0	0.6	2.8
	용역(도급업체)	10.0	50.0	20.0	10.0	0.0	10.0	3.0
	기타	0.0	20.0	40.0	20.0	20.0	0.0	3.4
사업 체 형태	단독사업체	6.1	31.3	38.3	23.3	0.3	0.6	2.8
	본사, 본점	0.0	21.4	57.1	21.4	0.0	0.0	3.0
	지사(점), 공장	0.0	20.0	66.7	13.3	0.0	0.0	2.9
	기타	0.0	66.7	0.0	33.3	0.0	0.0	2.7
기업 규모	4인 이하	13.3	35.6	17.8	31.1	0.0	2.2	2.8
	5~29인	4.7	31.6	43.5	19.3	0.3	0.7	2.8
	30~99인	0.0	14.3	28.6	57.1	0.0	0.0	3.4
	100~299인	0.0	0.0	75.0	25.0	0.0	0.0	3.3
	300인 이상	0.0	0.0	100.0	0.0	0.0	0.0	3.0

다. 근로자 현황

(1)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

□ 근로자 수에 대한 조사에 응한 36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자 수의 평균은 16.3명으로 조사됨

- 상용근로자가 13.3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수는 3.0명, 기타는 0.0명임
 -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를 의미하며,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을 포함한 개념임
 - 임시·일용 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함
 - 기타근로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

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그 외 종사자를 의미하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이 포함됨

- 직종별로 보면, 사무 관리직이 3.2명, 연구개발직이 0.2명, 영업판매직이 0.5명, 생산기능직이 6.8명, 단순생산직이 5.0명, 기타가 0.7명으로 생산직 중심으로 인력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별로 보면 산림사업법인 16.8명, 목재생산업이 16.0명, 목재펠트종이 제조업이 17.4명, 영림단 9.6명, 산림복지전문업 9.8명 등으로 조사됨

-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상용근로자보다 임시 및 일용근로자수가 많음
 -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35.4%와 33.7%임
- 반면 목재펠트종이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96.0%임
 - 산림사업법인과 목재생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은 각각 61.9%와 72.5%임

□ 산업별 직종별로 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기능직과 단순생산직 등 생산직의 비중이 70% 내외로 높게 조사됨

- 영림단의 경우 전체 인원의 97.5%가 생산직으로 조사됨
- 산림복지전문업은 사무 관리직 비중과 기타 직종의 비중이 각각 47.8%와 30.6%로 다른 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숲 해설, 숲 체험 등 산림복지전문업의 특성 상 연구개발, 영업판매, 생산기능직, 단순생산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 외 직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설문조사 시 위의 직종이 분명히 아닌 경우 응답이 사무 관리직과 기타직종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임
- 한편 산림사업 법인은 연구개발직의 비중이 2.4%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목재펠트종이 제조업은 0.6%, 영림단은 0.6% 이며, 그 외 산업에서는 연구개발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표 Ⅲ-12> 직종별 고용형태별 평균 근로자 수

(단위: 명)

		관측수	현원			
			상용	임시/일용	기타	계
전체	사무관리직	363	3.0	0.2	0.0	3.2
	연구개발직		0.1	0.1	0.0	0.2
	영업판매직		0.5	0.0	0.0	0.5
	생산기능직		5.3	1.5	0.0	6.8
	단순생산직		4.0	1.0	0.0	5.0
	기타		0.5	0.3	0.0	0.7
	합계		13.3	3.0	0.0	16.3
산림산업 법인	사무관리직	88	2.0	0.1	0.0	2.0
	연구개발직		0.1	0.3	0.0	0.4
	영업판매직		0.1	0.0	0.0	0.1
	생산기능직		6.5	4.0	0.0	10.5
	단순생산직		0.0	1.5	0.0	1.5
	기타		1.8	0.6	0.0	2.3
	합계		10.4	6.5	0.0	16.8
목재생산업	사무관리직	39	4.4	0.0	0.0	4.4
	연구개발직		0.0	0.0	0.0	0.0
	영업판매직		0.7	0.0	0.0	0.7
	생산기능직		4.3	1.3	0.0	5.6
	단순생산직		2.3	3.0	0.0	5.3
	기타		0.0	0.0	0.0	0.0
	합계		11.6	4.3	0.0	16.0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	사무관리직	200	3.6	0.0	0.0	3.6
	연구개발직		0.1	0.0	0.0	0.1
	영업판매직		0.7	0.0	0.0	0.7
	생산기능직		5.5	0.1	0.0	5.6
	단순생산직		6.8	0.6	0.0	7.3
	기타		0.0	0.0	0.0	0.0
	합계		16.7	0.7	0.0	17.4
영림단	사무관리직	17	0.1	0.1	0.0	0.2
	연구개발직		0.0	0.1	0.0	0.1
	영업판매직		0.0	0.0	0.0	0.0
	생산기능직		3.2	6.1	0.0	9.3
	단순생산직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합계		3.4	6.2	0.0	9.6
산림복지 전문업	사무관리직	19	1.4	3.2	0.0	4.7
	연구개발직		0.0	0.0	0.0	0.0
	영업판매직		0.1	0.0	0.0	0.1
	생산기능직		1.2	0.8	0.0	2.1
	단순생산직		0.0	0.0	0.0	0.0
	기타		0.6	2.4	0.1	3.0
	합계		3.3	6.5	0.1	9.8

<표 III-13> 직종별 고용형태별 근로자의 비중

(단위: %)

		관측수	현원			
			상용	임시/일용	기타	계
전체	사무관리직	363	18.4	1.2	0.0	19.6
	연구개발직		0.6	0.6	0.0	1.2
	영업판매직		3.1	0.0	0.0	3.1
	생산기능직		32.5	9.2	0.0	41.7
	단순생산직		24.5	6.1	0.0	30.7
	기타		3.1	1.8	0.0	4.3
	합계		81.6	18.4	0.0	100.0
산림산업 법인	사무관리직	88	11.9	0.6	0.0	11.9
	연구개발직		0.6	1.8	0.0	2.4
	영업판매직		0.6	0.0	0.0	0.6
	생산기능직		38.7	23.8	0.0	62.5
	단순생산직		0.0	8.9	0.0	8.9
	기타		10.7	3.6	0.0	13.7
	합계		61.9	38.7	0.0	100.0
목재생산업	사무관리직	39	27.5	0.0	0.0	27.5
	연구개발직		0.0	0.0	0.0	0.0
	영업판매직		4.4	0.0	0.0	4.4
	생산기능직		26.9	8.1	0.0	35.0
	단순생산직		14.4	18.8	0.0	33.1
	기타		0.0	0.0	0.0	0.0
	합계		72.5	26.9	0.0	100.0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	사무관리직	200	20.7	0.0	0.0	20.7
	연구개발직		0.6	0.0	0.0	0.6
	영업판매직		4.0	0.0	0.0	4.0
	생산기능직		31.6	0.6	0.0	32.2
	단순생산직		39.1	3.4	0.0	42.0
	기타		0.0	0.0	0.0	0.0
	합계		96.0	4.0	0.0	100.0
영림단	사무관리직	17	1.0	1.0	0.0	2.1
	연구개발직		0.0	1.0	0.0	1.0
	영업판매직		0.0	0.0	0.0	0.0
	생산기능직		33.3	63.5	0.0	96.9
	단순생산직		0.0	0.0	0.0	0.0
	기타		0.0	0.0	0.0	0.0
	합계		35.4	64.6	0.0	100.0
산림복지 전문업	사무관리직	19	14.3	32.7	0.0	48.0
	연구개발직		0.0	0.0	0.0	0.0
	영업판매직		1.0	0.0	0.0	1.0
	생산기능직		12.2	8.2	0.0	21.4
	단순생산직		0.0	0.0	0.0	0.0
	기타		6.1	24.5	1.0	30.6
	합계		33.7	66.3	1.0	100.0

□ 한편 산림산업의 사업체별 상용근로자 비중 81.6%는 ‘사업체 노동실태조사’에 조사된 전 산업 상용근로자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산업별 종사자 중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제외한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전 산업 82.8%보다는 조금 낮지만, 산림산업과 규모가 비슷한 5~29인 사업체의 80.2%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임

-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이유는 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진 조사가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영업자 등이 대부분 빠져있기 때문임

- 사업대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농업 임업 및 어업(80.1%), 건설업(52.1%), 숙박 및 음식점업(52.1%), 교육서비스업(7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9.3%) 등이 산림산업보다 낮게 조사됨

- 5~29인 규모의 비교해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80.2%), 건설업(65.5%), 숙박 및 음식점업(56.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80.4%), 교육서비스업(79.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57.1%) 등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산림산업보다 낮게 조사됨

<표 III-14> 산업별 규모별 종사자수(종사자지위별, 2016년 기준)

(단위: 천명, %)

	산업분류별	총 종사자 수	자영 업자	무급 가족 및 기타	상용 (A)	임시 및 일용 (B)	(단위: 천명, %)	
							A/ (A+B)	B/ (A+B)
전 규 모	전체	17,363	1,219	1,158	12,415	2,570	82.8	17.2
	A. 농업,임업및어업(01~03)	36	0	1	28	7	80.1	19.9
	B. 광업(05~08)	14	0	0	13	1	95.6	4.4
	C. 제조업(10~33)	3,862	169	61	3,398	233	93.6	6.4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67	0	0	65	1	98.3	1.7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79	2	1	72	5	94.0	6.0
	F. 건설업(41~42)	1,342	36	47	656	603	52.1	47.9
	G. 도매및소매업(45~47)	2,425	304	218	1,574	329	82.7	17.3
	H. 운수업(49~52)	767	15	97	599	56	91.4	8.6
	I. 숙박및음식점업(55~56)	1,612	332	123	602	554	52.1	47.9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517	7	10	466	35	93.0	7.0
	K. 금융및보험업(64~66)	723	2	268	435	18	95.9	4.1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475	32	44	361	38	90.4	9.6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964	39	9	865	52	94.3	5.7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1,084	12	31	878	164	84.3	15.7
	P. 교육서비스업(85)	851	65	105	522	159	76.6	23.4

5 ~ 29 인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1,570	106	37	1,295	131	90.8	9.2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283	35	42	122	84	59.3	40.7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691	64	65	465	98	82.6	17.4
	전체	6,287	343	393	4,592	959	82.7	17.3
	A. 농업,임업및어업(01~03)	18	0	0	14	3	80.2	19.8
	B. 광업(05~08)	7	0	0	6	0	94.6	5.4
	C. 제조업(10~33)	1,334	70	26	1,124	114	90.8	9.2
	D.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35~36)	6	0	0	5	0	97.0	3.0
	E.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39	1	0	36	2	94.6	5.4
	F. 건설업(41~42)	548	12	10	345	181	65.5	34.5
	G. 도매및소매업(45~47)	1,003	53	91	720	139	83.8	16.2
	H. 운수업(49~52)	199	6	26	141	27	84.0	16.0
	I. 숙박및음식점업(55~56)	705	78	36	334	257	56.5	43.5
	J.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147	2	3	130	12	91.7	8.3
	K. 금융및보험업(64~66)	302	1	80	214	8	96.6	3.4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229	4	17	193	15	92.6	7.4
	M.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307	13	3	271	21	92.8	7.2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151	4	9	111	27	80.4	19.6
	P. 교육서비스업(85)	278	19	47	168	44	79.2	20.8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647	59	14	533	41	92.9	7.1
R.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90	7	7	43	33	57.1	42.9	
S.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279	16	25	204	34	85.8	14.2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2) 근속년수

- 근속년수 별 인력비중을 살펴보면 전체로 보면 1년 미만의 비중이 25.93%로 가장 높았으나, 상용근로자의 경우는 근속년수가 2~5년인 근로자의 비중이 26.78%로 가장 높았음
 -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78.31%가 근속년수 1년 미만이었음
- 산업별로 보면 목재펄프종이제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속년수가 길어 근속년수 2년 이상인 근로자의 비중이 58.64%(2~5년 25.11%, 5~10년 20.46%, 10년 이상 13.07%)로 높았음
- 단, 상용근로자 만을 놓고 볼 때는 목재생산업과 산림사업법인의 근속년수 2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66.13%와 62.79%로 높았음
 - 목재펄프종이제조업 상용근로자 중 근속년수 2년 이상 근로자 비중은 60.2%임
- 한편 영림단은 전체 근로자 중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비중이 60.74%로 목재펄프종

이제조업보다도 높았는데, 이는 상용근로자 중 2년 이상 근속 근로자 비중(52.83%)이 높아서라기보다는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중 장기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63.77%)이 높기 때문임

- 영림단은 전체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다음 임시 및 일용근로자 관련 항목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임

□ 산림복지전문업은 2년 이상 근속자의 비중이 14.68%로 가장 낮았으며, 상용근로자의 동 비중도 36.51%로 낮았음

<표 III-15> 근속년수 별 인력 비중

(단위: %)

		1년 미만	1~2년	2~5년	5~10년	10년 이상
전체	전체	25.93	21.62	22.96	17.76	11.72
	상용	14.56	24.50	26.78	20.73	13.42
	임시 및 일용	78.31	8.35	5.35	4.08	3.90
	기타	100.00	0.00	0.00	0.00	0.00
산림사업법인	전체	33.12	22.08	23.16	13.32	8.31
	상용	9.26	27.95	31.64	19.18	11.97
	임시 및 일용	87.34	8.75	3.91	0.00	0.00
	기타	-	-	-	-	-
목재생산업	전체	37.67	14.50	17.67	18.00	12.17
	상용	13.69	20.19	24.59	24.83	16.71
	임시 및 일용	98.82	0.00	0.00	0.59	0.59
	기타	-	-	-	-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전체	18.01	23.35	25.11	20.46	13.07
	상용	16.29	23.52	25.84	20.78	13.58
	임시 및 일용	57.34	19.58	8.39	13.29	1.40
	기타	100.00	0.00	0.00	0.00	0.00
영림단	전체	26.70	12.57	14.66	18.85	27.23
	상용	15.09	32.08	5.66	22.64	24.53
	임시 및 일용	31.16	5.07	18.12	17.39	28.26
	기타	-	-	-	-	-
산림복지전문업	전체	68.93	16.38	6.21	7.34	1.13
	상용	31.75	31.75	15.87	19.05	1.59
	임시 및 일용	89.38	7.96	0.88	0.88	0.88
	기타	100.00	0.00	0.00	0.00	0.00

(3) 임시 및 일용근로자 고용

- 조사 대상 374개 사업체 중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84개 업체로 조사됨
 - 산업별로 보면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임시 및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체는 188개 업체 중 20개 업체만 임시 및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임시 및 일용직을 고용하는 이유로는 ‘재정 여건 상 상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의 비중이 75.0%로 가장 높았음
 - 그 외 ‘회사 사업의 특성 상 인력을 상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10.7%였다.

<표 III-16> 임시 일용직 고용 이유

	관측수		상시인력유지 필요성이 없어서	재정여건 상의 이유	근로자가 원해서	무응답
	근로자 수 보고	임시 일용 직 고용				
전체	351	84	10.7	75.0	1.2	13.1
산림사업법인	85	21	4.8	90.5	0.0	4.8
목재생산업	37	8	12.5	62.5	12.5	12.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88	20	10.0	65.0	0.0	25.0
영림단	20	18	16.7	72.2	0.0	11.1
산림복지전문업	21	17	11.8	76.4	0	11.8

(4) 신규 채용 및 퇴직

- 지난 1년 간 신규 채용이 있었던 기업은 240개 업체이고, 퇴직이 있었던 기업은 221개 임
- 전체 표본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채용인원은 4.0명이고 퇴직인원은 3.3명으로 조사됨
 - 대체적으로 볼 때 퇴직이 이루어진 업체에서 볼 때 부족인원을 채용하는 것으로 분

석할 수 있음

- 이에 대해서는 뒤에 주요 채용 이유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함

- 산업별로 보면 산림사업법인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산림사업법인과 목재생산업의 평균퇴직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7> 신규채용 및 퇴직인원

	채용인원	퇴직인원
전체	4.0	3.3
산림사업법인	5.6	5.5
목재생산업	4.2	3.9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3.2	2.6
영림단	4.4	1.3
산림복지전문업	5.2	2.2

- 부족인원 및 채용계획인원에 대한 질문에서 부족인원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18개 업체 임.
 - 1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10개 업체, 2명과 3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 각각 3개 업체, 4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1개 업체, 16명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음
 - 채용계획과 관련하여서는 신규 및 경력무관 채용한다는 업체가 9개 업체로, 이 중 1명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6개 업체이고 2명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1개 업체, 그리고 3명을 채용하겠다는 업체가 2개 업체임
 - 경력직을 채용하겠다는 업체는 5개 업체로 이중 3개 업체가 1명을, 2개 업체가 2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응답함
- 직종별 신규채용계획을 살펴보면 전체 기업의 평균 부족인원은 0.47명, 신규채용계획인원은 0.23명으로 조사됨
 - 경기, 산림산업, 사업체 매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인해, 부족인원을 충원하는 데에도 다소 소극적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신규채용 계획인원은 경력직 0.07명, 신규 혹은 경력무관이 0.16명으로 조사됨

□ 산업별로 보면,

- 산림사업법인은 부족인원 0.16명에 신규채용계획인원 0.15명으로 조사됨
- 목재생산업은 부족인원 0.59명에 신규채용 계획인원 0.31명으로 조사됨
- 목재펠트종이제조업은 부족인원 0.44명에 신규채용계획인원 0.16명으로 조사됨
- 영림단은 부족인원 1.12명에 신규채용 계획인원 1.12명으로 나타남
 - 영림단의 부족인원과 채용예정계획인원 모두 전원 생산기능직이며, 채용계획인원 1.12명 중 0.94명을 경력으로 채용하려고 하여, 다른 산업과 차별성이 있음.
- 산림복지전문업은 부족인원 1.48명, 신규채용인원 0.42명으로 나타남

<표 Ⅲ-18> 직종별 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계획

(단위: 명)

	관측수	부족인원	신규채용			
		계	신규 혹은 경력무관	경력	합계	
전체	사무관리직	363	0.12	0.04	0.02	0.06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0.09	0.01	0.04	0.05
	단순생산직		0.22	0.09	0.00	0.09
	기타		0.04	0.02	0.01	0.03
	합계		0.47	0.16	0.07	0.23
산림산업 법인	사무관리직	88	0.07	0.03	0.03	0.06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0.00	0.00	0.00	0.00
	단순생산직		0.00	0.00	0.00	0.00
	기타		0.09	0.09	0.00	0.09
	합계		0.16	0.12	0.03	0.15
목재생산업	사무관리직	39	0.15	0.00	0.05	0.05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0.00	0.00	0.00	0.00
	단순생산직		0.44	0.26	0.00	0.26
	기타		0.00	0.00	0.00	0.00
	합계		0.59	0.26	0.05	0.31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사무관리직	200	0.05	0.04	0.00	0.04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0.07	0.00	0.00	0.00
	단순생산직		0.32	0.12	0.00	0.12
	기타		0.00	0.00	0.00	0.00
	합계		0.44	0.16	0.00	0.16
영림단	사무관리직	17	0.00	0.00	0.00	0.00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1.12	0.18	0.94	1.12
	단순생산직		0.00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0.00
	합계		1.12	0.18	0.94	1.12
산림복지 전문업	사무관리직	18	1.21	0.21	0.10	0.31
	연구개발직		0.00	0.00	0.00	0.00
	영업판매직		0.00	0.00	0.00	0.00
	생산기능직		0.00	0.00	0.00	0.00
	단순생산직		0.00	0.00	0.00	0.00
	기타		0.27	0.00	0.10	0.10
	합계		1.48	0.21	0.21	0.42

- 한편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다는 답변이 57.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년이 29.8%, 청년이 17.2%로 선호도가 높았음
- 산업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영림단의 경우 중년과 장년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목재생산업과 목재펄프종이제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남

<표 Ⅲ-19> 채용시 주요 고려 사항: 연령별

(단위: %)

	청년	중년	장년	고령자	연령무관	무응답
전체	17.2	29.8	9.9	1.6	57.1	0.0
산림사업법인	11.2	19.1	1.1	1.1	68.5	0.0
목재생산업	27.5	32.5	5.0	0.0	47.5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8.9	30.3	10.4	0.5	59.2	0.0
영림단	13.6	50.0	36.4	9.1	27.3	0.0
산림복지전문업	9.5	43.1	23.8	9.5	38.1	0.0

주: 복수응답 결과를 연령별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 한편 채용과 관련된 주요 특성 중에서는 직무능력(77.9%), 자격증(36.4%), 인성태도

(35.0%)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학력(1.6%), 외국어능력이나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기초지식(0.5%)는 특별히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직무능력에 대한 고려가 연령별 고려사항에서 청년보다 중년층이 선호되는 이유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한편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은 관련 자격증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목재생산업과 목재펠프종이제조업은 자격증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인성 및 태도에 대한 고려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내 적응, 중도 퇴직 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현상 발생 등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III-20> 채용 시 주요 고려 사항: 특성별

(단위: %)

	학력	직무능력	자격증	인성 태도	기초지식	기타	무응답
전체	1.6	77.9	36.4	35.0	0.5	0.3	0.0
산림사업법인	0.0	68.5	82.0	13.5	0.0	1.1	0.0
목재생산업	2.6	92.3	17.9	51.3	0.0	0.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5	84.0	13.0	36.5	0.5	0.0	0.0
영림단	4.5	59.1	63.6	45.5	0.0	0.0	0.0
산림복지전문업	4.8	52.4	71.7	71.4	4.8	0.0	0.0

주: 복수응답 결과를 연령별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 인력 채용을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는 부족인원 충원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1순위 76.0%, 2순위 25.6%, 1, 2순위 종합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즉, 거의 모든 기업이 부족인원 충원을 위해 인력채용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매출증대 기대가 1, 2순위 종합 66.2% 높게 나타남
 - 신규 사업 확장, 정부지원 기대 등의 이유로 신규인원 충원을 계획하는 사업체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는 신규인원 채용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을 경우, 부족인원을 충원하는 정도의 채용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줌

- 향후 국내경제, 산림산업, 사업체 매출 등에 대한 전망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 때 추가적인 인력채용 계획이 나오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
- 또한 고용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이 산림산업 분야 고용을 증대시키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 한편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신규사업 확장, 정부지원 기대 등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계획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Ⅲ-21> 인력채용을 계획한 이유

(단위: %)

		관측수	매출증대 기대	신규사업 확장	부족인원 충원	정부지원 기대	기타
전체	1순위	367	20.2	2.7	76.0	0.8	0.3
	2순위	270	62.6	6.7	25.6	4.8	0.4
	1,2순위 종합	367	66.2	7.6	94.8	4.4	0.5
산림사업법인	1순위	89	6.7	2.2	91.0	0.0	0.0
	2순위	39	69.2	7.7	15.4	7.7	0.0
	1,2순위 종합	89	37.1	5.6	97.8	3.4	0.0
목재생산업	1순위	39	20.5	0.0	79.5	0.0	0.0
	2순위	32	59.4	12.5	25.0	3.1	0.0
	1,2순위 종합	39	69.2	10.3	100.0	2.6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순위	201	25.4	0.0	74.1	0.0	0.5
	2순위	170	65.9	2.9	29.4	1.8	0.0
	1,2순위 종합	201	81.1	2.5	99.0	1.5	0.5
영림단	1순위	21	28.6	14.3	57.1	0.0	0.0
	2순위	15	53.3	6.7	20.0	13.3	6.7
	1,2순위 종합	21	66.7	19.0	71.4	9.5	4.8
산림복지전문 업	1순위	17	17.7	29.5	35.3	17.6	0.0
	2순위	14	21.4	35.8	14.3	28.6	0.0
	1,2순위 종합	17	35.3	58.8	47.1	41.2	0.0

- 인력채용 경로로는 지인의 소개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사업체의 비중이 1,2순위 합산 기준 68.5%로 가장 높았음
 - 특히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등에 속한 사업체의 90% 이상이 지인소개로 인력을 채용한다고 응답함
 - 그 외 공공취업알선기관 53.4%, 대중매체 28.6%, 민간취업알선기관 21.6% 등의 순서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Ⅲ-22> 주요 채용 경로

(단위: %)

		관측수	공공 취업 알선 기관	민간 취업 알선 기관	대중 매체	학교 또는 학원 추천	지인 소개	구인 구직 행사	기타
전체	1순위	371	35.6	8.6	11.3	4.3	35.3	0.3	4.6
	2순위	358	18.4	13.4	17.9	12.3	34.4	0.8	2.8
	1,2순위 종합	371	53.4	21.6	28.6	16.2	68.5	1.1	7.3
산림사업법인	1순위	89	24.7	2.2	1.1	5.6	66.3	0.0	0.0
	2순위	89	32.6	3.4	10.1	22.5	25.8	0.0	5.6
	1,2순위 종합	89	57.3	5.6	11.2	28.1	92.1	0.0	5.6
목재생산업	1순위	39	43.6	12.8	5.1	5.1	17.9	0.0	15.4
	2순위	39	20.5	15.4	2.6	7.7	51.3	2.6	0.0
	1,2순위 종합	39	64.1	28.2	7.7	12.8	69.2	2.6	15.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순위	201	42.8	11.4	17.4	2.5	21.4	0.5	4.0
	2순위	198	11.6	18.7	22.7	8.1	36.4	0.5	2.0
	1,2순위 종합	201	54.2	29.9	39.8	10.4	57.2	1.0	6.0
영림단	1순위	22	9.1	0.0	0.0	0.0	90.9	0.0	0.0
	2순위	15	20.0	6.7	53.3	13.3	6.7	0.0	0.0
	1,2순위 종합	22	22.7	4.5	36.4	9.1	95.5	0.0	0.0
산림복지전문 업	1순위	20	25.0	10.0	20.0	20.0	10.0	0.0	15.0
	2순위	17	17.7	5.9	5.9	17.7	41.2	5.9	5.9
	1,2순위 종합	20	40.0	15.0	25.0	35.0	45.0	5.0	20.0

- 인력 채용 및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에 대해 3순위까지 질문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인건비 상승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6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낮은 임금 수준(43.4%), 인력의 잦은 이직(47.8%), 낮은 인력수준(31.8%) 등도 사업

체의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남

- 그 외에도 인력정보 부족(25.7%), 중소기업 기피현상(25.4%), 회사위치(20.2%) 등도 인력 채용 및 활용에 있어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음
- 한편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모집 및 관리비용 증가가 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1.2%로 높았음

<표 Ⅲ-23> 인력채용 및 활용의 어려운 점

(단위: %)

	관측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전체	1순위	362	45.3	14.4	15.7	9.1	5.0	6.6	0.6	2.2	0.3	0.3	0.0	0.6
	2순위	347	10.7	9.2	21.0	25.6	14.7	11.2	0.9	4.9	1.2	0.3	0.0	0.3
	3순위	300	13.3	10.3	9.0	17.0	8.0	9.7	7.0	16.0	4.3	2.7	1.3	1.3
	1-3순위종합	362	66.6	31.8	43.4	47.8	25.7	25.4	7.2	20.2	5.0	2.8	1.1	1.9
산림사업 법인	1순위	89	50.6	10.1	15.7	12.4	10.1	0.0	0.0	1.1	0.0	0.0	0.0	0.0
	2순위	88	18.2	6.8	27.3	29.5	6.8	5.7	0.0	5.7	0.0	0.0	0.0	0.0
	3순위	68	17.6	7.4	11.8	32.4	4.4	5.9	0.0	20.6	0.0	0.0	0.0	0.0
	1-3순위종합	89	82.0	22.5	51.7	66.3	20.2	10.1	0.0	22.5	0.0	0.0	0.0	0.0
목재 생산업	1순위	35	77.1	8.6	11.4	2.9	0.0	0.0	0.0	0.0	0.0	0.0	0.0	0.0
	2순위	33	0.0	9.1	15.2	42.4	18.2	9.1	0.0	6.1	0.0	0.0	0.0	0.0
	3순위	25	0.0	8.0	4.0	28.0	12.0	16.0	16.0	12.0	0.0	0.0	4.0	0.0
	1-3순위종합	35	77.1	22.9	28.6	62.9	25.7	20.0	11.4	14.3	0.0	0.0	2.9	0.0
목재펠프 종이 제조업	1순위	198	38.9	17.7	15.7	8.6	4.0	11.6	0.0	2.5	0.0	0.5	0.0	0.5
	2순위	189	9.5	9.5	19.0	21.2	19.6	15.9	1.6	3.7	0.0	0.0	0.0	0.0
	3순위	174	14.9	13.2	9.2	9.8	8.0	12.1	8.0	16.7	5.7	0.6	0.6	1.1
	1-3순위종합	198	61.1	38.4	41.9	37.4	29.8	37.4	8.6	20.7	5.1	1.0	0.5	1.5
영림단	1순위	22	45.5	18.2	9.1	13.6	4.5	4.5	4.5	0.0	0.0	0.0	0.0	0.0
	2순위	21	4.8	14.3	9.5	42.9	0.0	0.0	0.0	14.3	4.8	4.8	0.0	4.8
	3순위	19	5.3	5.3	5.3	21.1	10.5	0.0	10.5	10.5	0.0	15.8	5.3	10.5
	1-3순위종합	22	54.5	36.4	22.7	72.7	13.6	4.5	13.6	22.7	4.5	18.2	4.5	13.6
산림복지 전문업	1순위	18	27.8	5.6	33.3	5.6	0.0	0.0	5.6	11.1	5.6	0.0	0.0	5.6
	2순위	16	12.5	12.5	37.5	0.0	12.5	6.3	0.0	0.0	18.8	0.0	0.0	0.0
	3순위	14	7.2	0.0	7.2	7.2	14.3	0.0	7.2	0.0	21.5	28.6	7.2	0.0
	1-3순위종합	18	44.5	16.6	72.2	11.1	22.2	5.6	11.1	11.1	38.9	22.2	5.6	5.6

주: ①인건비 상승, ②낮은 인력 수준, ③낮은 임금 수준, ④인력의 잦은 이직, ⑤인력 정보 부족, ⑥중소기업 기피현상, ⑦해당인력 타 지역 유출, ⑧회사위치(입지여건), ⑨모집 및 관리비용 증가, ⑩재교육/훈련비 부담, ⑪ 앞선기관/단체 부재, ⑫재교육/훈련비 부담, ⑬ 기타

라. 임금 및 근로복지

(1) 평균임금

- 산림산업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직종별로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사무관리직: 신입 상용근로자 167.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 206.4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179.2만원
 - 연구개발직: 신입 상용근로자 225.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 275.0만원
 - 영업판매직: 신입 상용근로자 199.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 266.8만원
 - 생산기능직: 신입 상용근로자 184.0만원, 상용근로자 평균 234.6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239.4만원
 - 단순생산직: 신입 상용근로자 170.2만원, 상용근로자 평균 211.8만원, 임시일용직 근로자 200.9만원 등임

- 분석결과 사무관리직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이 임시 및 일용직보다 높으나, 생산기능직과 단순생산직의 경우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직의 임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비교해 보면 사무관리직의 경우 목재생산업과 목재펄프종이제조업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생산기능직의 경우 영림단의 임금수준이 높게 나타남
 - 근로자 조사에 따르면 영림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 직장 내에서의 근속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게 평가되는 것으로 보임

<표 Ⅲ-24> 평균임금

(단위: 만원)

		상용 신입	상용 평균	임시 일용
사무관리직	전체	167.0	206.4	179.2
	산림사업법인	159.1	179.2	170.0
	목재생산업	172.4	214.1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70.3	219.9	-
	영림단	150.0	160.0	220.0
	산림복지전문업	157.0	162.6	171.3
연구개발직	전체	225.0	275.0	-

	산림사업법인	-	-	-
	목재생산업	-	-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25.0	275.0	-
	영림단	-	-	-
	산림복지전문업	-	-	-
영업판매직	전체	199.0	266.8	-
	산림사업법인	200.0	250.0	-
	목재생산업	180.0	225.0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02.5	275.6	-
	영림단	-	-	-
	산림복지전문업	-	-	-
생산기능직	전체	184.0	234.6	239.4
	산림사업법인	177.6	210.9	230.0
	목재생산업	182.1	235.7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86.6	247.5	225.0
	영림단	266.7	280.0	246.0
	산림복지전문업	153.5	158.5	-
단순생산직	전체	170.2	211.8	200.9
	산림사업법인	-	-	278.5
	목재생산업	170.0	207.5	183.3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70.2	212.2	144.4
	영림단	-	-	-
	산림복지전문업	-	-	-

-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평균임금은 257.8만원, 정규직은 294.9만원 비정규직은 147.3만원으로 조사됨
- 산림산업의 80%이상이 속해 있는 5~29인 규모의 전산업 평균임금은 246.3만원, 정규직은 274.3만원, 비정규직은 157.6만원임
 - 연구개발직, 산림사업법인과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의 영업판매직,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과 영림단의 생산기능직 등 일부를 제외할 경우 산림산업의 평균임금수준은 전산업 평균 및 5~29인 규모 전산업 평균 임금 수준보다도 다소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표 III-25> 규모별 전 산업 평균임금(2017년)

(단위: 천원)

고용형태	규모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근로자	전체	2,578	2,949	1,473
	5~29인	2,463	2,743	1,576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산업별로 보면, 산림산업의 평균임금 수준은 숙박 및 음식점업(132.4만원), 부동산 및 임대업(218.5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183.2만원), 협회 및 ̑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186.8만원)보다는 높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4.5만원), 농업, 임업 및 어업(231.7만원), 도매 및 소매업(239.1만원),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업 등과 평균임금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됨

<표 Ⅲ-26> 산업별 평균임금(2017년)

(단위: 천원)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578	2,949	1,473
A. 농업, 임업및어업(01~03)	2,317	2,736	1,610
B. 광업(05~08)	3,361	3,448	2,264
C. 제조업(10~33)	2,895	3,026	1,815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35~36)	4,348	4,583	2,301
E.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37~39)	2,888	3,029	1,891
F. 건설업(41~42)	2,505	2,970	1,992
G. 도매및소매업(45~47)	2,391	2,730	1,114
H. 운수업(49~52)	2,686	2,844	1,808
I. 숙박및음식점업(55~56)	1,324	1,987	870
J. 출판, 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58~63)	3,409	3,680	1,584
K. 금융및보험업(64~66)	3,928	4,114	2,665
L. 부동산업및임대업(68~69)	2,185	2,725	1,617
M.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70~73)	3,534	3,645	2,226
N.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74~75)	2,345	2,554	1,745
P. 교육서비스업(85)	2,775	3,706	1,544
Q.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86~87)	2,245	2,515	1,296
R.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90~91)	1,832	2,662	1,123
S.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94~96)	1,868	2,271	98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가입은 대체로 95% 이상의 사업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남
 - 단, 영림단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82.6%로 타 산업에 비해 낮았음
 - 한편 목재생산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률이 낮았음
 -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다른 산업은 거의 100% 가입이 되어 있으나, 목재생산업은 92.5% 가입되어 있었음
 - 심층인터뷰결과에 따르면 이는 목재생산업 종사자 중 고령자가 많아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음
 - 이는 고령 목재생산업 종사자의 경우 산재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며, 산재 발생 시 산재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함

<표 Ⅲ-27> 4대보험 가입여부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	95.2	95.5	98.4	98.7
산림사업법인	100.0	100.0	100.0	100.0
목재생산업	90.0	90.0	92.5	92.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5.5	95.5	98.5	99.0
영림단	82.6	82.6	100.0	100.0
산림복지전문업	95.2	100.0	100.0	100.0

(3) 사업장 복지혜택

- 사업장 복지혜택은 퇴직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등은 70%이상 사업체에 도입되었으나, 기숙사, 통근차량, 교통비지원, 운동시설 및 휴게실, 출산휴가 등은 절반 이상의 사업체에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영림단의 경우 통근차량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체가 56.5%로 50%를 넘었으나, 다른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체의 비중은 50% 미만으로 나타남
 - 산림복지전문업도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사업체가 75%인 것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복지혜택이 50% 미만 사업체에서만 도입된 것으로 나타남

-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업무 특성 및 재정여건 상 임시 및 일용직 채용 비중이 높고, 복지혜택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28> 사업장 복지 혜택

(단위: %)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출산 휴가	운동 시설 휴게실 카페테 리아 등	기숙사	통근 차량 교통비 지원	기타 지원
전체	86.1	62.8	77.8	75.7	47.1	42.5	34.8	41.7	81.3
산림사업법인	89.9	52.8	56.2	56.2	32.6	47.2	10.1	57.3	88.8
목재생산업	90.0	82.5	80.0	82.5	52.5	55.0	22.5	60.0	77.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6.0	71.1	96.0	90.5	61.2	46.8	54.2	33.8	87.6
영림단	26.1	34.8	43.5	8.7	0.0	0.0	13.0	56.5	52.2
산림복지전문업	33.3	19.0	28.6	76.2	14.3	4.8	0.0	0.0	28.6

(4) 노사관계

- 한편 취업규칙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업체는 전체의 65.0%에 불과하고 노동조합 결성 사업체(2.9%),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체(4.0%) 등의 비중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취업규칙 신고 사업체의 비중이 95.5%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29> 취업규칙신고 등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

	취업규칙 신고여부	노동조합 여부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전체	65.0	2.9	4.0
산림사업법인	95.5	1.1	1.1
목재생산업	65.0	10.0	2.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59.7	2.5	6.0
영림단	21.7	4.3	4.3
산림복지전문업	33.3	0.0	0.0

마. 교육훈련

(1) 교육훈련 필요성

-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72.2%가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 보면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95.2%의 사업체에서 교육훈련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해당 업종이 인력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단순생산직보다는 생산기능직이 선호되고 있는 바 이것 역시 교육훈련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2) 교육훈련 실시 여부

- 교육은 자체 교육을 하는 사업체가 57.5%, 외부위탁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체가 25.4%,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17.0%로 나타남
 - 교육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자체교육보다 외부위탁교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III-30> 교육훈련 필요성 및 교육실시 여부

(단위: %)

	교육필요성	교육실시 여부		
		자체 교육	외부 위탁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체	72.2	57.5	25.4	17.0
산림사업법인	79.8	64.0	21.3	14.6
목재생산업	60.0	47.6	21.4	31.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6.7	61.9	22.0	16.1
영림단	91.3	33.3	55.6	11.1
산림복지전문업	95.2	37.9	45.5	16.6

(3) 교육훈련 실시하는데 어려움

-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30.5%)과 교육효과의 불확실성(27.5%)을 지적한 사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교육예산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업체의 비중이 각각 43.5%와 76.2%로 타 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Ⅲ-31> 교육훈련 실시의 어려움

(단위: %)

	직원들의 교육에 대한 무관심	교육 효과성 불확실	교육 예산 부족	교육 커리큘럼 의 부재	교육전문 가 선별 어려움	어려움 없음	기타
전체	30.5	27.5	19.8	9.4	5.9	4.8	2.1
산림사업법인	50.6	25.8	4.5	5.6	9.0	4.5	0.0
목재생산업	22.5	32.5	15.0	12.5	10.0	7.5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7.9	29.4	18.9	11.9	4.5	4.0	3.5
영림단	17.4	21.7	43.5	4.3	4.3	4.3	4.3
산림복지전문업	0.0	14.3	76.2	0.0	0.0	9.5	0.0

바. 정부 정책

(1)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

-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추가고용 인건비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등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채용활동 지원 등에 대해서는 중립 혹은 불필요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2%나 되었으나,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5.6%와 30.5%로 적지 않았음
 - 외국인 근로자 활용 여부에 따라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Ⅲ-32>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전체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3	13.4	8.8	67.6	8.3	1.6	3.8
	4대 보험료지원	0.5	9.6	6.4	73.0	9.1	1.3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3	18.4	16.6	55.3	5.3	4.0	3.5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3.5	20.9	48.4	3.7	3.5	100.0	3.4
	직업훈련비지원	14.7	12.3	62.8	7.8	2.4	100.0	3.7
	채용활동지원	17.4	13.9	59.1	5.9	3.7	100.0	3.6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8	41.2	17.9	30.5	5.6	4.0	2.9

□ 산업별 조사결과 역시 전체 산림산업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단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산업별로 다소 달랐는데, 목재펠트종이제조업과 영림단의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3>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산업별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무응답	5점척도 평균
산림산업 법인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8.0	11.2	66.3	4.5	0.0	3.6
	4대보험료지원	0.0	12.4	9.0	75.3	3.4	0.0	3.7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30.3	24.7	42.7	2.2	0.0	3.2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4.8	28.1	33.7	3.4	0.0	0.0	3.0
	직업훈련비지원	15.7	15.7	64.0	4.5	0.0	0.0	3.6
	채용활동지원	20.2	19.1	57.3	3.4	0.0	0.0	3.4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0	37.1	28.1	27.0	7.9	0.0	3.1
목재생산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0.0	2.5	75.0	10.0	2.5	3.9
	4대보험료지원	0.0	10.0	2.5	72.5	12.5	2.5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20.0	15.0	60.0	2.5	2.5	3.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0.0	15.0	52.5	0.0	2.5	0.0	3.2
	직업훈련비지원	17.5	7.5	65.0	7.5	2.5	0.0	3.6
	채용활동지원	27.5	15.0	50.0	5.0	2.5	0.0	3.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2.5	52.5	20.0	15.0	7.5	2.5	2.7
목재, 펄프,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4.4	9.5	74.1	1.5	0.5	3.8

종이제 조업	4대보험료지원	0.0	9.5	7.0	79.1	4.0	0.5	3.9
	설비투자 융자 및 지원	0.0	14.9	13.9	66.2	4.5	0.5	3.7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20.9	21.4	56.2	1.0	0.5	0.0	3.5
	직업훈련비지원	14.9	13.9	66.7	4.0	0.5	0.0	3.8
	채용활동지원	15.9	11.4	66.7	5.5	0.5	0.0	3.8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5	44.8	14.9	36.8	2.5	0.5	2.8
영림단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4.3	0.0	13.0	34.8	30.4	17.4	3.8
	4대보험료지원	4.3	0.0	4.3	47.8	30.4	13.0	4.0
	설비투자 융자 및 지원	0.0	4.3	13.0	26.1	17.4	39.1	4.2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4.3	8.7	30.4	17.4	39.1	0.0	4.3
	직업훈련비지원	4.3	0.0	47.8	26.1	21.7	0.0	4.3
	채용활동지원	4.3	13.0	34.8	13.0	34.8	0.0	3.8
산림복 지 전문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4.8	0.0	33.3	62.1	0.0	4.7
	4대보험료지원	4.8	9.5	0.0	33.3	52.6	0.0	4.5
	설비투자 융자 및 지원	4.8	14.3	14.3	28.6	19.3	19.0	3.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9.5	9.5	47.6	24.0	9.5	0.0	4.0
	직업훈련비지원	14.3	4.8	33.3	38.3	9.5	0.0	4.0
	채용활동지원	14.3	14.3	38.1	14.5	19.0	0.0	3.6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4.8	38.3	14.3	9.5	0.0	33.3	3.2	

(2)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유통구조 개선, 휴양림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산림분야전문가 육성, 공공일자리 조성, 산림분야 창업지원 등의 순서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선호가 높았음
 - 반면 클러스터 조성은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체의 비중이 낮았음

<표 Ⅲ-34>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무응답	5점척 도 평균
전체	클러스터 조성	0.5	35.8	20.1	37.2	2.4	4.0	3.2
	공공 일자리 조성	0.3	26.2	15.2	49.7	5.6	2.9	3.4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0.3	17.6	17.1	56.7	5.3	2.9	3.6
	유통구조 개선	0.5	14.7	13.9	59.4	7.8	3.7	3.8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0.3	24.3	16.8	52.9	2.9	2.7	3.4
	산림분야 창업지원	0.5	24.3	23.8	44.4	3.5	3.5	3.2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0.5	14.4	15.5	54.8	13.1	1.6	3.8

□ 산업별 조사결과 역시 전체 산림산업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표 Ⅲ-35>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산업별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무응답	5점척 도 평균
산림산업 법인	클러스터 조성	1.1	37.1	19.1	41.6	1.1	0.0	3.2
	공공 일자리 조성	1.1	24.7	12.4	58.4	3.4	0.0	3.4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1.1	16.9	7.9	69.7	4.5	0.0	3.7
	유통구조 개선	1.1	29.2	16.9	50.6	2.2	0.0	3.3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1.1	15.7	12.4	69.7	1.1	0.0	3.6
	산림분야 창업지원	1.1	28.1	27.0	41.6	2.2	0.0	3.1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1.1	19.1	19.1	57.3	3.4	0.0	3.4
목재생산 업	클러스터 조성	0.0	27.5	32.5	37.5	2.5	0.0	3.2
	공공 일자리 조성	0.0	17.5	10.0	70.0	2.5	0.0	3.6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0.0	5.0	10.0	82.5	2.5	0.0	3.9
	유통구조 개선	0.0	0.0	5.0	87.5	7.5	0.0	4.0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0.0	17.5	20.0	60.0	2.5	0.0	3.5
	산림분야 창업지원	0.0	27.5	30.0	40.0	2.5	0.0	3.2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0.0	5.0	5.0	75.0	15.0	0.0	4.1
목재, 펄프, 종이제조 업	클러스터 조성	0.5	43.3	17.4	37.3	0.5	1.0	3.0
	공공 일자리 조성	0.0	33.8	18.4	43.8	3.0	1.0	3.2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0.0	23.9	21.9	50.7	2.5	1.0	3.4
	유통구조 개선	0.0	14.4	12.4	61.2	10.9	1.0	3.9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0.0	34.8	19.9	44.3	0.0	1.0	3.0
	산림분야 창업지원	0.5	27.4	24.9	45.8	0.5	1.0	3.2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0.0	17.4	18.4	50.2	12.9	1.0	3.9
영림단	클러스터 조성	0.0	4.3	17.4	30.4	17.4	30.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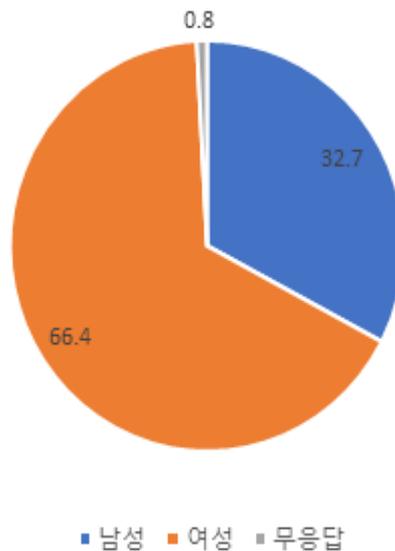
	공공 일자리 조성	0.0	4.3	13.0	43.5	8.7	30.4	3.8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0.0	4.3	30.4	34.8	4.3	26.1	3.5
	유통구조 개선	4.3	0.0	26.1	39.1	4.3	26.1	3.5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0.0	0.0	0.0	56.5	26.1	17.4	4.4
	산림분야 창업지원	0.0	0.0	8.7	47.8	8.7	34.8	4.0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4.3	0.0	4.3	47.8	30.4	13.0	4.1
	클러스터 조성	0.0	0.0	33.3	16.7	16.7	33.3	3.8
산림복지 전문업	공공 일자리 조성	0.0	0.0	0.0	50.0	50.0	0.0	4.5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0.0	0.0	0.0	50.0	33.3	16.7	4.4
	유통구조 개선	0.0	0.0	16.7	50.0	16.7	16.7	4.0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0.0	0.0	0.0	66.7	33.3	0.0	4.3
	산림분야 창업지원	0.0	0.0	0.0	50.0	33.3	16.7	4.4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0.0	0.0	0.0	66.7	33.3	0.0	4.3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0.0	0.0	0.0	66.7	33.3	0.0	4.3

3. 근로자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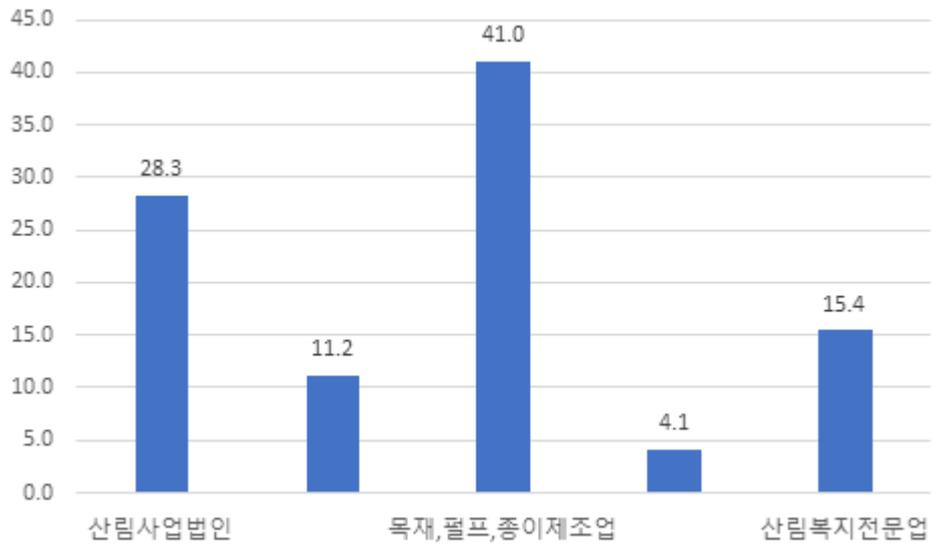
가. 응답자 일반 현황

□ 근로자 조사의 응답자 중 남성의 비중은 32.7%, 여성의 비중은 66.4%임

<그림 Ⅲ-7>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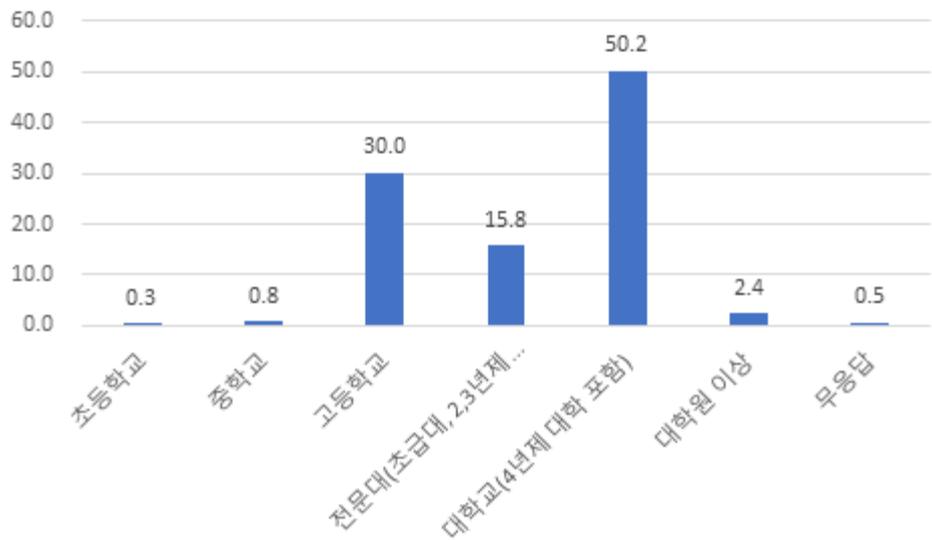


<그림 III-8> 응답자 업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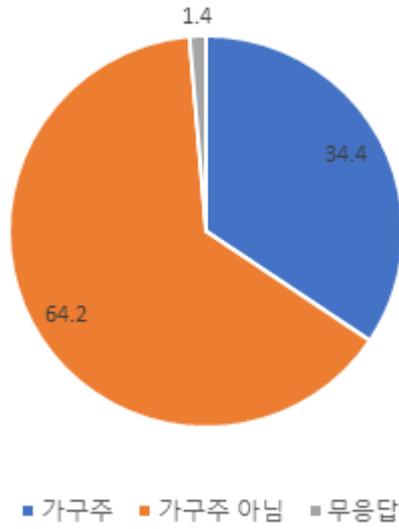
-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30.0%로 그 뒤를 이음

<그림 III-9> 응답자 최종 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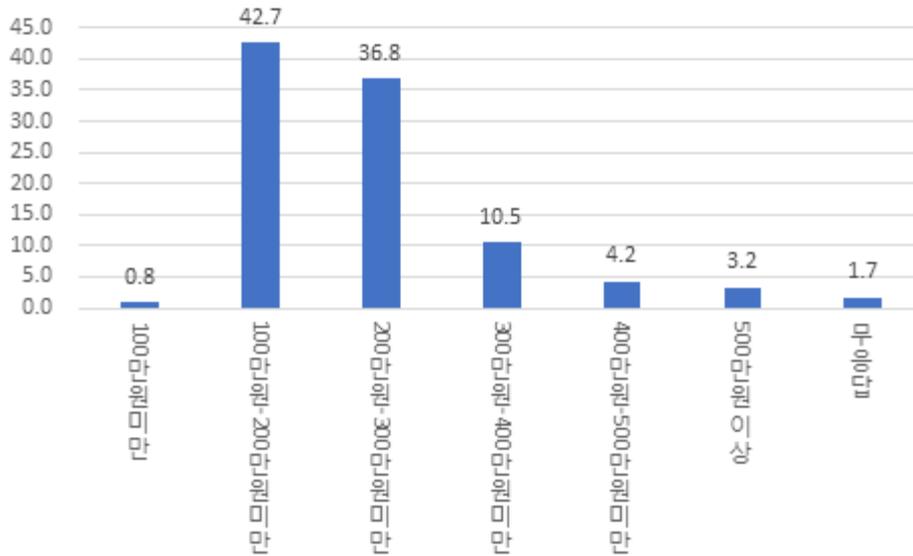
- 응답자 중 가구주는 전체의 34.4%이고, 가구주가 아닌 경우는 64.2%임

<그림 Ⅲ-10> 가구주 여부



□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200만원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이 36.8%로 그 뒤를 이었음

<그림 Ⅲ-11> 월평균 소득



나. 경제상태 및 일자리 전망

(1) 경제상태 전망

- 응답자를 대상으로 국내 경제 및 산림산업,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 전망에 대해 질의함
- 질의 결과 국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매우 부정적 1.2%, 부정적 56.4% 등 57.6%로 높게 나타남
 - 긍정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 1.4%, 긍정적 7.9% 등 9.3%에 불과함
 - 성별로 보며 남성이 여성보다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의 비중이 모두 높았음
- 산림산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 2.0%, 부정적 30.5% 등 32.5%가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긍정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 2.2%, 긍정적 17.2% 등 19.4%가 긍정적으로 전망하였음
 - 긍정적인 전망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전망이 많았으나, 국내경제 보다는 산림산업에 대한 전망이 덜 부정적이었음
 - 산림산업에 대해서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산림산업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남성의 비중은 35.6%로 여성의 31.3%보다 높았음.
 - 반면 긍정적인 전망은 남성 18.9%와 여성 19.4%로 거의 유사하였음(긍정적인 전망은 매우 긍정적과 긍정적을 더한 것임)
-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체의 매출전망에 대해서는 매우부정적 2.6%, 부정적 28.5%로 총 3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 반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매우 긍정적 0.9%, 긍정적 15.9% 등 16.8%가 증정적으로 전망하였음
 - 사업체의 매출전망과 산림산업에 대한 전망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사업체 매출전망과 관련하여 남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적고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 모든 면에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음

□ 5점척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 국내전망은 2.5점, 산림산업 전망은 2.9점, 사업체 전망은 2.8점을 받아, 세 항목 모두 보통이하의 점수를 받음
 -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현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함
- 단, 업종별로 보면 산림복지전문업 종사 근로자들은 국내경기에 3.2점, 산림산업에 3.0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에 3.2점을 주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보면 보통 혹은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표 Ⅲ-36> 국내 경제, 산림산업, 회사 매출 전망

(단위: %)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5점척도 평균	
국내경제 전망	성 별	전체	1.2	56.4	33.1	7.9	1.4	2.5
		남성	1.6	58.2	28.8	9.8	1.6	2.5
		여성	1.0	55.9	35.2	6.6	1.3	2.5
		무응답	0.0	25.0	25.0	50.0	0.0	3.3
	업 종	산림사업법인	0.6	59.9	34.7	4.8	0.0	2.4
		목재생산업	0.0	71.2	19.7	9.1	0.0	2.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0.4	66.1	31.0	2.5	0.0	2.4
		영림단	6.3	31.3	43.8	12.5	6.3	2.8
	산림복지전문업	4.5	16.9	43.8	27.0	7.9	3.2	
산림산업 전망	성 별	전체	2.0	30.5	48.0	17.2	2.2	2.9
		남성	2.1	33.5	45.5	15.2	3.7	2.8
		여성	2.0	29.3	49.2	17.9	1.5	2.9
		무응답	0.0	0.0	50.0	50.0	0.0	3.5
	업 종	산림사업법인	0.0	19.2	67.7	13.2	0.0	2.9
		목재생산업	0.0	40.9	45.5	13.6	0.0	2.7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3.3	45.9	43.4	7.4	0.0	2.5
		영림단	9.1	22.7	31.8	31.8	4.5	3.0
	산림복지전문업	2.2	4.4	30.0	50.0	13.3	3.7	
회사 매출전망	성 별	전체	2.6	28.5	52.1	15.9	0.9	2.8
		남성	4.4	31.7	43.7	19.1	1.1	2.8
		여성	1.8	27.4	55.8	14.3	0.8	2.8
		무응답	0.0	0.0	75.0	25.0	0.0	3.25

업 종	산림사업법인	0.0	20.4	65.9	13.8	0.0	2.9
	목재생산업	0.0	37.9	47.0	15.2	0.0	2.8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4.5	36.8	45.0	13.6	0.0	2.7
	영림단	13.3	33.3	40.0	6.7	6.7	2.6
	산림복지전문업	2.3	13.6	51.1	28.4	4.5	3.2

(2) 일자리 전망

- 국내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크게 감소가 1.4%, 감소가 52.1%로 부정적인 전망이 53.5%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전망은 크게 전망 0.2%, 증가 28.6% 등 28.8%로 나타남
- 산림산업 일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감소 4.8%, 감소 38.7% 등 부정적인 견해가 43.5%로 나타났으며, 크게 증가 0.9%, 증가 21.3% 등 긍정적인 견해가 22.2%로 조사됨
 - 산림산업 일자리 전망은 국내 일자리 전망과 비교할 때 현상유지 견해가 많은 반면,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모두 적었음
- 사업체의 일자리 전망에 대해 크게 감소 4.9%, 감소 41.8% 등 부정적인 견해가 46.7%로 나타난 반면, 크게 증가 0.2%, 증가 18.7% 등 긍정적인 견해는 18.9%로 조사됨
 - 사업체의 일자리 전망은 산림산업 일자리 전망에 비해 다소 부정적임
 - 사업체 일자리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산림산업 일자리 전망에 비해 많은 반면, 사업체 일자리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산림산업 일자리 전망에 비해 적음
- 모든 경우 일자리 전망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남
 - 남성은 여성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의 비중이 높고 긍정적인 견해의 비중이 낮았음
- 5점 척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보면
 - 국내전망, 산림산업, 사업체 모두 2.7점으로 보통 이하의 점수를 받음
 - 근로자들이 평균적으로 향후 일자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함
 - 단, 업종별로 보면 산림복지전문업 종사 근로자들은 국내경기에 3.3점, 산림산업에 3.6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에 3.3점을 주어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음

<표 III-37> 일자리 전망

(단위: %)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5점척도 평균	
국내	성별	전체	1.4	52.1	17.8	28.6	0.2	2.7
		남성	2.2	57.8	14.1	25.9	0.0	2.6
		여성	1.0	49.4	19.2	30.2	0.3	2.8
		무응답	0.0	50.0	50.0	0.0	0.0	2.5
	업종	산림사업법인	0.0	51.5	18.0	30.5	0.0	2.8
		목재생산업	3.0	62.1	7.6	27.3	0.0	2.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7	59.5	19.8	19.0	0.0	2.6
		영림단	6.3	62.5	18.8	12.5	0.0	2.4
산림복지전문업	1.1	23.6	19.1	55.1	1.1	3.3		
산림산업	성별	전체	4.8	38.7	34.3	21.3	0.9	2.7
		남성	5.8	43.5	31.4	17.8	1.6	2.7
		여성	4.3	36.8	35.3	23.0	0.5	2.8
		무응답	0.0	0.0	75.0	25.0	0.0	3.3
	업종	산림사업법인	0.0	51.5	18.0	30.5	0.0	2.8
		목재생산업	3.0	62.1	7.6	27.3	0.0	2.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7	59.5	19.8	19.0	0.0	2.5
		영림단	6.3	62.5	18.8	12.5	0.0	2.5
산림복지전문업	1.1	23.6	19.1	55.1	1.1	3.6		
회사	성별	전체	3.5	38.7	39.0	18.7	0.2	2.7
		남성	4.9	41.8	36.4	16.3	0.5	2.7
		여성	2.8	37.3	39.9	19.9	0.0	2.8
		무응답	0.0	25.0	75.0	0.0	0.0	2.8
	업종	산림사업법인	0.0	33.5	49.1	17.4	0.0	2.8
		목재생산업	10.6	51.5	27.3	10.6	0.0	2.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7.4	48.3	33.1	10.7	.4	2.5
		영림단	13.0	39.1	30.4	17.4	0.0	2.3
산림복지전문업	0.0	12.5	15.9	67.0	4.5	3.3		

다. 고용형태

(1) 근속년수 및 총 경력

-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는 평균 54.6개월로 조사됨
 - 남성은 70.3개월, 여성은 47.3개월로 남성의 근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근속연수가 95.8개월로 가장 길었으며, 목재생산업이 87.4개월로 그 뒤를 이음
 -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17.1개월에 불과함

<표 III-38> 현 직장에서의 근속 개월 수

		관측수	경력 개월 수
전체		(590)	54.6
성별	남성	(193)	70.3
	여성	(392)	47.3
	무응답	(5)	15.8
업종	산림사업법인	(167)	42.4
	목재생산업	(66)	87.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42)	64.0
	영림단	(24)	95.8
	산림복지전문업	(91)	17.1

- 현 업종에서의 경력은 74.2개월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98.6개월로 여성의 62.5개월보다 길었음
 - 세부 업종 별로 보면 영림단은 현 업종에서의 경력 개월 수가 144.0월로 나타남

<표 III-39> 현 업종에서의 총 경력

		관측수	경력 개월 수
전체		(590)	74.2
성별	남성	(193)	98.6
	여성	(392)	62.5
	무응답	(5)	50.6
업종	산림사업법인	(167)	60.2
	목재생산업	(66)	89.2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42)	82.3
	영림단	(24)	144.0
	산림복지전문업	(91)	48.9

(2) 직종

- 응답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사무관리 및 행정이 78.0%로 가장 많았음
 - 연구개발직은 0.4%, 영업판매직은 1.2%, 생산기능직은 3.2%, 단순생산직은 12.6% 그리고 기타직종은 13.6%로 조사됨

□ 성별 비교

- 남성은 64.8%의 사무관리직에 이어 단순생산직의 비중이 32.7%로 높은 반면, 여성은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84.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숲해설사, 유아 숲 지도사 등 기타 직종이 15.0%로 높게 나타남
- 생산기능직 역시 남성의 경우 7.1%이나 여성은 1.3%에 불과함

□ 업종별 비교

- 업종별로 보면, 산림사업법인,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례로 영림단의 경우 조사에 응한 근로자의 100%가 단순생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순생산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8.3%가 화물차, 특수차 운전 등 생산기능직 업무를, 8.3%는 사무관리 및 행정 업무를, 그리고 4.2%는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40> 응답자의 직종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펠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1. 사무관리 및 행정	78.0	64.8	84.7	60.0	93.4	89.4	92.1	8.3	22.0	
2. 연구개발	0.3	0.5	0.3	0.0	0.0	0.0	0.0	4.2	1.1	
생명과학연구원	0.2	0.0	0.3	0.0	0.0	0.0	0.0	0.0	1.1	
생명과학시험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농림어업시험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 인쇄 목재 등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0.2	0.5	0.0	0.0	0.0	0.0	0.0	4.2	0.0	
3. 영업판매	1.2	2.6	0.5	0.0	0.0	3.0	1.2	0.0	2.2	
4. 생산기능직	3.2	7.3	1.3	0.0	0.6	1.5	6.2	8.3	0.0	
화물차, 특수차 운전원	0.7	2.1	0.0	0.0	0.6	0.0	0.4	8.3	0.0	
건축석공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건축목공	0.2	0.5	0.0	0.0	0.0	1.5	0.0	0.0	0.0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0.2	0.0	0.3	0.0	0.0	0.0	0.4	0.0	0.0	
농업용 및 기타 기계장비 설치 정비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광석, 석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기타식품 가공기계 조작원	0.8	0.5	1.0	0.0	0.0	0.0	2.1	0.0	0.0	
펠프종이 제조장치 조작원	0.2	0.5	0.0	0.0	0.0	0.0	0.4	0.0	0.0	
종이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0.3	1.0	0.0	0.0	0.0	0.0	0.8	0.0	0.0	
가구제조 수리원	0.3	1.0	0.0	0.0	0.0	0.0	0.8	0.0	0.0	
가구조립원	0.3	1.0	0.0	0.0	0.0	0.0	0.8	0.0	0.0	
목제품 제조원	0.2	0.5	0.0	0.0	0.0	0.0	0.4	0.0	0.0	
채소 특용작물 재배원	0.0	0.0	0.0	0.0	0.0	0.0	0.0	0.0	0.0	

5. 단순 생산직	12.5	32.6	2.6	20.0	23.4	7.6	0.4	100.0	5.5
조림산림경영인 및 벌목원	10.2	29.0	1.0	0.0	22.8	0.0	0.0	91.7	0.0
임산물 채취 및 기타임업종사원	1.2	1.6	0.8	20.0	0.6	0.0	0.0	4.2	5.5
농림어업단순종사원	1.2	2.1	0.8	0.0	0.0	7.6	0.4	4.2	0.0
6. 기타	13.4	9.8	15.1	20.0	0.0	0.0	0.8	0.0	84.6
숲해설사	8.5	7.3	8.9	20.0	0.0	0.0	0.0	0.0	54.9
유아숲지도사	2.9	1.0	3.8	0.0	0.0	0.0	0.0	0.0	18.7
숲체험	0.7	0.0	1.0	0.0	0.0	0.0	0.0	0.0	4.4
산림환경교육	0.7	0.0	1.0	0.0	0.0	0.0	0.0	0.0	4.4
산림복지전문	0.2	0.5	0.0	0.0	0.0	0.0	0.0	0.0	1.1
산림치유지도사	0.2	0.5	0.0	0.0	0.0	0.0	0.0	0.0	1.1
조경디자인	0.2	0.0	0.3	0.0	0.0	0.0	0.4	0.0	0.0
안전관리사	0.2	0.5	0.0	0.0	0.0	0.0	0.4	0.0	0.0

주: 복수응답 결과를 연령별 비중의 합이 100%를 초과함

(3) 고용형태

□ 응답자 중 상용근로자는 81.7%이고 임시근로자는 15.6%, 일용근로자는 2.2%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 남성은 상용근로자 비중이 79.8%이고 임시근로자 13.5%, 일용근로자 5.7%로 나타남
- 여성은 상용근로자 82.9%, 임시근로자 16.3%이고, 일용근로자는 0.5%에 불과함

○ 산업별로 보면,

- 산림사업법인(94.0%), 목재생산업(89.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98.8%)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으나, 영림단(41.7%),과 산림복지전문업(18.7%)은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낮음

<표 III-41> 응답자의 고용형태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기타 근로자
전체		81.7	15.6	2.2	0.5
성별	남성	79.8	13.5	5.7	1.0
	여성	82.9	16.3	0.5	0.3
	무응답	60.0	4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4.0	5.4	0.0	.6
	목재생산업	89.4	7.6	3.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8.8	1.2	0.0	0.0
	영림단	41.7	16.7	37.5	4.2
	산림복지전문업	18.7	78.0	2.2	1.1

(단위: %)

(3) 취업경로

□ 응답자의 취업경로를 보면 친척, 친구 등 지인 소개를 통해 취업한 경우가 52.5%를 차지함.

○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의 비중이 20.5%로 지인 소개 다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민간취업알선기관(6.6%), 대중매체(6.6%)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공개채용을 통한 취업은 2.9%에 불과하였음

□ 성별 비교

○ 남성의 경우 지인 소개에 의한 취업 비중이 67.4%로 여성의 45.4%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여성은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취업 비중이 24.2%로 남성의 13.0%에 비해 높았음

○ 그 외에도 여성은 민간취업알선기관,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취업 비중이 남성에게 비해 높았음

○ 남성은 공개채용에 의한 취업 비중이 4.7%로 여성의 2.0%에 비해 높았음

□ 업종별 비교

○ 모든 업종에서 친척, 친구 등 지인 소개에 의한 취업의 비중이 높음

- 특히 영리단의 경우 95.8%가 지인 소개에 의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됨

○ 산림복지 전문업은 해당업체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이 6.6%, 카페 공고를 통한 채용이 4.4%, 협동조합을 통한 채용이 4.4% 등으로 나타나 다른 업종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42> 응답자의 취업경로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펠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공공 취업알선기관	20.5	13.0	24.2	20.0	22.2	21.2	24.8	0.0	11.0
민간 취업알선기관	6.6	4.7	7.7	0.0	7.8	4.5	8.7	4.2	1.1
대충매체	6.6	2.1	8.9	0.0	1.8	6.1	10.7	0.0	6.6
학교 또는 학원 소개 및 추천	2.4	2.6	2.3	0.0	1.2	6.1	1.7	0.0	4.4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	52.5	67.4	45.4	40.0	65.3	42.4	44.2	95.8	47.3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	.5	1.0	.3	0.0	0.0	1.5	0.4	0.0	1.1
인터넷	3.1	2.6	3.3	0.0	0.0	3.0	6.6	0.0	0.0
공개채용	2.9	4.7	2.0	0.0	1.8	15.2	1.7	0.0	0.0
해당업체 홈페이지	1.2	.5	1.3	20.0	0.0	0.0	0.4	0.0	6.6
카페광고	.8	0.0	1.3	0.0	0.0	0.0	0.4	0.0	4.4
협동조합	.8	.5	1.0	0.0	0.0	0.0	0.0	0.0	5.5
산림청	.7	0.0	.8	20.0	0.0	0.0	0.0	0.0	4.4
위탁업체 추천	.3	0.0	.5	0.0	0.0	0.0	0.0	0.0	2.2
산림청등 공모사업	.3	.5	.3	0.0	0.0	0.0	0.4	0.0	1.1
단체추천	.2	.5	0.0	0.0	0.0	0.0	0.0	0.0	1.1
숲해설교육이수자	.2	0.0	.3	0.0	0.0	0.0	0.0	0.0	1.1
무응답	.3	0.0	.5	0.0	0.0	0.0	0.0	0.0	2.2

라. 근로시간 및 임금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응답대상자 중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중은 94.7%로 나타남

- 남성은 93.8%가 여성은 95.2%가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함
- 업종별로 보면 산림복지점은 100%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목재생산업(90.9%), 영림단(91.7%)의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43> 서면 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전체		94.7
성별	남성	93.8
	여성	95.2
	무응답	10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3.4
	목재생산업	90.9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5.0
	영림단	91.7
	산림복지전문업	100.0

(2) 근로시간

- 응답자 중 95.6%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평균 39.5시간으로 조사됨
 - 남성의 경우 여성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비중이 낮았으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조금 길었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경우 50%만이 근로시간이 결정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정 근로시간 역시 44.4시간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길게 나타남
 - 업종별로 볼 때 다른 업종의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은 97~98%로 비슷하였음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 등은 39~40시간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산림복지전문업은 37.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짧았음

<표 Ⅲ-44> 응답자의 소정 근로시간

		근로시간 결정		주당 소정 근로시간
		정해져 있음	정해져 있지 않음	
전체		95.6	4.4	39.5
성별	남성	90.7	9.3	40.3
	여성	98.0	2.0	39.1
	무응답	100.0	0.0	39.0
업종	산림사업법인	97.6	2.4	39.4
	목재생산업	98.5	1.5	40.2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7.1	2.9	39.7
	영림단	50.0	50.0	44.4
	산림복지전문업	97.8	2.2	37.9

□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근로일은 5.0일이며, 실제 일한 총 시간은 39.2시간으로 응답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이는 남성과 여성 간 차이가 거의 없었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실제근무일수가 4.8일로 다소 짧았으며, 실제 일한 총시간 역시 35.3시간으로 다소 짧았음.
 - 영림단의 경우 근로시간이 결정되어 있는 근로자의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평균 44.4시간이었는데, 응답자의 실제 근로 시간은 35.3시간으로 차이가 있었음
 - 이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함

<표 Ⅲ-45>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일 및 근로 시간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근무일 수	지난 1주일 동안 실제 일한 총 시간
		일	시간
전체		5.0	39.2
성별	남성	4.9	39.4
	여성	5.0	39.1
	무응답	5.0	39.0
업종	산림사업법인	4.9	38.0
	목재생산업	5.0	40.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5.0	40.2
	영림단	4.8	35.3
	산림복지전문업	5.0	38.7

- 주당 희망근로시간은 39.6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지난 1주일간 근로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주당 희망근로시간은 남성은 40.2시간으로 여성의 39.3 시간보다 조금 길었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경우 주당 희망근로시간이 43.7시간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길게 나타남

<표 III-46> 주당 희망 근로시간

		주당 희망 근로시간
전체		39.6
성별	남성	40.2
	여성	39.3
	무응답	39.0
업종	산림사업법인	38.8
	목재생산업	39.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40.0
	영림단	43.7
	산림복지전문업	38.6

(3) 초과 근로

- 초과 근로 시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근로자의 비중은 53.6%로 조사됨
 - 남성의 61.1%, 여성의 50.3%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초과 근로 시 초과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업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목재생산업의 81.8%, 목재 펄프 제조업의 68.6%가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만,
 -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35.3%,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27.5%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표 Ⅲ-47> 초과 근로수당 지급 여부

(단위: %)

		지급	미지급
전체		53.6	46.4
성별	남성	61.1	38.9
	여성	50.3	49.7
	무응답	20.0	80.0
업종	산림사업법인	35.3	64.7
	목재생산업	81.8	18.2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8.6	31.4
	영림단	50.0	50.0
	산림복지전문업	27.5	72.5

□ 초과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한 317명 중 88.3%는 초과근로 시간에 따라 지급된다고 응답한 반면 10.4%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음

○ 업종별로 보면

-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의 94.6%, 산림사업법인의 88.1%, 목재생산업과 영림단의 83.3%가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 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반면,
- 산림복지전문업은 60.0%만이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응답하였음

<표 Ⅲ-48> 초과 근로수당 지급 방식

(단위: %)

		초과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	초과근로시간 상관없이 일정 금액 지급	일정한 기준이 없다
전체		88.3	10.4	1.3
성별	남성	85.6	11.9	2.5
	여성	89.9	9.6	0.5
	무응답	10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88.1	11.9	0.0
	목재생산업	83.3	16.7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4.6	4.8	.6
	영림단	83.3	8.3	8.3
	산림복지전문업	60.0	32.0	8.0

□ 초과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대해 응답한 296명 중 88.1%는 통상시급보다 높은 수준에서 초과근로수당이 결정된다고 응답함

○ 통상시급의 101~125%가 지급되는 경우는 6.4%, 통상 시급의 125~150%가 지급되는

경우는 67.2%, 통상시급의 151%이상 지급되는 경우는 14.5%였음

- 업종별로 보면 산림복지전문업과 영림단의 경우 통상시급 대비 초과 근로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작았음
 - 목재생산업과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은 각각 75.9%와 77.4%가 통상시급의 125~150% 정도를 받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 영림단의 40.0%, 산림복지전문업의 66.7%는 통상시급 수준의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산림사업법인은 52.8%가 통상시급의 125~150%정도, 37.7%가 통상시급의 151%이상을 초과 근로수당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통상시급 대비 초과 근로수당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49> 초과 근로수당 산정 방식

(단위: %)

		통상시급 125~150 %	통상시급 151% 이상	통상시급 수준	통상시급 101~125%	잘모르겠 다	통상시 급보다 적게
전체		67.2	14.5	8.4	6.4	3.0	.3
성별	남성	59.6	14.7	11.9	8.3	5.5	0.0
	여성	72.0	14.5	5.9	5.4	1.6	.5
	무응답	0.0	0.0	100.0	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52.8	37.7	1.9	1.9	5.7	0.0
	목재생산업	75.9	14.8	3.7	5.6	0.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77.4	9.1	4.9	6.7	1.2	0.6
	영림단	10.0	0.0	40.0	40.0	10.0	0.0
	산림복지전문업	13.3	0.0	66.7	0.0	20.0	0.0

(4) 임금

- 임금 지급 주기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의 97.6%는 한 달에 한번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3.6%가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2.1%가 사업 종료 후 지급받는다고 응답함
 - 업종별로 보면 대부분이 한 달에 한번 씩 지급받고 있으나, 영림단은 한 달에 한 번 씩 지급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58.3%로 조사됨

- 영림단의 경우 29.2%는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받고 있으며, 12.5%는 사업 종료 후 지급받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50> 임금 지급 주기

(단위: %)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사업 종료후 지급	무응답	매일 지급된다
전체		97.6	1.2	0.7	0.3	0.2
성별	남성	93.3	3.6	2.1	0.5	0.5
	여성	99.7	0.0	0.0	0.3	0.0
	무응답	100.0	0.0	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8.2	0.0	0.6	1.2	0.0
	목재생산업	100.0	0.0	0.0	0.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9.6	0.0	0.0	0.0	0.4
	영림단	58.3	29.2	12.5	0.0	0.0
	산림복지전문업	100.0	0.0	0.0	0.0	0.0

□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의 79.2%가 월급제라고 응답하였으며, 14.4%는 연봉계약제, 4.9%는 일당제라고 응답함

○ 성별 비교

- 남성의 경우 월급제가 비중이 65.8%로 여성에 비해 낮은 반면, 연봉계약제(19.2%)와 일당제(11.9%)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남성의 경우 기본급 없는 실적제(1.6%), 도급제(1.0%)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도 조사됨
- 도급제는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의 결과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함
- 여성의 경우 월급제와 연봉계약제의 비중이 9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함

○ 업종별 비교

- 산림사업법인, 목재 생산업,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이 월급제이고, 일부 연봉계약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조사됨
- 반면 영림단은 일당제의 비중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월급제가 16.7%, 도급제가 8.2%로 조사됨

- 산림복지전문업은 월급제가 81.3%이고 일당제가 12.1%로 조사됨

□ 연평균 임금은 2,421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이 2,820만원으로 여성의 2,232만원보다 높은 수준임

○ 성별차이는 현 업종에서의 경력연수 및 현 직장에서의 근속년수가 평균적으로 남성이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 남성과 여성의 직종 차이 역시 임금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다만, 이상에서 언급한 변수를 고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은 2,912만원 목재 펄프 및 종이 제조업은 2,664만원, 산림사업법인인 2,306만원, 산림복지전문업 2,000만원, 그리고 영림단은 934만원 등으로 조사됨

- 조사된 근로자들 간 근속년수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결과를 실제 해당 산업 전체 근로자의 평균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음

- 다만, 한계에도 불구하고 영림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평균 임금 수준이 낮다고 말할 수 있음

<표 Ⅲ-51> 임금 지급 방식 및 연평균 임금

(단위: %, 만원)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펄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임금 지급 방식	월급	79.2	65.8	85.5	100.0	87.4	71.2	81.0	16.7	81.3
	연봉계약제	14.4	19.2	12.2	0.0	12.0	25.8	18.6	0.0	3.3
	일당제	4.9	11.9	1.5	0.0	0.0	0.0	0.0	75.0	12.1
	시간급제	0.5	0.0	0.8	0.0	0.0	0.0	0.4	0.0	2.2
	기본급 없이 실적제	0.5	1.6	0.0	0.0	0.0	3.0	0.0	0.0	1.1
	도급제	0.3	1.0	0.0	0.0	0.0	0.0	0.0	8.3	0.0
	기타	0.2	0.5	0.0	0.0	.6	0.0	0.0	0.0	0.0
연 평균 임금(만원)	2,420.6	2,819.9	2,232.3	1,985.7	2,305.8	2,912.3	2,663.9	934.3	1,999.8	

□ 성과급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전체의 17.1%에 불과함

○ 남성의 경우 24.4%가 성과급제를 적용받아, 여성(13.8%)에 비해 비중이 높았음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34.8%)와 산림사업법인(26.3%) 등의 성과급 적용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산림복지 전문업의 경우 성과급 적용 비중이 1.1%에 불과함

<표 Ⅲ-52> 성과급제도 사용 여부

(단위: %, 만원)

		아니다	그렇다	모른다
전체		80.0	17.1	2.9
성별	남성	72.0	24.4	3.6
	여성	83.7	13.8	2.6
	무응답	10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68.9	26.3	4.8
	목재생산업	60.6	34.8	4.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87.6	11.6	0.8
	영림단	66.7	20.8	12.5
	산림복지전문업	97.8	1.1	1.1

- 적용되는 성과급의 종류는 회사성과급제가 48.5%, 개인성과급제가 31.7%, 집단 성과급제가 15.8%로 나타남
 - 각 성과급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개인 성과급제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집단 성과급제 :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회사 성과급제 :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개인성과급제의 비중이 낮고 집단 성과급제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팀 혹은 부서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는 업무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되어 있음을 시사함
 - 목재 생산업,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은 회사성과급의 비중이 각각 52.2%와 64.3%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영림단의 경우 개인성과급제가 60.0%, 집단성과급제가 40.0%로 조사됨

<표 Ⅲ-53> 적용되는 성과급의 종류

(단위: %)

		관측수	회사성과급 제	개인성과급 제	집단성과급 제	무응답
전체		(101)	48.5	31.7	15.8	4.0
성별	남성	(47)	48.9	29.8	19.1	2.1
	여성	(54)	48.1	33.3	13.0	5.6
업종	산림사업법인	(44)	40.9	40.9	11.4	6.8
	목재생산업	(23)	52.2	21.7	26.1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8)	64.3	21.4	10.7	3.6
	영림단	(5)	0.0	60.0	40.0	0.0
	산림복지전문업	(1)	100.0	0.0	0.0	0.0

□ 희망임금수준은 241.3만원 수준으로 조사됨

- 남성은 295.0만원으로 여성의 215.9만원보다 희망 임금수준이 높았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이 318.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목재생산업 265.2만원,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 252.0만원 순이었음
 - 산림복지전문업의 희망 임금수준은 월 212.1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희망임금수준을 연 기준으로 환산하면 2,895만원으로 현재 임금수준 2,421만원과 약 475만원 차이가 있음

- 성별 비교
 - 남성의 희망 임금수준과 현재 임금 수준 간의 차이는 약 720만원으로, 여성(359만원)보다 차이가 약 2배 크게 나타남
- 업종별 비교
 - 희망 임금수준과 현재 임금 수준 간의 차이가 가장 큰 업종은 영림단으로 차이가 약 2,887만원에 달함
 - 산업복지전문업의 경우도 희망 임금수준과 현 임금 수준 간의 차이가 약 546만원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Ⅲ-54> 희망 임금 수준

(단위: 만원)

		현재 직장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적정 임금수준		현재 임금수준
		월기준	연기준	연기준
전체		241.3	2,895.3	2,420.6
성별	남성	295.0	3,540.2	2,819.9
	여성	215.9	2,591.3	2,232.3
	무응답	193.0	2,316.0	1,985.7
업종	산림사업법인	221.3	2,655.3	2,305.8
	목재생산업	265.2	3,182.9	2,912.3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52.0	3,023.5	2,663.9
	영림단	318.4	3,820.8	934.3
	산림복지전문업	212.1	2,545.6	1,999.8

마. 근로복지

(1) 4대보험

□ 4대보험 가입률은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국민연금 가입율은 94.9%이고, 건강보험은 98.3%, 고용보험 98.0%, 산재보험 97.1%로 조사됨
- 모든 경우 남성의 보험 가입률이 여성보다 낮았음
 - 남성이 경우 일용노동자 비중이 여성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은 국민연금 가입률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100%로 조사됨
 -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과 고용보험 가입률,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55> 4대보험 가입자 비중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체		94.9	98.3	98.0	97.1
성별	남성	90.2	95.9	95.9	95.3
	여성	97.4	99.5	99.0	98.0
	무응답	80.0	100.0	100.0	10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8.8	98.2	98.2	98.2
	목재생산업	98.5	98.5	98.5	98.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9.6	99.6	99.6	99.2
	영림단	79.2	83.3	100.0	100.0
	산림복지전문업	76.9	98.9	92.3	87.9

(2) 기타 복지혜택

- 기타 복지혜택 중 퇴직금 제도의 적용(81.0%), 통신비 및 식대(74.2%), 유급휴가(74.2%), 시간외 수당(68.0%) 등은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숙사, 운동시설 및 휴게실, 출산휴가, 통근차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과 산림복지 전문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복지혜택 수혜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Ⅲ-56> 직장에서의 복지 혜택 수혜 비중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 펄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퇴직금	81.0	75.1	84.2	60.0	92.2	98.5	98.8	25.0	15.4
상여금	58.3	53.4	61.0	40.0	55.7	83.3	74.4	20.8	12.1
시간외 수당	68.0	69.4	67.6	40.0	49.7	92.4	90.9	41.7	29.7
유급휴가	74.2	66.8	78.1	60.0	64.7	93.9	91.3	0.0	51.6
출산휴가	44.6	37.8	48.5	0.0	34.1	66.7	64.0	4.2	6.6
운동시설, 휴게실 카페테리아	35.9	33.7	37.2	20.0	39.5	48.5	45.9	0.0	3.3
기숙사	29.0	30.6	28.6	0.0	9.6	36.4	53.3	8.3	0.0
통근차량	46.1	47.7	45.9	0.0	60.5	72.7	44.6	62.5	0.0
통신비, 식대 등	74.2	74.1	75.0	20.0	93.4	84.8	85.5	50.0	7.7

(3) 노사관계

□ 산림산업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아주 낮은 수준임

-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가 97.1%였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는 0.3%에 불과함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1.2%에 달함
-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도 관측되는데, 노동조합 가입자 비중이 남성은 1.0%이나 여성은 0.0%임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비중이 89.4%로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조합 가입자의 비중이 9.1%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II-57> 노동조합 설립여부 및 가입자 비중

(단위: %)

	노동조합 없음	노동조합 있음			무응답	
		가입하였음	가입하지 않음	가입대상이 아님		
전체	97.1	0.3	1.2	1.0	0.3	
성별	남성	95.9	1.0	1.6	1.0	0.5
	여성	97.7	0.0	1.0	1.0	0.3
	무응답	100.0	0.0	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8.8	0.0	0.6	0.6	0.0
	목재생산업	89.4	9.1	1.5	0.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7.1	0.4	1.2	0.4	0.8
	영림단	95.8	0.0	4.2	0.0	0.0
	산림복지전문업	100.0	0.0	0.0	0.0	0.0

□ 회사에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1.6%로 높지 않음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이 3.4%, 영림단이 4.3%로 상대적으로 노사협의회 가입비중이 높았음

<표 III-58> 노사협의회 구성 여부

(단위: %)

		구성되어 있지 않음	구성되어 있음
사례수		98.4	1.6
성별	남성	95.7	4.3
	여성	99.7	0.3
	무응답	10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100.0	0.0
	목재생산업	96.6	3.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7.9	2.1
	영림단	95.7	4.3
	산림복지전문업	98.9	1.1

바. 교육훈련

- 응답자 중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67.3%로 높게 나타남
 - 남성의 71.0%, 여성의 65.3%가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산림복지 전문업(92.3%), 영림단(87.5%) 소속 근로자들이 교육훈련 필요성의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됨

<표 III-59> 교육훈련 필요성

(단위: %)

		있음	없음
전체		67.3	32.7
성별	남성	71.0	29.0
	여성	65.3	34.7
	무응답	80.0	20.0
업종	산림사업법인	59.3	40.7
	목재생산업	65.2	34.8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2.0	38.0
	영림단	87.5	12.5
	산림복지전문업	92.3	7.7

-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란 대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그 외 개인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일정정도 발견됨
 - 남성의 경우 개인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비중이 12.4%로 여성의

7.8%에 비해 높게 나타남

<표 III-60>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

(단위: %)

		전체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개인의 발전을 위해	업무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	승진을 위해	무응답
전체		(397)	88.9	9.3	1.0	0.5	2.0
성별	남성	(137)	82.5	12.4	2.9	1.5	2.2
	여성	(256)	92.2	7.8	0.0	0.0	2.0
	무응답	(4)	100.0	0.0	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9)	85.9	9.1	4.0	1.0	0.0
	목재생산업	(43)	86.0	7.0	4.7	0.0	2.3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50)	90.0	6.0	1.3	2.0	0.7
	영림단	(21)	81.0	28.6	0.0	0.0	0.0
	산림복지전문업	(84)	94.0	11.9	0.0	0.0	0.0

□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전문기술과 지식’이 41.3%,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초 기술과 지식이 35.5%, 업무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전문, 기술장비의 운용능력이 9.6% 등으로 나타남

<표 III-61>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펄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신, 전문기술, 지식	41.3	42.3	40.6	50.0	41.3	36.4	44.2	30.7	14.3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 기술, 지식	35.5	25.5	40.6	50.0	35.5	49.5	25.6	41.3	19.0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전문, 기술장비의 운용 능력	9.6	15.3	6.6	0.0	9.6	3.0	9.3	10.7	57.1
비일상적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6.0	6.6	5.9	0.0	6.0	7.1	4.7	8.7	0.0
업무 수행에서 상, 하 동료 직원과 협조 및 관리 능력	5.0	8.0	3.5	0.0	5.0	4.0	14.0	5.3	4.8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기기의 활용 능력	1.3	0.0	2.0	0.0	1.3	0.0	2.3	0.7	4.8
안전교육	1.0	2.2	0.4	0.0	1.0	0.0	0.0	2.7	0.0
심리안정교육	0.3	0.0	0.4	0.0	.3	0.0	0.0	0.0	0.0

- 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 훈련기간은 1주미만이 61.2%, 1~2주가 30.5%로 나타나 2주 미만의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개월 이상 훈련을 원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3.9%에 불과함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과 산림복지 전문업은 3~4주, 1~3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장기간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62> 훈련을 위해 필요한 최소 훈련기간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 업법인	목재생 산업	목재 펠프	영림단	산림복 지전문 업
1주 미만	61.2	56.9	63.7	50.0	60.6	76.7	74.0	14.3	42.9
1-2주	30.5	33.6	28.5	50.0	39.4	20.9	24.7	42.9	32.1
3-4주	4.3	5.8	3.5	0.0	0.0	0.0	0.7	33.3	10.7
1개월-3개월	3.3	2.2	3.9	0.0	0.0	2.3	0.0	4.8	13.1
4개월-6개월	0.3	0.7	0.0	0.0	0.0	0.0	0.7	0.0	0.0
6개월 이상	0.3	0.0	0.4	0.0	0.0	0.0	0.0	0.0	1.2
무응답	0.3	0.7	0.0	0.0	0.0	0.0	0.0	4.8	0.0

- 한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지적한 것은 '단순 반복 업무라 특별히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음
 - 즉 업무 특성 상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이상이었음
- 그러나 업무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응답의 비중도 29.9%나 나왔음
 - 교육훈련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업무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함
 - 앞서 사업체 조사에서 교육훈련 진행의 어려움 중 하나가 근로자들의 무관심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표 III-63>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전 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펠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관측수	(194)	(57)	(136)	(1)	(68)	(23)	(93)	(3)	(7)
단순 반복 업무라 특별히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62.9	57.9	64.7	100.0	57.4	87.0	63.4	66.7	28.6
업무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다	29.9	31.6	29.4	0.0	36.8	13.0	25.8	33.3	71.4
효과가 미비하다	3.1	3.5	2.9	0.0	0.0	0.0	6.5	0.0	0.0
업무와 맞지 않다.	1.5	1.8	1.5	0.0	2.9	0.0	1.1	0.0	0.0
이미 충분하다	0.5	0.0	0.7	0.0	0.0	0.0	1.1	0.0	0.0
직원들이 관심이 없다	0.5	1.8	0.0	0.0	0.0	0.0	1.1	0.0	0.0
시간이 없다	0.5	1.8	0.0	0.0	0.0	0.0	1.1	0.0	0.0
필요성을 못느낀다	0.5	0.0	0.7	0.0	1.5	0.0	0.0	0.0	0.0
무응답	0.5	1.8	0.0	0.0	1.5	0.0	0.0	0.0	0.0

- 한편 회사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는 전체의 84.9%로 조사되었으며, 남성은 89.1%, 여성은 83.4%로 교육훈련 경험이 있는 근로자 비중에 다소 차이가 있음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경우 95.8%가 교육훈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산림복지전문업의 약 73.6%만이 훈련을 경험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I-64> 회사에서 교육 훈련 경험 여부

(단위: %)

		예	아니오
전체		84.9	15.1
성별	남성	89.1	10.9
	여성	83.4	16.6
	무응답	40.0	60.0
업종	산림사업법인	84.4	15.6
	목재생산업	87.9	12.1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87.6	12.4
	영림단	95.8	4.2
	산림복지전문업	73.6	26.4

- 교육훈련 방식을 보면 자체 교육의 비중이 높고, 외부 위탁교육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 방식은 자체 교육의 비중이 61.0%이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42.8%로 뒤를 이음
 -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등 외부 위탁교육의 비중은 8.3% 수준이었으며,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참여는 0.6%에 불과함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13.0%)과 산림복지전문업(37.3%)는 상대적으로 자체 교육의 비중이 낮았음
 - 영림단은 정부 공공기관 위탁교육의 비중이 73.9%, 사설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8.7%, 대학 등 정규 교육기간 위탁교육이 4.3%로 조사됨
 - 산림복지 전문업은 부 공공기관 위탁교육의 비중이 68.7%, 사설 교육기관 위탁교육이 9.0% 등으로 조사됨

<표 III-65>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 방식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펠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관측 수	(505)	(174)	(329)	(2)	(142)	(60)	(213)	(23)	(67)
자체 교육	61.0	56.3	63.5	50.0	55.6	60.0	77.5	13.0	37.3
정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 등 외부위탁교육	42.8	43.7	42.2	50.0	40.1	56.7	29.1	73.9	68.7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등 외부 위탁교육	8.3	8.6	8.2	0.0	4.9	0.0	12.7	8.7	9.0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등 외부 위탁교육	0.6	1.1	0.3	0.0	0.0	0.0	0.9	4.3	0.0

-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대체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만족 3.0%, 만족 44.1% 등 47.1% 수준이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46.1%로 나타났으며, 교육훈련에 불만족한 경우는 6.8% 수준임
 - 교육훈련 만족도에 대한 5점척도 평균점수는 3.4점으로 보통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보통의 비중이 더 높아 교육훈련 만족도를 더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업종별로 보면 목재 생산업과 산림복지전문업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들 업종의 5점척도 평균은 각각 3.7점과 4.0점임

<표 III-66>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사례수		0.0	6.8	46.1	44.1	3.0	3.4
성별	남성	0.0	4.7	45.3	46.5	3.5	3.4
	여성	0.0	7.9	46.8	42.6	2.7	3.5
	무응답	0.0	0.0	0.0	100.0	0.0	3.4
업종	산림사업법인	0.0	11.3	53.5	35.2	0.0	3.2
	목재생산업	0.0	5.0	21.7	73.3	0.0	3.7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0.0	7.1	54.7	38.2	0.0	3.3
	영림단	0.0	0.0	45.5	54.5	0.0	3.5
	산림복지전문업	0.0	0.0	25.4	52.2	22.4	4.0

-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됨이 6.1%, 어느정도 도움이 됨이 50.7%로 전체 응답자의 56.8%가 긍정적으로 평가함
- 부정적인 평가는 전혀 도움이 안됨 1.4%, 별로 도움이 안됨 10.5% 등 11.9%임
 - 교육훈련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의 5점척도 평균값은 3.5점임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은 4.2점, 산림복지전문업은 4.3점으로 조사되어, 해당 업종 근로자들이 교육훈련의 업무 수행 도움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67> 회사에서 이루어진 교육 훈련의 업무수행 도움 정도

(단위: %)

		전혀 도움이 안 됨	별로 도움이 안 됨	보통	어느 정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5점척도 평균
전체		1.4	10.5	31.3	50.7	6.1	3.5
성별	남성	1.1	8.6	31.6	48.9	9.8	3.6
	여성	1.5	11.6	31.3	51.7	4.0	3.4
	무응답	0.0	0.0	0.0	50.0	50.0	4.5
업종	산림사업법인	2.1	14.8	40.8	41.5	0.7	3.2
	목재생산업	0.0	10.0	23.3	66.7	0.0	3.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9	11.7	37.6	48.8	0.0	3.3
	영림단	0.0	0.0	8.7	65.2	26.1	4.2
	산림복지전문업	0.0	1.5	6.0	56.7	35.8	4.3

사. 고용만족도

-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인 만족도에서는 매우만족 1.2%, 만족 51.5%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2.7% 수준으로 나타남
 - 보통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43.6%로 보통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만족도의 5점 척도 평균점수는 3.5점임

- 항목별로 보면 취업의 안정성, 하고 있는 일의 내용, 근로시간,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임금 또는 소득,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68>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전체 표본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1.0	15.9	49.0	33.8	0.3	3.2
2) 취업의 안정성	5.0	8.2	30.7	55.6	0.5	3.4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2	1.9	35.4	59.8	2.7	3.6
4) 근로환경	0.2	11.5	42.2	44.6	1.5	3.4
5) 근로시간	0.3	3.8	35.0	59.3	1.5	3.6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3	10.4	49.1	38.6	1.5	3.3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2	5.3	39.8	51.1	3.6	3.5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4	5.3	50.3	43.4	0.7	3.4
9) 복지후생	1.6	13.1	52.5	31.6	1.2	3.2
10) 전반적 만족도	0.2	3.6	43.6	51.5	1.2	3.5

- 업무 만족도와 관련하여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는 크지 않음

<표 III-69>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남성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1.6	16.3	48.9	33.2	0.0	3.1
2) 취업의 안정성	2.7	11.2	35.3	50.3	0.5	3.3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	3.2	34.9	59.8	2.1	3.6
4) 근로환경	0.0	13.2	40.2	44.4	2.1	3.4
5) 근로시간	0.0	6.9	36.2	54.8	2.1	3.5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5	9.6	48.4	39.4	2.1	3.3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	5.3	34.6	56.4	3.7	3.6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0	5.5	46.4	47.0	1.1	3.4
9) 복지후생	0.5	13.4	53.2	30.6	2.2	3.2
10) 전반적 만족도	0.0	5.2	42.0	51.3	1.6	3.5

<표 III-70>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여성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0.8	15.6	48.8	34.3	0.5	3.2
2) 취업의 안정성	5.6	6.9	28.4	58.6	0.5	3.4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3	1.3	35.5	60.1	2.8	3.6
4) 근로환경	0.3	10.7	43.0	45.0	1.0	3.4
5) 근로시간	0.5	2.3	34.4	61.5	1.3	3.6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3	10.7	49.5	38.3	1.3	3.3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3	5.4	42.3	48.5	3.6	3.5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5	5.2	52.2	41.5	0.5	3.4
9) 복지후생	2.1	12.9	52.1	32.2	0.8	3.2
10) 전반적 만족도	0.3	2.8	44.4	51.5	1.0	3.5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5점척도 평균 3.7)과 산림복지전문업(3.7점)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영림단(3.2점)과 산림사업법인(3.3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림사업법인은 만족도 조사 항목 중 취업의 안정성(3.6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3.5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개인의 발전가능성(3.1점), 복지후생(3.1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목재생산업은 임금 또는 소득의 만족도(3.3점)가 가장 낮은 반면, 취업의 안정성(3.8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3.8점), 근로시간(3.8점) 등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은 취업의 안정성(3.6점), 하고 있는 일의 내용(3.6점), 의사소

통 및 인간관계(3.6점), 근로시간(3.6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또는 소득(3.2점), 개인의 발전가능성(3.3점), 복지 후생(3.3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영림단은 임금또는 소득(2.7점), 취업의 안정성(2.8점), 복지후생(3.0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하고 있는 일의 내용(4.0점), 의사소통과 인간관계(3.8점) 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금 또는 소득(2.9점), 취업의 안정성(2.2점), 복지후생(2.8점) 등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Ⅲ-71>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산림사업법인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0.0	10.8	53.3	35.9	0.0	3.3
2) 취업의 안정성	0.0	3.0	37.7	59.3	0.0	3.6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	2.4	46.7	50.9	0.0	3.5
4) 근로환경	0.0	12.0	58.7	29.3	0.0	3.2
5) 근로시간	0.0	6.0	47.9	46.1	0.0	3.4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0	11.4	63.5	25.1	0.0	3.1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	7.8	56.9	35.3	0.0	3.3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0	7.2	61.7	31.1	0.0	3.2
9) 복지후생	0.0	15.0	57.5	27.5	0.0	3.1
10) 전반적 만족도	0.0	6.0	53.9	40.1	0.0	3.3

<표 Ⅲ-72>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목재생산업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0.0	9.1	48.5	42.4	0.0	3.3
2) 취업의 안정성	0.0	1.5	15.2	83.3	0.0	3.8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	1.5	19.7	78.8	0.0	3.8
4) 근로환경	0.0	13.6	19.7	66.7	0.0	3.5
5) 근로시간	0.0	1.5	16.7	81.8	0.0	3.8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0	13.6	33.3	53.0	0.0	3.4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	7.6	25.8	65.2	1.5	3.6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0	1.5	37.9	60.6	0.0	3.6
9) 복지후생	0.0	9.1	39.4	51.5	0.0	3.4
10) 전반적 만족도	0.0	0.0	28.8	71.2	0.0	3.7

<표 III-73>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0.0	17.8	44.6	37.2	0.4	3.2
2) 취업의 안정성	0.0	2.9	33.5	62.4	1.2	3.6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	2.1	39.7	57.9	0.4	3.6
4) 근로환경	0.0	8.3	41.3	49.2	1.2	3.4
5) 근로시간	0.4	3.3	34.7	61.2	0.4	3.6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0	11.6	51.7	36.4	0.4	3.3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	4.1	38.6	53.9	3.3	3.6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0	5.4	46.7	47.1	0.8	3.4
9) 복지후생	0.0	9.5	53.7	35.1	1.7	3.3
10) 전반적 만족도	0.0	3.3	44.2	52.5	0.0	3.5

<표 III-74>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영림단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14.3	14.3	57.1	14.3	0.0	2.7
2) 취업의 안정성	5.6	33.3	38.9	22.2	0.0	2.8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0.0	5.0	30.0	60.0	5.0	3.7
4) 근로환경	0.0	15.0	45.0	35.0	5.0	3.3
5) 근로시간	0.0	0.0	36.8	52.6	10.5	3.7
6) 개인의 발전가능성	0.0	5.3	73.7	15.8	5.3	3.2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0.0	0.0	30.0	65.0	5.0	3.8
8) 인사고과의 공정성	0.0	5.9	52.9	35.3	5.9	3.4
9) 복지후생	0.0	17.6	70.6	5.9	5.9	3.0
10) 전반적 만족도	0.0	8.3	66.7	25.0	0.0	3.2

<표 III-75>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산림복지전문업

(단위: %)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5점척도 평균
1) 임금 또는 소득	3.3	25.6	51.1	18.9	1.1	2.9
2) 취업의 안정성	31.1	32.2	20.0	16.7	0.0	2.2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1.1	0.0	15.6	67.8	15.6	4.0
4) 근로환경	1.1	16.7	30.0	46.7	5.6	3.4
5) 근로시간	1.1	3.3	25.3	63.7	6.6	3.7
6) 개인의 발전가능성	2.2	4.4	22.0	63.7	7.7	3.7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1.1	3.3	24.2	59.3	12.1	3.8
8) 인사고과의 공정성	2.6	3.9	46.8	45.5	1.3	3.4
9) 복지후생	10.3	21.8	46.0	19.5	2.3	2.8
10) 전반적 만족도	1.1	1.1	27.5	62.6	7.7	3.7

- 현 직장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한 조사에서는 낮은 임금수준, 복지여건, 열악한 작업환경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앞서 현재 업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임금 또는 소득, 근로환경, 개인의 발전가능성, 복지후생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과 같은 결과임
 - 한편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고용형태의 문제를 가장 큰 불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40.7%로 높게 조사됨

<표 III-76> 현 직장에 대한 불만사항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펠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없다	30.2	31.1	29.8	20.0	26.3	43.9	42.6	4.2	1.1
낮은 임금 수준	20.7	18.1	21.9	20.0	8.4	28.8	26.4	29.2	19.8
복지여건 등 부수적인 요인	20.2	15.5	22.4	20.0	28.7	16.7	16.9	12.5	17.6
열악한 작업환경	18.5	21.8	16.8	20.0	33.5	6.1	11.6	41.7	12.1
고용형태의 문제	7.1	8.3	6.4	20.0	1.2	3.0	0.0	4.2	40.7
장시간 근로	1.9	3.6	1.0	0.0	1.2	1.5	2.1	4.2	2.2
무응답	0.5	0.5	0.5	0.0	.6	0.0	0.0	4.2	1.1
담당 업무가 잘 맞지 않음	0.3	0.0	0.5	0.0	0.0	0.0	0.0	0.0	2.2
주변인식	0.2	0.5	0.0	0.0	0.0	0.0	0.0	0.0	1.1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서	0.2	0.0	0.3	0.0	0.0	0.0	0.0	0.0	1.1
다음연도에 또 다시 위탁을 받아야 한다	0.2	0.0	0.3	0.0	0.0	0.0	0.0	0.0	1.1
일거리가 없어서	0.2	0.5	0.0	0.0	0.0	0.0	.4	0.0	0.0

- 한편 낮은 임금수준, 복지여건,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이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92.9%는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약 83%만이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이직희망자의 비중이 높았음

<표 III-77> 이직 희망 여부

(단위: %)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	이직을 원한다
전체		92.9	7.1
성별	남성	91.2	8.8
	여성	94.1	5.9
	무응답	60.0	40.0
업종	산림사업법인	94.0	6.0
	목재생산업	95.5	4.5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95.9	4.1
	영림단	83.3	16.7
	산림복지전문업	83.5	16.5

- 이직을 원하는 경우, 낮은 임금수준, 고용형태, 열악한 작업환경, 복지여건 등이 이직 희망 사유인 것으로 나타남
 -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장시간 근로가 문제라고 응답한 근로자의 비중이 13.3%임

<표 III-78> 이직 희망 사유

(단위: %)

	전체	성별			업종				
		남성	여성	무응답	산림사업법인	목재생산업	목재 펄프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
사례 수	(42)	(17)	(23)	(2)	(10)	(3)	(10)	(4)	(15)
낮은 임금 수준	42.9	29.4	52.2	50.0	10.0	66.7	80.0	75.0	26.7
고용형태의 문제	23.8	17.6	26.1	50.0	20.0	0.0	0.0	0.0	53.3
열악한 작업환경	16.7	17.6	17.4	0.0	50.0	0.0	10.0	25.0	0.0
복지여건 등 부수적인 요인	7.1	11.8	4.3	0.0	0.0	33.3	10.0	0.0	6.7
장시간 근로	4.8	11.8	0.0	0.0	0.0	0.0	0.0	0.0	13.3
일거리가 너무 없어서	2.4	5.9	0.0	0.0	10.0	0.0	0.0	0.0	0.0
무응답	2.4	5.9	0.0	0.0	10.0	0.0	0.0	0.0	0.0

- 이직을 할 경우 희망업종으로 다른 업종을 선택한 경우는 26.2%에 불과하였음
 - 업종에 무관하게 이직을 원한다는 응답자가 45.2%이고, 동일업종으로 이직을 원하는 경우도 26.2%에 달함
 - 이는 산림산업 혹은 산림산업에서 수행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여건이 이직을 희망하는 주된 원인임을 시사함
 - 영림단의 경우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겠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50.0%이나, 이직을 원하는 표본수가 작아 의미를 두기 어려움

<표 III-79> 이직 희망 업종

(단위: %)

		전체	업종무관	다른업종	동일 업종	무응답
사례수		(42)	45.2	26.2	26.2	2.4
성별	남성	(17)	47.1	23.5	23.5	5.9
	여성	(23)	43.5	30.4	26.1	0.0
	무응답	(2)	50.0	0.0	5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10)	60.0	30.0	10.0	0.0
	목재생산업	(3)	66.7	33.3	0.0	0.0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10)	70.0	20.0	10.0	0.0
	영림단	(4)	25.0	50.0	25.0	0.0
	산림복지전문업	(15)	20.0	20.0	53.3	6.7

아. 임시 및 일용근로자 조사

□ 응답자 중 임시 및 일용 고용자의 고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1) 고용계약

□ 고용계약 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77.1%를 차지하며, 그 다음은 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가 14.3%를 차지함

- 1년을 초과하는 장기계약의 비중은 1.0%에 불과함
- 고용계약기간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 영림단, 산림복지전문업은 1개월~1년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는 반면, 산림사업법인, 목재 생산업,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등은 1년의 비중이 높았음

<표 III-80> 고용계약 기간

(단위: %)

		사례수	1년 초과~3년 이하	1년	1개월~1년 미만	1개월 미만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음	무응답
전체		(105)	1.0	14.3	77.1	1.9	3.8	1.9
성별	남성	(37)	2.7	13.5	73.0	0.0	8.1	2.7
	여성	(66)	0.0	15.2	78.8	3.0	1.5	1.5
	무응답	(2)	0.0	0.0	100.0	0.0	0.0	0.0
	산림사업법인	(9)	0.0	66.7	0.0	11.1	22.2	0.0
업종	목재생산업	(7)	0.0	57.1	0.0	0.0	14.3	28.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3)	0.0	100.0	0.0	0.0	0.0	0.0
	영림단	(13)	7.7	15.4	69.2	0.0	7.7	0.0
	산림복지전문업	(73)	0.0	0.0	98.6	1.4	0.0	0.0

- 응답자 중 고용계약을 반복하거나 갱신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중이 40.5%로, 나타남
 -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속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것임을 시사함
 - 업종별로 보면 영림단의 경우 고용계약 반복 또는 갱신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76.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음

<표 III-81> 고용계약 반복 또는 갱신 여부

(단위: %)

		아니오	예	무응답
전체		57.7	40.5	1.8
성별	남성	50.0	47.4	2.6
	여성	62.0	36.6	1.4
	무응답	50.0	5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63.6	36.4	0.0
	목재생산업	14.3	57.1	28.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71.4	28.6	0.0
	영림단	23.1	76.9	0.0
	산림복지전문업	65.8	34.2	0.0

(2) 정규직 전환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근로자의 비중은 64.8%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비중이 48.6%에 불과하나, 여성의 경우 74.2%가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로 보면 목재생산업(42.9%)와 영림단(46.2%)는 정규직 전환 희망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III-82> 정규직 전환 희망 여부

(단위: %)

		정규직 전환을 원함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음	무응답
사례수		64.8	32.4	2.9
성별	남성	48.6	45.9	5.4
	여성	74.2	24.2	1.5
	무응답	50.0	5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77.8	22.2	0.0
	목재생산업	42.9	28.6	28.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6.7	33.3	0.0
	영림단	46.2	46.2	7.7
	산림복지전문업	68.5	31.5	0.0

- 한편 임시 및 일용근로자로서의 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자의 비중이 32.4%,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비중이 48.6%로 나타나, 대체로 비정규직 근무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I-83> 비정규직 근무경험과 정규직 전환

(단위: %)

		매우 많은 도움	대체로 도움	대체로 도움 되지 않음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무응답
사례수		32.4	48.6	9.5	5.7	3.8
성별	남성	18.9	56.8	10.8	5.4	8.1
	여성	40.9	42.4	9.1	6.1	1.5
	무응답	0.0	100.0	0.0	0.0	0.0
업종	산림사업법인	77.8	22.2	0.0	0.0	0.0
	목재생산업	28.6	28.6	14.3	0.0	28.6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6.7	0.0	0.0	33.3	0.0
	영림단	69.2	7.7	7.7	0.0	15.4
	산림복지전문업	42.5	39.7	11.0	6.8	0.0

자. 정부 정책

-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표 III-84>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5점척도 평균	
전체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2.0	6.1	52.5	39.4	4.3	
	4대보험료지원	0.0	0.0	5.2	47.4	47.4	4.4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8.6	15.1	49.5	26.9	3.9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9.9	20.9	48.4	20.9	3.8	
	직업훈련비지원	0.0	1.1	10.8	58.1	30.1	4.2	
	채용활동지원	0.0	4.2	13.7	51.6	30.5	4.1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6.7	34.8	37.1	13.5	7.9	2.8	
성 별	남성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3.0	6.1	45.5	45.5	4.3
		4대보험료지원	0.0	0.0	3.0	48.5	48.5	4.5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6.7	13.3	46.7	33.3	4.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10.0	13.3	46.7	30.0	4.0
		직업훈련비지원	0.0	0.0	10.0	56.7	33.3	4.2
		채용활동지원	0.0	3.2	12.9	64.5	19.4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3.3	26.7	40.0	20.0	10.0	3.1
	여성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5	6.2	56.9	35.4	4.3
		4대보험료지원	0.0	0.0	6.3	47.6	46.0	4.4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9.7	16.1	50.0	24.2	3.9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10.0	23.3	50.0	16.7	3.7
		직업훈련비지원	0.0	1.6	11.3	58.1	29.0	4.1
		채용활동지원	0.0	4.8	14.3	44.4	36.5	4.1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8.6	37.9	36.2	10.3	6.9	2.7

- 한편 업종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업에 차이가 있음
- 대체로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4대보험료 지원 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산림사업법인과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은 은 추가고용인건비 지원에 각각 3.3점을 주어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조사됨
 - 영림단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에 상대적으로 높은 4.9점을 부여함
 - 이는 영림단 종사자의 불안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표 III-85>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업종별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5점척도 평균
산림사업 법인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22.2	22.2	55.6	0.0	3.3
	4대보험료지원			11.1	88.9	0.0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3.3	22.2	44.4	0.0	3.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44.4	22.2	33.3	0.0	2.9
	직업훈련비지원		0.0	11.1	88.9	0.0	3.9
	채용활동지원		22.2	11.1	66.7	0.0	3.4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0	55.6	22.2	22.2	0.0	2.7
목재생산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4.3	85.7	0.0	3.9
	4대보험료지원			14.3	85.7	0.0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28.6	71.4	0.0	3.7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28.6	71.4	0.0	3.7
	직업훈련비지원		0.0	28.6	71.4	0.0	3.7
	채용활동지원		14.3	14.3	57.1	14.3	3.7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0	28.6	42.9	14.3	14.3	3.1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66.7	33.3	0.0	3.3
	4대보험료지원			33.3	66.7	0.0	3.7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66.7	33.3	0.0	3.3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66.7	33.3	0.0	3.3
	직업훈련비지원		0.0	33.3	66.7	0.0	3.7
	채용활동지원		0.0	66.7	33.3	0.0	3.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0	0.0	66.7	33.3	0.0	3.3
영림단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0.0	33.3	66.7	4.7
	4대보험료지원			0.0	22.2	77.8	4.8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0.0	12.5	37.5	50.0	4.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0.0	0.0	14.3	85.7	4.9
	직업훈련비지원		0.0	11.1	33.3	55.6	4.4
	채용활동지원		0.0	37.5	25.0	37.5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0.0	12.5	50.0	12.5	25.0	3.5
산림복지 전문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0.0	1.4	52.1	46.5	4.5
	4대보험료지원			2.9	40.6	56.5	4.5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7.6	10.6	50.0	31.8	4.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7.7	20.0	52.3	20.0	3.8
	직업훈련비지원		1.5	7.7	55.4	35.4	4.2
	채용활동지원		1.5	8.8	52.9	36.8	4.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9.7	37.1	35.5	11.3	6.5	2.7

□ 산림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대체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표 III-86> 산림산업발전을 위한 위한 정부 정책 방향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5점척도 평균	
전체	클러스터 조성	-	7.8	27.8	50.0	14.4	3.7	
	공공 일자리 조성	-	2.2	10.8	55.9	31.2	4.2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2.1	8.4	49.5	40.0	4.3	
	유통구조 개선	-	3.4	22.5	55.1	19.1	3.9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2.1	14.4	54.6	28.9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	4.2	12.5	56.3	27.1	4.1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2.2	9.7	51.6	36.6	4.2	
성 별	남성	클러스터 조성	-	3.3	40.0	43.3	13.3	3.7
		공공 일자리 조성	-	0.0	20.7	55.2	24.1	4.0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6.3	12.5	50.0	31.3	4.1
		유통구조 개선	-	0.0	31.0	51.7	17.2	3.9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5.7	11.4	54.3	28.6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	6.1	6.1	69.7	18.2	4.0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3.2	9.7	48.4	38.7	4.2
	여성	클러스터 조성	-	10.2	22.0	52.5	15.3	3.7
		공공 일자리 조성	-	3.2	6.3	57.1	33.3	4.2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0.0	6.5	50.0	43.5	4.4
		유통구조 개선	-	5.1	18.6	55.9	20.3	3.9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0.0	14.8	55.7	29.5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	3.2	16.1	50.0	30.6	4.1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1.6	9.8	54.1	34.4	4.2

□ 업종별로 보면

- 산림사업법인은 클러스터 조성, 창업지원, 기술개발투자 지원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목재생산업은 클러스터 조성, 공공일자리 조성,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목재 펄프 종이 제조업은 클러스터 조성,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창업지원, 기술개발투자 지원 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영림단은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반면,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창업지원,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산림복지전문업 종사자들은 모든 항목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음

<표 III-87>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업종별

(단위: %)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5점척도 평균
산림사업 법인	클러스터 조성	-	22.2	44.4	33.3	0.0	3.1
	공공 일자리 조성	-	0.0	11.1	88.9	0.0	3.9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0.0	11.1	88.9	0.0	3.9
	유통구조 개선	-	0.0	22.2	77.8	0.0	3.8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0.0	22.2	77.8	0.0	3.8
	산림분야 창업지원	-	33.3	33.3	33.3	0.0	3.0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22.2	33.3	44.4	0.0	3.2
목재생산업	클러스터 조성	-	14.3	28.6	57.1	0.0	3.4
	공공 일자리 조성	-	28.6	14.3	57.1	0.0	3.3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0.0	14.3	85.7	0.0	3.9
	유통구조 개선	-	0.0	14.3	57.1	28.6	4.1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28.6	28.6	42.9	0.0	3.1
	산림분야 창업지원	-	14.3	14.3	71.4	0.0	3.6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0.0	14.3	42.9	42.9	4.3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	33.3	33.3	33.3	0.0	3.0
	공공 일자리 조성	-	0.0	33.3	66.7	0.0	3.7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0.0	33.3	66.7	0.0	3.7
	유통구조 개선	-	0.0	33.3	66.7	0.0	3.7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0.0	66.7	33.3	0.0	3.3
	산림분야 창업지원	-	0.0	66.7	33.3	0.0	3.3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0.0	66.7	33.3	0.0	3.3
영림단	클러스터 조성	-	0.0	50.0	37.5	12.5	3.6
	공공 일자리 조성	-	0.0	57.1	28.6	14.3	3.6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	25.0	37.5	37.5	0.0	3.1
	유통구조 개선	-	0.0	57.1	42.9	0.0	3.4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	0.0	18.2	54.5	27.3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	0.0	0.0	80.0	20.0	4.2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	0.0	0.0	66.7	33.3	4.3
산림복지 전문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	4.8	22.2	54.0	19.0	3.9
	4대보험료지원	-	0.0	4.5	53.7	41.8	4.4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	0.0	2.9	41.2	55.9	4.5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	4.8	19.0	52.4	23.8	4.0
	직업훈련비지원	-	0.0	9.0	53.7	37.3	4.3
	채용활동지원	-	0.0	9.0	55.2	35.8	4.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	0.0	4.6	52.3	43.1	4.4

4. 기업체-근로자 비교 분석

□ 본 절에서는 국내경제, 산림산업, 회사 매출 전망 등에 대한 기업체와 근로자의 생각을 비교 분석함

가. 경제 및 매출 전망

- 국내경제, 산림산업, 회사매출 등에 대한 전망결과를 보면 사업체의 전망과 근로자의 전망에 큰 차이가 없음
- 사업체 근로자 모두 보통 이하의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회사매출 전망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체보다 다소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88> 국내 경제, 산림산업, 회사 매출 전망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5점척도 평균)

		사업체	근로자	
국내경제 전망	전체	2.6	2.5	
	업종	산림사업법인	2.6	2.4
		목재생산업	2.4	2.4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5	2.4
		영림단	3.1	2.8
		산림복지전문업	3.1	3.2
산림산업 전망	전체	2.8	2.9	
	업종	산림사업법인	2.9	2.9
		목재생산업	2.6	2.7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6	2.5
		영림단	3.2	3.0
		산림복지전문업	3.4	3.7
회사 매출전망	전체	2.9	2.8	
	업종	산림사업법인	2.9	2.9
		목재생산업	2.7	2.8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2.8	2.7
		영림단	3.1	2.6
		산림복지전문업	3.3	3.2

나. 구인 및 취업경로

- 구인 및 취업경로를 비교해 보면 사업체, 근로자 모두 지인 소개의 비중이 높았음
 - 다만, 근로자들의 취업경로로 지인소개를 활용하는 비중이, 사업체에서 구인경로로 지인 소개를 활용하는 비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표 III-89> 구인 및 취업 경로 비교

(단위: %)

		전체	업종				
			산림사업 법인	목재생산 업	목재 펠프	영림단	산림복지 전문업
사업체 구인경로 (1순위)	공공 취업알선기관	35.6	24.7	43.6	42.8	9.1	25.0
	민간 취업알선기관	8.6	2.2	12.8	11.4	0.0	10.0
	대충매체	11.3	1.1	5.1	17.4	0.0	20.0
	학교 또는 학원 소개 및 추천	4.3	5.6	5.1	2.5	0.0	20.0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	35.3	66.3	17.9	21.4	90.9	10.0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	0.3	0.0	0.0	0.5	0.0	0.0
	기타	4.6	0.0	15.4	4.0	0.0	15.0
근로자 취업경로	공공 취업알선기관	20.5	22.2	21.2	24.8	0.0	11.0
	민간 취업알선기관	6.6	7.8	4.5	8.7	4.2	1.1
	대충매체	6.6	1.8	6.1	10.7	0.0	6.6
	학교 또는 학원 소개 및 추천	2.4	1.2	6.1	1.7	0.0	4.4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	52.5	65.3	42.4	44.2	95.8	47.3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	0.5	0.0	1.5	0.4	0.0	1.1
	기타	10.8	1.8	18.2	9.5	0.0	28.6

다. 교육훈련의 필요성

- 교육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72.2%, 근로자의 67.3%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업종별로 보면 산림사업법인의 경우 사업체의 79.8%가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근로자의 59.3%만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소 차이가 있었음.
 - 다른 업종의 경우 사업체의 인식과 근로자의 인식 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표 Ⅲ-90> 교육훈련 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사업체	근로자
전체		72.2	67.3
업종	산림사업법인	79.8	59.3
	목재생산업	60.0	65.2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66.7	62.0
	영림단	91.3	87.5
	산림복지전문업	95.2	92.3

라. 정책방안

- 고용증대를 위한 정책방안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부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근로자가 사업체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91>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사업체	근로자
전체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3.8	4.3
	4대보험료지원	3.9	4.4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5	3.9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4	3.8
	직업훈련비지원	3.7	4.2
	채용활동지원	3.6	4.1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2.9	2.8

<표 Ⅲ-92>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산업별

(단위: %)

		사업체	근로자
산림산업 법인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3.6	3.3
	4대보험료지원	3.7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2	3.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0	2.9
	직업훈련비지원	3.6	3.9
	채용활동지원	3.4	3.4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3.1	2.7

목재생산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3.9	3.9
	4대보험료지원	3.9	3.9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4	3.7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2	3.7
	직업훈련비지원	3.6	3.7
	채용활동지원	3.3	3.7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2.7	3.1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3.8	3.3
	4대보험료지원	3.9	3.7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7	3.3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3.5	3.3
	직업훈련비지원	3.8	3.7
	채용활동지원	3.8	3.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2.8	3.3
영림단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3.8	4.7
	4대보험료지원	4.0	4.8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4.2	4.4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4.3	4.9
	직업훈련비지원	4.3	4.4
	채용활동지원	3.8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4.2	3.5
산림복지 전문업	추가 고용 인건비 지원	4.7	4.5
	4대보험료지원	4.5	4.5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3.4	4.1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4.0	3.8
	직업훈련비지원	4.0	4.2
	채용활동지원	3.6	4.3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3.2	2.7

-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방향 역시 근로자가 느끼는 필요성이 사업체가 느끼는 필요성보다 더 크게 조사됨

<표 Ⅲ-93>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	
		사업체	근로자
전체	클러스터 조성	3.2	3.7
	공공 일자리 조성	3.4	4.2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3.6	4.3
	유통구조 개선	3.8	3.9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3.4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3.2	4.1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3.8	4.2

<표 III-94>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 비교: 산업별

(단위: %)

		사업체	근로자
산림산업 법인	클러스터 조성	3.2	3.1
	공공 일자리 조성	3.4	3.9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3.7	3.9
	유통구조 개선	3.3	3.8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3.6	3.8
	산림분야 창업지원	3.1	3.0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3.4	3.2
목재생산업	클러스터 조성	3.2	3.4
	공공 일자리 조성	3.6	3.3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3.9	3.9
	유통구조 개선	4.0	4.1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3.5	3.1
	산림분야 창업지원	3.2	3.6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4.1	4.3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	클러스터 조성	3.0	3.0
	공공 일자리 조성	3.2	3.7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3.4	3.7
	유통구조 개선	3.9	3.7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3.0	3.3
	산림분야 창업지원	3.2	3.3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3.9	3.3
영림단	클러스터 조성	3.9	3.6
	공공 일자리 조성	3.8	3.6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3.5	3.1
	유통구조 개선	3.5	3.4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4.4	4.1
	산림분야 창업지원	4.0	4.2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4.1	4.3
산림복지 전문업	클러스터 조성	3.8	3.9
	공공 일자리 조성	4.5	4.4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4.4	4.5
	유통구조 개선	4.0	4.0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4.3	4.3
	산림분야 창업지원	4.4	4.3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4.3	4.4

5. 소결

□ 일반현황 요약

-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30.2%가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으며, 62.3%가 회사법인의 형태, 95.7%가 일반사업체이며, 91.1%는 단독사업체이며, 80.7%가 5~29에 속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근로자 구성은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41%, 산림사업법인에 28.3% 순이며, 학력은 4년제 대졸자가 50.2%로 가장 많았고, 고졸이 30.0% 순이며, 64.2%는 가구주가 아니고, 월평균임금은 100~200만원 미만이 42.7%로 가장 많음
- 매출액은 신규업체의 출현으로 매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높고,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

□ 경기 및 일자리전망

-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근로자 대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사업체의 경우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임
- 일자리 전망의 경우 국내 일자리는 산림일자리보다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 모두가 높아 전망의 차이를 판별하기 어려우며, 사업체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에서 긍정적 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여성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의견이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종사자들이 타 산업 종사자에 비해 일자리전망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근로자현황 요약

- 사업체조사로 보면,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96.0%)에서 높았으며, 영림단(35.4%)과 산림복지전문업(33.7%)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두 배 정도 높아 고용이 질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영림단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2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이 63.77%로 고용계약상 문제점은 없는 지 추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산림복지전문업은 2년 이상의 근속자 비중이 상용근로자에서도 36.5%로 매우 저조해 인적자본축적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수 있음
- 임시 및 일용근로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이 컸으며, 이는 특히 산림사업법인(90.5%)에서 가장 높았음
- 한편, 근로자 조사에서는 한 직장의 근속연수는 평균 4.6년으로 남성이 5.86년, 여성이 3.94년으로 성별 차이가 있었음
- 산업별로는 영림단 종사자들이 평균 7.98년으로 가장 긴 반면, 산림복지전문업은 1.43년에 불과함
- 현 업종 관련 경력은 평균 6.18년으로 남성이 8.22년, 여성이 5.21년이며, 업종별로는 영림단이 12.0년, 산림복지전문업이 4.08년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직종은 78.0%가 사무관리 행정직으로 설문이 용이한 직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상대적으로 생산기능직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사무관리 행정직과 숲해설사나 유아 숲 지도사 등의 기타 직종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고용형태는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81.7%로 사업체 조사의 81.6%와 거의 유사하며, 성별로는 여성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남성보다 높았으며, 산업별로는 사업체 조사와 유사하게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상용근로자 비중이 낮았음

□ 채용

- 채용은 부족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으며, 퇴직인원 대비 신규채용 비중은 영림단(3.38)과 산림복지전문업(2.36)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 산업 모두 1 이상의 비중을 보임
- 다만, 계획에 있어서는 대부분 소극적으로 부족인력 대비 48.9%의 신규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산림복지전문업이 가장 28%로 가장 낮았으며, 영림단이 100%로 가장 높았음
- 채용 시 연령 무관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에 대한 선호는 17.2%로 다소 낮은 편임
- 채용과 관련해 직무능력(77.9%)과 자격증(36.4%), 인성태도(35.0%)가 중요한 항목으

로 꼽혔으며, 목재생산업과 제조업에서는 직무능력이, 산림사업법인과 영림단에서는 자격증이, 산림복지전문업에서는 인성태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음

- 채용경로를 보면 사업체 조사의 경우 1순위는 공공취업알선기관이 35.6%로 가장 높았지만, 2순위까지 종합 합계로 보면, 지인소개가 68.5%로 가장 높았음
- 근로자 조사 역시 지인 소개가 52.5%로 가장 높았고,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영림단의 경우 95.8%가 지인소개를 통한 취업임
- 공공취업알선기관의 경로는 20.5%에 불과한데,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 밖에 여성은 지인 소개 이외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업을 하고 있다는 특징을 볼 수 있음
- 사업체에서 채용 및 인력활용 상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 상승이 66.6%로 가장 많았음

□ 임금 및 근로복지

-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직이 상용직 평균 2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초임은 사무관리직이 167만원으로 가장 낮음
 - 근로자 설문 결과 연평균 임금 수준이 2,421만원으로 조사되어 사업체 조사의 상용근로자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 성별로는 근속연수와 경력이 평균적으로 긴 남성이 높았으며, 업종별로 분석한 경우 영림단이 연 1,000만원이 안된다고 나타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로 추론됨
- 근로자 설문을 보면, 임금은 97.6%가 월급형태로 지급되고 있지만 영림단의 경우 29.2%가 수시로 받거나 12.5%가 사업 종료 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임금산정 방식은 대부분 월급제 또는 연봉계약제지만, 남성의 경우 일당제(11.9%), 실적제(1.6%), 도급제(1.0%)도 일부 있었음
 - 영림단은 일당제의 비중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복지전문업에서도 일당제

가 12.1% 비중으로 나타남

- 성과급제도는 전체의 17.1%가 사용된다고 응답되었으며, 산림복지전문업에서는 1.1%만이 그렇다고 응답되었음
 - 성과급은 회사성과급제가 48.5%로 가장 높았고, 개인성과급제도 31.7%로 나타났음
- 4대 보험 가입률은 사업체조사와 근로자조사 모두 전체 95% 이상으로 높은 편이지만, 영림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70~80%수준)
- 퇴직금과 (사업체 86.1%, 근로자 81.0%) 시간외수당(사업체 77.8%, 근로자 68.0%), 유급휴가(사업체 75.7%, 근로자 74.2%)는 비교적 많이 활용되고 있었지만, 기숙사나 통근차량 등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음
- 특히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의 경우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더불어 퇴직금과 상여금의 혜택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을 보여, 이 부분에 대한 점검 및 지원이 필요함
- 전반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사협의회 등의 노동자조직은 구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근로자 설문을 통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보면, 94.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기초고용질서는 어느 정도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시간

- 응답자의 95.6%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하여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평균 39.5시간으로 40시간에 미치지 못하였음
- 남성은 여성보다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응답된 비율이 조금 낮았으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도 남성이 좀 더 길었음
- 업종별로는 영림단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50%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응답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

-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볼 경우 초과근로의 문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초과근로 시 지급되는 초과수당은 5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림사업법인(35.5%)과 산림복지전문업(27.5%)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초과수당의 지급 방식은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근로자가 88.3%였고, 67.2%가 통상 시급의 125~150%로 지급된다고 응답함

□ 교육훈련

-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사업체는 72.2%, 근로자는 67.3%로 사업체가 더 높은 필요성을 보였으며, 특히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교육훈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근로자들은 88.9%가 업무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림단 근로자의 경우 28.6%가 개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도 응답하였음
 - 교육훈련이 필요한 분야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신 전문 기술 및 지식 또는 기초 기술 및 지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교육훈련을 위한 최소 시간은 1주 미만이 61.2%, 1~2주가 30.5%로 비교적 단기교육을 선호하였지만,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
- 실제 교육훈련의 실시는 전체 82.9%가 자체 및 외부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교육의 필요성보다 높은 현황을 보이지만,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는 필요성에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상대적으로 자체교육보다는 공공기관 위탁교육 등 외부교육의 비중이 높았음
- 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93.2%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도움정도는 보통이상이 88.1%로 만족도에 비해 조금 낮음
 - 다만, 만족도와 도움정도에서 영림단과 특히 산림복지전문업은 높은 평가를 보여, 외부교육보다는 자체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OJT에 대한 사업주

지원 등이 필요함

- 사업체 입장에서 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은 직원들의 무관심이 30.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특히 산림사업법인(50.6%)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업무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해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29.9%가 응답하였음
 - 결국, 적극적인 직무향상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
- 교육효과에 대한 불확실성(27.5%)이 생산업과 제조업이 중심으로 높는데, 이는 생산기능직에 대한 체계화되고 검증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고용상의 만족도(근로자 대상)

-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96.2%가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임
 - 항목별로는 하고 있는 일의 내용에 대한 만족과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상대적으로 임금과 복지후생에서의 만족도가 낮은 편임
 - 업종별로는 목재생산업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상대적으로 종합 만족도가 높은 편임
-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에서 평가가 낮았던 임금수준(20.7%), 복지여건(20.2%), 열악한 작업환경(18.5%) 등이 꼽혔음
 - 하지만 이런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92.9%는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여 불만족 정도가 이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학인 됨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조사

-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77.1%로 가장 많고, 이는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 고용계약의 반복은 전체 40.5%가 갱신 경험이 있었으며, 영림단의 경우 76.9%로 높

았음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64.8%이며, 남성은 48.6%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74.2%가 희망하였음
 - 업종별로는 산림사업법인이 77.8%로 가장 높았고, 목재생산업이 42.9%로 가장 낮았음
- 임시 및 일용직의 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 81%로 특히 산림사업법인을 중심으로 경력의 디딤돌사업과 같은 청년인턴 사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정부정책

-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으로는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인건비 지원과 4대 보험료 지원,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근로자들은 직업훈련비 지원, 채용활동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에 대해 필요성을 보인 반면, 사업체에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확대지원은 사업체는 필요와 불필요가 비슷하게 나뉘는 반면, 근로자들은 불필요와 중립이 비슷하게 나뉘어 근로자들이 좀 더 부정적인 의견을 보임
- 산림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은 사업체의 경우 유통구조개선과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등의 매출증대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반면, 근로자들은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과 공공일자리조성,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에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이라는 측면을 고르게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
 - 다만,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는 사업체의 경우 필요와 불필요가 거의 반으로 나뉘는 결과를 보임

IV. 산림산업 일자리 심층조사

1. 심층조사 개요

가. 사업체 조사

회사명	업 종	면담 일자	면담 장소
(주)인투스디자인가구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10.22	인천광역시
(주)나라산림	산림토목	11.3	충북 진천군
(주)한일수출포장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11.6	경남 함안군
(주)신영목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1.1	전북 군산시
성원산업사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0.29	충남 금산군
(주)경보제지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1.6	전북 임실군
(주)평강특수목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1.5	부산 광역시
(주)수석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29	충남 홍성군
(주)신림참숯	제재업	10.24	강원 원주시

나. 근로자 조사

회사명	업 종	경력 (년)	담당 업무	면담 일자	면담 장소
(주)더 가구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3	제조	11.2	대전광역시
(주)청아판지팩	골판지 제조업	8	회계	10.30	경기 화성시
(주)하늘그린	산림토목	2	사무	10.25	충남 금산군
(주)대현수출포장해운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6	관리	10.22	경기 김포시
(주)현대양행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5	사무	11.1	경기 김포시
(주)일성목재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3	총무	11.5	세종시
(주)태림포장 청원공장	골판지 제조업	1	사무	10.24	충북 청주시
(주)중원고건축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3	제조	10.25	충북 청주시
(주)솔뫼우드산림산업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2	사무	10.29	충남 금산군
(주)신림참숯	제재업	20	총괄	10.24	강원 원주시

2. 사업체 조사결과

가. 고용환경 및 정책

□ 기업경영의 애로사항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하청 비용은 상승하지 않음
- (산림토목) 산림법인 업체를 설립할 때 설립조건이 산림공학기술자가 의무적으로 5명이 있어야 하지만 회사의 매출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경기침체로 원청에서 발주하는 주문 물량이 감소하고 있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가장 큰 문제점은 인건비 상승임. 판매금액은 상승하지 않는데 인건비가 상승하니 문제임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물건이 판매되지 않고, 규제가 너무 심함. 재생을 취급하는데 소비자가 재생을 원하지 않음. 재생을 사용하지 않으면 원가를 맞출 수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매출이 오르지 않아 어려움. 현재 기술직 직원이 노령화되어 청년층 기술직 직원이 필요하나 청년직원 채용이 되지 않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현재 본 업종은 다른 분야보다 발전이 늦음. 현재 초보단계임. 그래서 판매단가 부분이 현실과 괴리감이 있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골판지 제조업) 경제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규직원을 채용하는데 적극적이기 어려움. 이러한 상황에서 주52시간이 적용되면서 단기적으로 일거리가 들어왔을 때 물량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주52시간의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함

□ 이직 및 사직실태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업무의 강도가 높으나 회사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건비 상승폭이 낮아 이직 및 사직이 잦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 수를 조절할 수밖에 없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작은 회사의 경우 또는 기피하는 업종의 경우 대부분 연령이 높은 직원이기 때문에 이직 및 사직이 거의 없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대부분 연령이 높아서 이직은 없음. 젊은층이 유입되지 않으니 휴계자가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이직률과 사직률은 높은 편임. 특히 젊은 층의 경우 매우 심각함. 그 이유는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임.
 -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안 되고 동일한 업종에서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실정임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이직률과 사직률은 높은 편임. 판매단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정규직화 애로사항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근무하는 직원 수가 적다보니 대부분 정규직의 형태임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소수의 정규직을 운영하고 그 외는 단기 일용직을 고용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직원이 소수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임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모두 정규직임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정규직 30%, 비정규직 70%로 운영하고 있음. 업종의 특성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있어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직원만 정규직으로 고용함

□ 작업환경 개선

- (산림토목) 산림산업은 기계를 다루거나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열악하나 환경 자체가 개선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제품 생산을 위한 기계 자동화가 되어있으면 좋으나, 현

실적으로 어려움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생산 공정 및 제조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여 일부 인력만 투입되는 반자동화를 도입해서 직원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제도나 문화 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를 쓰려면 대체 인력이 있어야함. 하지만, 신규인력 부족 등으로 대체인력이 없어 이용하지 못함
- (산림토목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산림산업의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그 이유는 직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앞의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임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은 운영하고 있지 않음. 이 업종의 특성상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나. 교육훈련

□ 교육훈련의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업종의 특성이 기계를 다루거나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안전교육이 가장 필요함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산림산업의 직종은 대부분 단순생산직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만 실시하고 있음. 단순생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은 필요하지 않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기계를 사용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기계 운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직업능력 향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직업능력 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이 전국에 몇 곳 없기 때문에 교육을 받기 어려움
- (제재업) 안전교육이 필요하나, 소규모 사업장이라 매뉴얼 생산 등에 어려움이 있음

□ 신입사원의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신입사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역량을 따질 수 없음. 지원자가 있다면 역량에 관계없이 채용될 수 있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제재업에 대한 현장 능력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고 싶으나,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입사 후 현장에서 업무를 터득하고 있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성실성이라고 생각함. 업무능력을 시간이 지나면 향상되는 반면, 성실성은 노력으로 보완될 수 없다고 생각함

□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훈련 실시여부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특별한 교육훈련은 진행하지 않으나 기본적인 장비사용법 교육은 진행함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실습위주의 교육과 안전교육만을 진행하고 있음. 회사 여건상 별도의 시간이나 장소를 마련하지는 못하고 현장에서 진행하고 있음
- (포장재 생산) 실습위주의 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함. 신입사원 채용 시 기본적인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다.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고용증가를 위한 기업의 개선사항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제조업의 경우 원청에서 하청 비용을 올리지 않는 이상 하청 업체는 매출이 증가하지 않아 고용을 늘릴 수 없음
- (산림토목) 산림법인회사의 경우 지자체 또는 전국단위로 사업발주가 많아야 고용

이 증가될 수 있음. 법인회사는 매년 증가하는데 발주되는 사업수가 적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함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회사의 매출액이 증가해야 회사가 고용증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회사에서 노력을 하더라도 지원자가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심각한 구인난을 겪기 때문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산직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젊은층이 유입될 것으로 생각됨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현 상황에서 기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국가정책이 변화되어야 기업이 맞춰서 따라 갈 수밖에 없음

□ 산림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및 개선사항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산업청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 임대료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라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움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환경법과 노동법이 문제임. 환경법 때문에 제대로 제품을 생산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법규가 애매하기 때문에 같은 법규라도 A라는 측면에서는 위법, B라는 측면에서는 합법임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직원들이 조금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산업단지에 입주할 희망하고 있으나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산림산업에는 해당되지 않아 입주 할 수 없음. 입주 조건의 개선이 필요함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본 업종의 설립 조건은 기사급 3명, 기능사급 4명이 유지되어야함. 회사가 앞의 조건을 유지하려면 매출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임. 설립 조건의 완화가 필요함
- (제재업) 연탄공장 등에 사용되는 목재를 공급하였는데, 목재 규격이 생기면서 비용이 증가함. 규격품이 수요업체 요구 수준을 넘어섬. 규격품보다는 공급업체와 수요업체가 협의 하에 자유롭게 제품 생산할 수 있기를 바람

- (제재업) 제품 생산 후 남는 잔존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겨울에는 화목 등으로 판매 가능하나, 여름에는 처리가 불가능하여 처리업체 등에게 맞길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됨.

□ 정부정책 중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시급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정책

- 고용장려금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고용장려금의 경우 근무시간의 제한이 있음. 업종의 특성상 제한된 근무시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지원받기 어려움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용장려금 제도는 실제 회사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정부에서 더 현실적인 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
- 사회보험료 지원
 - (산림토목) 고정인건비가 감소해야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이 발생하여 이윤으로 신규인력을 충원할 수 있음
- 기타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신규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회사의 매출이 가장 중요함.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필요함. 고용지원의 경우 100% 지원이 아닌,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고려되어야 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지원자가 없어 신규고용창출 자체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업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 4대 보험 가입여부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직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가입되어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모두 가입되어 있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모두 가입되어 있음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모두 가입되어 있음

- (제재업) 근로자들이 모두 고령이라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제재업 특성 상 산재의 위험이 있음. 따라서 고령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바람.

□ 사내 복지시설 및 제도의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복지시설은 대부분 회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시설에 자금을 투자할 수 없음.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지원금을 제외한 회사 투자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확충 할 수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업종의 여건상 복지시설 구축보다는 작업환경 개선이 가장 큰 과제임. 반자동화 시설을 구축한다면 직원들의 업무강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그것 자체가 복지향상임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본적으로 회사 매출액이 뒷받침 되지 않는데 사내 복지시설 및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정부정책이 산림산업 홍보와 지원이 될 수 있게 개선된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액이 상승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내 복지시설이나 제도를 개설할 수 있을 것임

라. 기타

□ 고령화가 귀 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처방안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음. 하지만 젊은층이 산림사업 분야에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이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 젊은층이 업무강도가 높다는 인식 때문에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임. 또한, 직업훈련 등에서 산림산업 분야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직업훈련 등에서 산림산업 분야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산업의 특성상 젊은층이 필요하지만 유입되지 않는다 보니, 대부분 모두 60대 이상 노년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업종의 상황이 모두 같

아서 회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불가능함. 해당 부분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를 기댈 수밖에 없음

□ 산림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필요사항 및 지원내용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제조업 하청업체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함
- (산림토목) 산림법인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많은 사업을 수주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관기관의 수주기회가 감소함.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민관기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물건의 판매량이 많아야 하지만, 소기업에서는 고가의 기계 지원 또는 투자가 부족한 실정임(대기업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전체 직원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생산된 제품에 대한 판매, 영업 등 모든 분야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정부에서는 특별한 지원도 없고 지원이 있다고 해도 소기업, 영세상인 등은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지원받기 어려움. 정부에서 이 사항에 대한 지원책이나 개선책을 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고용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산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젊은층의 유입이 적어 업계의 직원 연령층이 매우 높음.
 - 법인 설립 시 충족요건이 너무 높음. 요건을 완화해야 산림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음. 또한, 교육기관도 전문한 상태임. 우리나라에 5개의 교육기관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일부 특정지역에만 있어 현실적으로 출퇴근이 안 되니 적어도 각 도에 하나는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3. 근로자 조사결과

가. 고용의 질

□ 임금에 대한 만족도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임금이 만족하고 있음. 잔업 및 특근 등은 별로 없어서 수당이 나올 일은 거의 없음
- (골판지 제조업) 만족하고 있음
- (산림토목)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직무특성 및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함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만족하고 있음. 임금에 잔업, 특근 등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만족하고 있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만족하지 못함. 단순생산직이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타 제조업에서 임금을 낮게 책정하다보니, 기본급자체가 적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만족하지 않으나 나쁘진 않음. 생각보다 잔업 등이 많이 않음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회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임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회사 자체에 수당제도가 없음
- (제재업) 임금이 만족하지 않음.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 잔업수당, 연차수당 등 수당제도가 없음
- (목재포장용 상자 제조업)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함

□ 부가급여에 대한 만족도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만족하고 있음.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가 거의 없음

- (골판지 제조업) 월급제로 모든 수당이 다 포함된 연봉 개념이라 특별하게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현재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기 때문에 부가급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 (산림토목) 만족하고 있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만족하고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모든 부가급여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어 아쉬운 점은 있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부가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부가급여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부가급여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음
- (제재업) 만족하지 못함. 부가급여에 대한 제도가 없음

□ 고용형태에 대한 만족도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고용에 대한 불만은 없음. 본 회사의 직원들은 대부분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음
- (골판지 제조업)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불만은 없음
- (산림토목) 정규직으로 불만은 없으나 단지, 업무량이 감소했으면 좋겠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비정규직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정규직으로 만족하고 있음. 근로자는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전부인데 월급이 적당해 만족함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정규직으로서 만족하고 있음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직원 연령이 40~50대로 높은 편이라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임. 사회적으로 따졌을 때 공무원, 대기업 월급은 오르고, 중소기업 등에서는 근로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제재업) 현재 정규직으로서 고용형태는 만족함

□ 기업 환경 개선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잔업, 특근이 없어 근로시간 등은 만족하고 있으며, 통근거리와 회사 주변 인프라시설 또한 만족하고 있음
- (골판지 제조업) 근로시간, 통근거리 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해결하면 자유롭게 퇴근하는 분위기임.
 - 시설의 경우 기존에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음. 회사에 자금이 없어 식당 보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은 보수된다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함
- (산림토목)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면 좋겠음. 추가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본 회사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는 좋지 않음. 생산직은 사내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출퇴근 하시는 몇 분도 회사에서 차량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만은 없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본 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업종 모두 회사가 시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과 편의시설이 없음. 출퇴근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회사가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인프라가 좋지 않음. 개선되어야 할 것은 기숙사, 출퇴근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회사 주변 인프라시설이 매우 부족함. 회사가 시골에 위치하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음. 회사 규모도 작고 그렇다보니 기대수준이 높지 않음
- (제재업) 회사의 위치가 시골이다 보니 편의시설 등과 떨어져 있어 불편함. 기업 환경에 대해서 기대수준이 크지 않음

□ 필요한 사내 복지제도 및 복지시설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주로 남성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복지를 원하는 직원이 없으며, 시설의 경우 휴게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음

- (골판지 제조업) 특별한 복지는 없으며, 식사와 출퇴근을 위한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 외 복지제도는 학자금제도 및 출퇴근 버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 위의 제도가 있다면 직원 채용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본 회사는 외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어려움이 있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본 회사는 주변 인프라가 너무 안 좋다보니 운동시설, 탕비실, 기숙사, 샤워시설 등 모두 회사에 갖춰져 있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복지시설 및 복지제도가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작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됨. 산림산업 분야에 큰 기업이 몇 개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작은 회사다 보니 큰 회사처럼 복지제도 및 시설을 갖추 수 없음
- (제재업) 회사가 작다보니 복지제도나 시설을 기대할 수 없음

□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 있는 삶을 위한 제도나 문화 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직원 모두 남성이다 보니 육아, 출산휴가에는 관심이 없고, 영세업체다 보니 제도가 도입되면 업무가 진행되지 않음
- (골판지 제조업) 5시 반 퇴근인데 보통 7시는 넘어서 퇴근하고 있음. 일찍 퇴근하는 제도가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현실적인 지원은 하지 않고 퇴근만 일찍 하라고 하면 어떤 회사가 그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산림토목) 회사에서 직원들의 편의를 봐주려 해도 규모가 작아서 대체인력이 없다 보니 제도가 정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함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회사에 제도는 있음. 직원이 적다보니 이용하는 직원이 많지 않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본 회사는 여건이 부족하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의 제도가 없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직원들 연령이 높다보니 관련 없음. 사내에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육아, 출산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여직원이 없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근로자는 없으나, 남직원도 눈치가 보여서 사용하지 못함
- (제재업) 직원의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직원도 없고 회사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움

나. 교육훈련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본 업종은 단순 작업 업무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음
- (골판지 제조업) 자격증 등이 필요하지 않고 골판지박스를 만드는 일이다보니, 특별한 교육보다는 기계에 대한 안전 교육을 사내에서 진행하고 있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단순제조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없이 업무 진행이 가능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 기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안전교육이 필요함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기계를 다루는 안전교육이 필요함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회사에 업무가 없어 경영이 어려우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을 고려한 여건이 되지 않음

□ 역량강화교육 여부 및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별도의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며, 단순 작업 업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 (골판지 제조업) 업무의 특성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기계 안전교육만 필요하고 필요한 교육은 없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회사 상황이 어렵다보니 별도의 교육이 없음.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나타남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교육하지 않음. 규모가 작은 소기업이다 보니 자체 역량 강화교육은 하지 못함.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설을 확보하고 과제도 개발해서 각 지방에 교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소기업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음
- (제재업) 교육을 진행하지 않음. 필요한 교육도 없는 것으로 생각됨

□ 신입사원 교육 여부 및 필요 교육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은 회사 전반, 시설, 직원의 직위 등 간단한 교육만 진행하고 있음
- (골판지 제조업) 대부분 경력직 사원이 채용되다보니 별도의 교육은 없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채용되면 회사 전반에 대한 사항만 1주 정도 교육하고 있음
- (제재업) 교육을 진행하지 않음

□ 신입사원의 갖추어야 할 공통역량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본 업종은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신규인력 유입이 거의 없는 편임. 그렇기 때문에 역량을 고려하여 채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골판지 제조업) 개발실의 디자인분야를 제외하고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먼저 입사한 직원에서 업무를 배우면 되지 때문에 고려하는 역량은 없음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인력 보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역량을 고려할 여유가 없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단순 업무라 역량이 필요하지 않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지원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둘 수 없음
- (제재업) 인력보충이 어렵다보니 기준을 제한두지 않음

다.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고용증가를 위한 기업의 개선사항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고용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매출이 증가되어 한다고 생각함. 회사의 입장에서는 인력을 충원하여 매출을 늘리겠다는 야심, 매출이 증가하면 그 만큼 사람을 더 충원하는 형태임
- (골판지 제조업) 본 회사는 박스를 제조하는 업종이다 보니 한국인 채용이 어려움. 한국인이 채용되었다가도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나가는 경우가 많음. 업무의 특성상 근로강도가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함
- (산림토목) 월급이 오르면 고용이 증가할 것임. 고용이 증가하면 1인당 업무량이 감소할 것임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고용이 증가하기 위해서 기업이 개선해야 된다’라기 보다는 항상 인력을 구하고 있는 지원자가 없어 인력난이 심함
 - 대부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업종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들이 기피함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고용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 이익이 없어서 고용을 줄여야 하는 실정임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매출이 늘어야 함.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가 차등하게 임금 책정이 되어야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안 되어 있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에 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본 업종은 사람을 들이고 싶어도 오려는 사람이 없어서 직원을 구하지 못함. 이것을 극복하려면 급여가 높아야 할 텐데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과 연관되기 때문에 쉽지 않음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기본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려면 회사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라 어려움

- (제재업) 급여가 적다보니 사람들이 기피하고 직원들 입장에서 어려움.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작은 기업체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음

□ 산림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및 개선사항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국내 제재목은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수입목재를 많이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특수목재들은 국내 제재목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너무 높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규격표시제가 현실과 맞지 않음. 제재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옆에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과 맞음 않음. 표시제보다 인증제도 바뀌어야 함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조합과 민간업체가 공정하게 사업을 수주해야 하는데,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산림조합은 종목추가 없이도 사업을 다 할 수 있는데 반해, 민간기관은 종목추가에 자본적인 부분까지 추가해야 해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음
- (제재업) 정부에서 투자를 해주면 기업에 간섭을 너무 많이 함. 클린사업장 같은 것도 지원받은 적이 있으나 너무 간섭이 많아 직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음

□ 정부정책 중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시급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정책

- 노사관계증진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신규인력이 유입될 것 같음
- 고용장려금
 - (골판지 제조업)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고용장려금 같은 제도가 지원되면 좋으나 제도의 조건이 현실에 맞지 않아 지원받을 수 없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고용장려금이 가장 필요함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고용장려금 지급이 가장 필요함

다고 생각함

○ 기타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근로장려금은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최저 기준이 190만원으로 알고 있으나, 190만원의 경우 저희 업종의 특성상 어느 업체든지 잔업 조금만 진행해도 한 달에 19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
- (제재업)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음

라. 기타

□ 산림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한 필요사항 및 지원내용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개인사업자를 무분별하게 허가해주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체가 생겨서 서로 경쟁이 심함.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매출의 감소로 이어짐.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골판지 제조업) 고용창출의 경우 이윤이 남으면 직원도 채용할 수 있으나, 이윤이 남지 않으니 현재 직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지 않는데 고용창출에 노력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산림토목) 현재 정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업종대비 산림산업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 같음.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금액이 적게 배정되고 있는 것 같음
 -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은 구직자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함
-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산림산업 분야가 전체적으로 인력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인력 알선 등을 지원해주면 좋겠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금이 있으면 좋겠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고용창출은 회사 매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음. 회사 매출이 없는데 고용할 수 없음. 정부는 고용하면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매출도 없고 청년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고용 자체를 할 수 없음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목재생산업이 정부의 공단에 입주할 때 분진 때문에 규제가 있음. 규제를 완화시켜 목재생산업도 공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고용창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통해서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 줄여준다면 좋을 것 같음.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가장 간단한 것을 급여에 대한 인상인데 그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
-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일거리가 많이 생겨야하는데,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음. 본 업종은 산림조합이 유리한 일들이 많아서 민간기업은 경쟁하기 어려움. 현재 산림조합에 비해서 민간기업이 더 규제가 많음
 - 대기업과 급여차이가 많아 고용의 질이 나쁠 수밖에 없음.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준에 바로 속하지 않아 근무시간도 길고, 급여도 적음
- (제재업) 업종이 일이 힘들다보니 또는 힘들다고 인식되다보니 지원자가 없음

□ 희망하는 정년, 충족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본 업종은 현장 생산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 고위험도 크고, 인력난으로 적은 인원이 일하고 있어 휴가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그렇기 때문에 병원, 건강관리 등이 되지 않아 오래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음
 - 여러 가지 노동법이 있으나 대부분 큰 기업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작업 기업은 누구하나 감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임
- (골판지 제조업) 본 회사의 규정은 60세로 정해져 있으나, 현장의 경우 한국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지 않으니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연령이 높아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음
- (산림토목) 본 업은 남성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 정해진 연령은 없음. 하지만 근로 시간이 과다하기 때문에 결혼 등을 하게 되면 일과 삶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음
-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본 회사는 연령 제한이 없음. 근무할 수 있을 때까지 근무

할 생각임

-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회사 규정은 65세까지 근무 할 수 있음.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 (표면 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본 회사는 딱히 정년이 없음. 요즘 같은 시대에 65세까지 일 할 수 있다면 좋으나 정부에서 정년과 관련해서 제도적 뒷받침은 없음
- (숯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나이제한은 없지만 60세까지 할 수 있음. 대체 인력이 없 다보니 휴가 등의 사용이 어려움
- (제재업) 60세까지 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안함. 작은 회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V. 연구결과와 정책제언

1. 연구결과의 요약

□ 경기 및 일자리전망

-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사업체와 근로자 대부분이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사업체의 경우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비교적 긍정적 견해를 보임
- 일자리 전망의 경우 국내 일자리는 산림일자리보다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 모두가 높아 전망의 차이를 판별하기 어려우며, 사업체의 일자리에 대한 전망에서 긍정적 견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근로자현황

- 산림산업은 전체 81.6%가 상용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타 산업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목재, 펄프, 종이제조업(96.0%)에서 높았음

□ 채용

- 채용은 부족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채용이 대부분이었으며, 퇴직인원 대비 신규채용 비중은 영림단(3.38)과 산림복지전문업(2.36)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임금 및 근로 복지

- 임금수준은 전반적으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직이 상용직 평균 27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용직 초임은 사무관리직이 167만원으로 가장 낮음
- 4대 보험 가입률은 사업체조사와 근로자조사 모두 전체 95% 이상으로 높은 편

□ 근로시간

- 응답자의 95.6%가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음(주당 소정 근로시간은 평균 39.5시간 수준).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유사한 결과임.

- 실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평균으로 볼 경우 초과근로의 문제는 거의 없는 편. 초과수당은 53.6%에 불과함. 특히 산림사업법인(35.5%)과 산림복지전문업(27.5%)에서 초과근로수당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초과수당 지급 방식은 초과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근로자가 88.3%이며, 그 중 67.2%가 통상 시급의 125~150%로 지급됨

□ 교육훈련

-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사업체는 72.2%, 근로자는 67.3%로 사업체가 더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실제 교육훈련은 82.9%가 자체 및 외부위탁을 통해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업체와 근로자가 느끼는 필요성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음
 -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상대적으로 자체교육보다는 공공기관 위탁교육 등 외부교육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자체교육에 대한 근로자 만족도가 높아 외부교육보다는 자체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OJT에 대한 사업주 지원 등이 필요함
- 교육훈련의 애로사항은 직원들의 무관심이 30.5%로 가장 높았음. 이는 특히 산림사업법인(50.6%)에서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은 업무 외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해 교육훈련이 필요하지 않다고 29.9%가 응답하였음
 - 결국, 적극적인 직무향상교육을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설계가 필요함
- 교육효과에 대한 불확실성(27.5%)이 생산업과 제조업이 중심으로 높는데, 이는 생산기능직에 대한 체계화되고 검증된 교육훈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고용상의 만족도

- 근로자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96.2%가 보통 이상의 만족을 보임

-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만족도에서 평가가 낮았던 임금수준(20.7%), 복지여건(20.2%), 열악한 작업환경(18.5%) 등이 꼽혔음
 - 하지만 이런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92.9%는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 하여 불만족 정도가 이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확인 됨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조사

- 고용계약기간은 1개월~1년 미만이 77.1%로 가장 많고, 이는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았음
- 고용계약의 반복은 전체 40.5%가 갱신 경험이 있었으며, 영림단의 경우 76.9%로 높았음
- 임시 및 일용근로자 중 정규직을 희망하는 비중은 64.8%이며, 임시 및 일용직의 경험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는 전체 81%

□ 정부정책

- 고용증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으로는 사업체와 근로자 모두 인건비 지원과 4대 보험료 지원,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보였음
- 산림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은 사업체의 경우 유통구조개선과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 등의 매출증대와 관련한 정책들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반면, 근로자들은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및 공공일자리조성, 기술개발투자 및 지원에 복지와 일자리 그리고 성장이라는 측면을 고르게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음

2. 주요 정책 제언

□ 신규일자리에 대한 전망

- 산림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경기 및 산림산업, 그리고 기업의 경제 전망이 비교적 부정적이었음
- 고용의 선행조건이 매출증가라는 공식에 따라 신규채용은 부족인력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으며, 채용결과와는 다르게 계획은 부족인력의 48.9%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사업체의 행태를 볼 수 있음
- 결국, 신규채용이 매출 증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향후 신규 일자리 창출은 다소 소극적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DB구축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DB 구축: 고용정보원의 워크넷을 벤치마킹하여 산림관련 일자리의 구인구직 정보를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DB구축은 고용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 체계를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 DB구축을 통한 구인 및 구직정보의 축적은 산림일자리만의 노동수요와 공급 그리고 노동이동을 하나의 서버로 관리가 가능

□ 4차산업혁명형 신직업 발굴

- 4차산업혁명에 대비해 드론, AI,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산림 관리 및 산림서비스 활성화
 - 산림산업의 고도화는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산림산업 전문인력 양성

- 고용부, 중기부,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교육훈련사업이 진행되지만, 제조업 중심의 뿌리산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실제 실업자들이 산림산업과 관련한 교육훈련을 접하기가

매우 어려움

- 실제 산림관련 신규 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생산기능직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바, 기능직을 중심으로 직능수준별, 공통훈련 개발, NCS훈련 적합직종 개발 등의 직업능력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산림산업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향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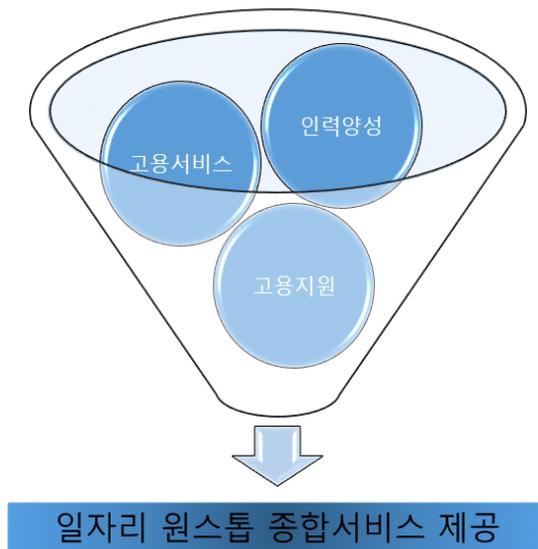
- 설문을 통해 본 결과 5~29인의 소규모 회사가 많았고,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 비중도 전체 1/4 수준이었음
- 더욱이 영림단의 경우 2년 이상의 근속자가 상용근로자가 아닌 임시 일용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음
- 이는 기간제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해석되며, 이에 따른 고용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근로기준법, 노동인권 등 노동과 관련된 기초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업 인사관리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여서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노동공급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
- 영림단의 임시 일용직 장기 근속자에 대한 종사상 지위 향상을 통해 직업 안정성 제고 방안 필요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 지원

- 산림산업은 고령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고령자의 경우 산재보험 등의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 산림산업의 특성 상 산재 위험이 항상 있는 바, 산림산업 종사 고령자의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채용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높은 바, 이에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같은 기존 4대 보험 지원사업이 산림산업에서 적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및 홍보가 필요함

□ 산림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패키지

- 신규일자리 창출 패키지사업이란 산림산업의 노동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즉,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DB구축→노동수요에 맞는 산림인력양성→구인구직 알선 매칭서비스 체계화→채용지원 등을 하나의 패키지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



- 실태조사 결과 영림단과 산림복지전문업은 산림산업 타 부문에 비해 패키지 사업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두 산업 모두 영세한 편이지만, 경기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 채용 시 관련 자격증이 선호된다는 점이 공통점이 있으며,
 - 그 밖에도 임시 및 일용직의 비중이 높지만 신규채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 지인소개를 통한 취업이 많아 체계화된 고용서비스가 필요하며,
 -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훈련을 선호하며, 외부교육의 비중이 높지만 자체교육의 만족도가 높다는 공통점이 있음
 - 특히, 산림복지전문업은 신규사업 확장 및 정부지원의 기대 등의 이유로 인한 신규채용을 고려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두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이는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공공의 주도하에 운영하겠다는 의지이자 노력이며, 이를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산림산업 인력을 양성하고, 공공의 경로를 통해 노동수요에 매칭 및 알선을 하며, 사업체가 갖는 신규채용에 따른 채용부담을 줄여 주는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음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7), 2017년 고용영향평가(재정사업) 가이드라인.
- 국립산림과학원(2018), 양질의 산림일자리 평가 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 방안
- 기획재정부(2017), 정부재정사업의 예산설명서.
- 산림청, 임가경제통계.
- 산림청(2016), 2016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이해춘 외(201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지표 개발 등 합리적 평가체계 구축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이해춘 외(2017), 산림산업 고용영향평가 개선 연구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2017.10),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 주무현, 이해춘 외(2010), 경제,산업정책 및 주요 재정사업의 고용효과 예측 방법론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한국고용정보원(2016), 사회서비스 직접일자리사업 심층 평가 연구
- (2017),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 지표 안내서
- 한국노동연구원(2018), 정책 고용영향평가 표준매뉴얼
- (2010), 일자리사업 전달체계의 현황 및 평가

부록1. 설문지_사업체용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사업체용	ID
---	------	----

산림산업 고용환경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부는 최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행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산림산업의 고용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산림분야 종사자의 고용의 양과 질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외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 8.





조사 수행기관: 주식회사 립리서치
 담당 연구원: 홍지훈 과장 / 실사 담당자: 강혜숙 대리
 연락처: 02-2679-4197 (팩스) 02-2679-3858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아니오 ()
--------------	--

※ 통계목적 이외의 내용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동의 여부입니다.

회사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직위		전화번호	

I. 사업체 현황

문1. 다음의 귀사에 대한 **일반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1. 사업자등록번호	
2. 사업체 설립 연도	_____ 년도
3. 산업분류	1. 산림사업법인 2. 목재생산업 3. 목재·펄프·종이제조업 4. 영립단 5. 산림복지전문업 7. 기타(_____)
4. 사업내용 또는 생산품목	1. _____ 2. _____ 3. _____
5. 사업장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광주 5. 인천 6. 대전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1. 충북 12. 충남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6. 조직형태	1. 개인회사 2. 회사법인 3. 기타법인
7. 경영형태	1. 일반사업체 2. 파견업체 3. 용역(도급업체) 4. 기타
8. 사업체 형태	1. 단독 사업체 2. 분사·분점 3. 지사(점)·공장 4. 기타
9. 기업규모	1. 4인 이하 2. 5~29인 3. 30~99인 4. 100~299인 5. 300인 이상

문2. 귀사의 **지난 3년간 매출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2015년	2016년	2017년
_____ 백만원	_____ 백만원	_____ 백만원

문3. 귀사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산업산업**, 그리고 **귀사의 매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분	보기					성장률 전망치(%)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1. 국내 경제전망						
2. 산업 산업전망						
3. 사업체 매출전망						

※ 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성장률로 + 혹은 - 부호와 함께 작성
(예 : 3년 뒤 국내 경제가 10% 향상된다고 전망하는 경우 성장률 전망치에 +10으로 표기)

II. 근로자 현황

문4. 귀사의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아래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2018년 7월 31일 기준 귀 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기재, 파견·용역 제외)

전체 근로자 수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기타
총계	명	명	명	명
여성	명	명	명	명
고령자(65세 이상)	명	명	명	명
외국인	명	명	명	명
장애인	명	명	명	명

[보기]

상용: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자

※ 사업체의 유급임원(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포함

임시: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일용: 고용계약기간(구두계약 포함)이 1개월 미만인 자

기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자, 또는 그 외 종사자

※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

문4-1. (문4에서 '임시 및 일용직 인력이 있는' 업체만) 귀사가 **임시 및 일용직(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상용직 전환을 위한 인턴십 과정
2. 재정여건상 상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3. 회사 사업의 특성상 인력을 상시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4. 근로자(피고용인)가 원해서
5.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문5. 지난 **1년간 귀사의 신규 채용 및 퇴직**에 대해 아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신규채용	퇴직
전체	명	명
상용	명	명
임시 일용	명	명
기타	명	명

문6. 귀사의 **근속년수별 근로자 현황**에 대해 아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구 분	근속년수별 근로자 수				
	1년 미만	1~2년 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명	명	명	명	명
상용	명	명	명	명	명
임시 일용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문7. 귀사의 **직종별 근로자 수 및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 아래 표에 기입해 주십시오.

직 무 내 용	현 원				부족 인원 계	신규채용 계획	
	상용	임시 일용	기타	계		신규 또는 경력 무관	경력
1. 사무관리							
2. 연구개발							
3. 영업판매							
4. 생산 기능직							
5. 단순 생산직							
6. 기타(_____)							

문8. 귀사가 **채용 시 고려하는 항목**에 대해 다음 특성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모두 선택**해 주세요.

특 성	보 기	응 답
연령별	1. 청년(15~34세) 2. 중년(35~49세) 3. 장년(50~64세) 4. 고령자(65세 이상) 5. 연령무관	
특성별	1. 학력 2. 직무능력 3. 자격증 4. 인성 및 태도 5. 기초지식(PC활용, 외국어) 6. 기타 ()	

※ 특성은 귀사에서 인력 채용 시 주로 고려하는 구직자의 특성을 의미함

문9. 귀사가 **인력채용을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보 기
1순위 ()	1. 매출 증대 기대 2. 신규사업으로의 확장 3. 부족인원 충원 4.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
2순위 ()	5. 기타 ()

문10. 귀사는 직원 채용 시 **주로 활용하는 채용 경로**는 무엇입니까? 주된 경로 순으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보 기
1순위 ()	1. 공공 취업알선기관(워크넷,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등) 2. 민간 취업알선기관(사람인, 잡코리아 등) 3. 대중매체(교차로, 신문, 잡지, 광고 등) 4. 학교 또는 학원 소개 및 추천
2순위 ()	5. 친척, 친구 등 지인소개 6. 채용박람회 등 구인구직 행사 7. 기타 ()

문11. 귀사가 **인력채용 및 활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다음 중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으로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구 분	보 기
1순위 ()	1. 인건비 상승 2. 낮은 인력 수준 3. 낮은 임금 수준
2순위 ()	4. 인력의 잦은 이직 5. 인력 정보 부족 6. 중소기업 기피현상 7. 해당인력 타 지역 유출 8. 회사위치(입지여건) 9. 모집 및 관리비용 증가
3순위 ()	10. 재교육/훈련비 부담 11. 알선기관/단체 부재 12. 기타()

III. 임금 및 근로복지

문12. 귀 사업장의 **평균 월급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구 분	상용근로자 신입기준	상용근로자 평균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1. 사무관리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연구개발	만원	만원	만원	만원
3. 영업판매	만원	만원	만원	만원
4. 생산 기능직	만원	만원	만원	만원
5. 단순 생산직	만원	만원	만원	만원
6. 기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문13. 귀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혜택 종류	가입여부	
1. 퇴직금	1. 예	2. 아니오
2. 상여금	1. 예	2. 아니오
3. 시간외 수당	1. 예	2. 아니오
4. 유급휴가(유급휴일, 연월차)	1. 예	2. 아니오
5. 출산휴가	1. 예	2. 아니오
6. 복지시설(운동시설, 지원휴게실, 카페테리아 등)	1. 예	2. 아니오
7. 복지시설_기숙사	1. 예	2. 아니오
8. 통근차량 운행교통비 지원	1. 예	2. 아니오
9. 기타 지원(교통비지원, 통신비 지원, 식대지원 등)	1. 예	2. 아니오

문14. 귀 사업장에 **해당 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기준	해당여부	
1. 취업규칙 신고여부	1. 예	2. 아니오
2. 노동조합 여부	1. 예	2. 아니오
3. 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1. 예	2. 아니오

문15. 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4대 보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보험 종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1. 가입	2. 미 가입
2. 건강보험	1. 가입	2. 미 가입
3. 고용보험	1. 가입	2. 미 가입
4. 산재보험	1. 가입	2. 미 가입
5. 고용보험 사업장 관리번호		

[보기]

1) 일자리창출

가. 고용창출장려금 :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장년을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 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 일자리순환제 등을 통해 월평균 근로자수를 증가시킨 경우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용자 지원
- 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 ③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④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인건비 지원

나. 고용안정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여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

- ①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임금 감소액 지원, 대체인력 지원
- ② 일·가양립 환경개선지원 : 시차출퇴근제 등 일·가양립 관련 제도 활용시 간접 노무비 및 인프라 구축비 지원 및 용자
- ③ 정규직 전환지원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임금 증가액 지원 및 간접노무비 지원
-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비정규직 재고용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지원 등

다. 일자리 안정자금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

2) 고용안전망

- ①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사업)
- ② 자영업자 고용보험

3) 직업능력개발

- ① 내일배움카드(근로자)
- ② 국가인적자원개발 권소사업(사업주)
- ③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주)
- ④ 중소기업 훈련 지원(사업주)

문20. 귀사는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 또는 산림청에서 투자해야 할 정책 및 제도의 필요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종 류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분야별 클러스터(집적화단지) 조성					
2.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조성					
3.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4. 유통구조 개선					
5.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6. 산림분야 창업 지원					
7. 산림분야 기술개발 투자 및 지원					

[보기]

3대 분야 6개 유형 주요 일자리 분류

구 분	공공 분야	민간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1. 공공일자리	재해·안전분야 확충(청년) 비정규직 전환(청년)	백두대간보전협회 설립(청년)	
2. 사회서비스	산림복지시설 확충(청년) 자연휴양림 확대(청년) 고객지원센터 운영(청년) 수목원·정원산업 육성(청년)	산림레포츠산업 육성(청년) 숲길체험 전문업(장년) 산림치유 전문업(여성) 산림교육 전문업(여성)	
3. 지역산업일자리	스마트양묘장 운영(청년)	산림생명산업 육성(청년) 불법목재교역제한제도(청년) 임산물 수출 확대(장년) 석재산업 진흥(장년) 목재산업단지 조성(장년) 목조건축 지원(장년) 임산물 클러스터(장년)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장년)	선도산림경영단지(장년) 국유림 마을기업(장년)
4. 직접일자리	산림 코디네이터 운영(여성) 도시녹지관리원(장년) 등산로관리원(노인) 재해일자리(취약계층) 공공산림가꾸기(취약계층)		
5. 사회적경제·창업		식물문화 창업지원(여성) 목공 창업지원(청년) 귀산촌 창업지원(청년)	사회적 기업(청년) 사회적 협동조합(청년) 중간지원조직 신설(청년) 산촌생태마을 육성(장년)
6. 전문일자리	산림소득사업 전담요원(청년) 산림정보화 운영(청년) 임산물 통계조사원(청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청년)	제재목 등급구분사(장년) 수목진료전문업(장년) R&D 전문인력(청년)	

부록2. 설문지-근로자용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 등)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근로자용	ID
---	------	----

산림산업 고용환경 실태조사		
<p>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정부는 최근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일자리 정책의 실행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p> <p>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p> <p>본 조사는 “산림산업의 고용환경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얻은 산림분야 종사자의 고용의 양과 질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나은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p> <p>수집된 설문지는 통계목적외로만 이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p> <p>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8.</p>		
		<p>조사 수행기관: 주식회사 립리서치</p> <p>담당 연구원: 홍지훈 과장 / 실사 담당자: 강혜숙 대리</p> <p>연락처: 02-2679-4197 (팩스) 02-2679-3858</p>

개인정보제공 동의 여부	예 () 아니오 ()
--------------	--

※ 통계목적 이외의 내용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동의 여부입니다.

회사명	_____	부서명	_____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입)		
응답자성명	_____	응답자연락처	_____

1. 다음은 고용형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의 현 직장 근속 년수와 현재 업종에서 총 경력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1-1. 현 직장에서의 근속 년수 년 개월

문1-2. 현 업종에서의 총 경력 년 개월

문2. 귀하의 직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해당 되는 곳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사무관리 및 행정	()
2. 연구개발	_____
2-1. 생명과학연구원	()
2-2. 생명과학시험원	()
2-3. 농림어업시험원	()
2-4. 기타 인쇄 목재 등 공학기술자 및 시험원	()
3. 영업판매	()

⇒ 계속

산림산업 고용환경 실태조사(근로자용)

|| 1

문9. 귀하는 현 직장에서 **1주일에 총 몇 시간 근무하시기를 희망** 하십니까?
 초과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입해주세요.

주 _____ 시간

문10.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지급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 1. 한 달에 한 번씩
- 2. 보름 또는 매 주마다
- 3. 매일 지급된다
- 4.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 5.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문11. 귀하의 임금은 아래의 **임금 방식 중 어떤 방식**에 의해 결정됩니까?

가장 주된 방법으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또 **현재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임금 방식	해당 여부 표시 (O)	액 수
1. 연봉계약제		연봉 _____ 원/년
2. 월급		월급 _____ 원/월
3. 주급제 / 격주제		주당 평균 _____ 원/주
4. 일당제		일당 _____ 원/일
5. 시간급제		시간당 _____ 원/시
6. 도급제		_____ 원
7. 기본급 없이 능력·실적에 따라 결정됨		월평균 _____ 원/월
8. 기타		_____ 원/단위

※ 도급제: 일한 시간(기간)과 관계없이 일의 결과 또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

문12. 귀하의 일자리에서 임금을 결정할 때 **성과급 계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1. 그렇다 ⇒ **문12-1로 이동**
- 2. 아니다 ⇒ **문13으로 이동**
- 3. 모른다 ⇒ **문13으로 이동**

문12-1. (문12에서 '1. 그렇다' 응답자만) 현재 적용되는 성과급제는 어떤 것입니까?

모두선택 해주세요.

- 1. 개인 성과급제
- 2. 집단 성과급제
- 3. 회사 성과급제
- 4.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보기]

개인 성과급제: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집단 성과급제: 팀 또는 부서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회사 성과급제: 회사 전체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제도

문13. 귀하가 현재 직장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적정 임금수준은 얼마입니까?

월평균 _____ 원

III. 다음은 근로복지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14.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다음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사업장 가입자만 해당되며, 지역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사회보험 종류	가입여부	
1. 국민연금	1. 예	2. 아니오
2. 건강보험	1. 예	2. 아니오
3. 고용보험	1. 예	2. 아니오
4. 산재보험	1. 예	2. 아니오

문15. 귀하께서는 **직장에서 다음 혜택**을 받고 있거나 향후 받을 수 있습니까?

혜택 종류	가입여부	
1. 퇴직금	1. 예	2. 아니오
2. 상여금	1. 예	2. 아니오
3. 시간외 수당	1. 예	2. 아니오
4. 유급휴가(유급휴일, 연월차)	1. 예	2. 아니오
5. 출산휴가	1. 예	2. 아니오
6. 복지시설(운동시설, 지원휴게실, 카페테리아 등)	1. 예	2. 아니오
7. 복지시설_기숙사	1. 예	2. 아니오
8. 통근차량 운행교통비 지원	1. 예	2. 아니오
9. 기타 지원(교통비지원, 통신비 지원, 식대지원 등)	1. 예	2. 아니오

문16. 귀하는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1. 노동조합이 없음 ⇒ **문16-1로 이동**
- 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문17로 이동**
- 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문17로 이동**
-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 **문17로 이동**

문16-1. (**문16에서 '1. 노동조합이 없음' 응답자만**) 귀사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1. 구성되어 있음
- 2. 구성되어 있지 않음

문18-1. (문18에서 '1. 예' 응답자만) 교육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 자체 교육
2. 대학 등 정규 교육기관 등 외부 위탁교육
3. 학원 등 사설 교육기관 등 외부 위탁교육
4.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가 등 외부 위탁교육

문18-2.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은 만족스러웠습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18-3. 회사에서 지원하는 교육훈련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됨
2. 별로 도움이 안 됨
3. 보통
4. 어느 정도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V. 다음은 고용에 대한 만족도 관련 질문입니다.

문19. 귀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들에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직무만족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 또는 소득					
2. 취업의 안정성					
3. 하고 있는 일의 내용					
4. 근로환경					
5. 근로시간					
6. 개인의 발전가능성					
7.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8. 인사고과의 공정성					
9. 복리후생					

문20. 귀하께서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 만족
5. 매우 만족

문21. 귀하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가장 큰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 주된 것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1. 낮은 임금 수준
2. 장시간 근로
3. 열악한 작업환경
4. 복지여건 등 부수적인 요인
5. 담당 업무가 잘 맞지 않음
6. 고용형태의 문제(계약기간, 시간제 등)
7.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문22.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원하십니까?

1. 이직을 원한다 ⇒ **문22-1로 이동**
2. 이직을 원하지 않는다 ⇒ **문23로 이동**

문22-1. (문22에서 '1. 이직을 원한다' 응답자만) 이직을 원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낮은 임금 수준
2. 장시간 근로
3. 열악한 작업환경
4. 복지여건 등 부수적인 요인
5. 담당 업무가 잘 맞지 않음
6. 고용형태의 문제(계약기간, 시간제 등)
7.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문22-2. 이직을 원한다면 어떤 업종으로 이직을 원하십니까?

1.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을 원함
2.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체로 이직을 원함
3. 업종은 상관없음

VI. 다음은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문23. 귀하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산림산업**, 그리고 **귀하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주시고, 전망치를 숫자로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보기					성장률 전망치(%)
	매우 긍정적	긍정적	보통	부정적	매우 부정적	
1. 국내 경제 전망						
2. 산림 산업 전망						
3. 사업체 매출 전망						

※ 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성장률로 + 혹은 - 부호와 함께 작성
(예 : 3년 뒤 국내 경제가 10% 향상된다고 전망하는 경우 성장률 전망치에 +10으로 표기)

문24. 귀하는 향후 3년간 우리나라 경제, 산림산업, 그리고 귀하가 일하고 있는 사업체의 일자리 수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구분	크게 증가	증가	현상유지	감소	크게 감소
1. 국내 일자리 수					
2. 산림 산업 일자리 수					
3. 사업체 일자리 수					

VII. 다음은 임시 및 일용근로재(비정규직)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문3에서 '2. 임시 근로자', '3. 일용 근로자' 응답자만)

문25. 귀하의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 1. 1개월 미만
- 2.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3. 1년
- 4. 1년 초과 ~ 3년 이하
- 5. 3년 초과
- 6.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음
- 7. 기타 (_____) *직접기입해주세요*

문26. 귀하의 현재 고용계약(기간)은 반복 또는 갱신된 것입니까?

- 1. 예 ⇨ 몇 번째 반복 또는 갱신된 것입니까? _____ 번
- 2. 아니오(최초 계약)

문27. 귀하는 향후 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희망하십니까?

- 1. 정규직 전환을 원함
- 2.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 않음

문28. 귀하는 비정규직 근무 경험이 이후 정규직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2.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 3.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29. 귀하는 산림산업의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 또는 산림청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 및 제도의 종류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종류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	매우 필요
1. 추가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2. 4대 보험료 지원					
3. 설비투자 용자 및 지원					
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5. 직업훈련비 지원					
6. 채용활동지원(구인구직)					
7. 외국인 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문30. 귀하는 산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 또는 산림청이 투자해야 할 정책 및 제도의 종류별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주십시오

종류	매우 불필요	불필요	중립	필요	매우 필요
1. 분야별 클러스터(집적화단지) 조성					
2. 정부 및 공공기관 일자리 조성					
3. 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 조성					
4. 유통구조 개선					
5. 산림분야 전문가 육성					
6. 산림분야 창업 지원					
7. 산림분야 기술개발 투자 및 지원					

다음은 귀하의 일반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	-------
2.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전문대(초급대, 2·3년제 대학 포함)	6. 대학교(4년제 대학 포함)
7. 대학원 이상	
3. 귀하의 졸업여부는?

1. 졸업	2. 재학
3. 중퇴	4. 휴학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1. 인문계열	2. 예체능계열	3. 상공농수산계열
---------	----------	------------

 ⇨ 최종학력이 전문대, 대학교, 대학원 이상인 경우

1. 인문사회계열	2. 예체능계열	3. 사범계열
4. 자연계열	5. 공학계열	6. 의약계열
5. 귀하의 혼인상태는?

1. 미혼	2. 기혼(배우자 있음)
3. 이혼	4. 사별
6. 귀하의 가구주여부는?

1. 가구주	2. 가구주 아님
--------	-----------
7. 귀하의 자녀 수는?

1. 없다	2. 있다 _____ 명
-------	---------------
8.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 수는 몇 명입니까?
 _____ 명
9. 귀하의 월평균 총 소득은? (임대이자와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총 소득을 말씀해주세요)
 _____ 만원/월
10. 소득이 있는 가구원 수는? (임대이자와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월평균 총 소득을 말씀해주세요)
 _____ 명